

지도에 그려진 독도의 진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진실을 밝히다.



(재)독도재단

지도에 그려진 독도의 진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진실을 밝히다.

발 간 사

지도에 그려진 독도의 진실 ‘독도는 한국 땅’

“지도는 시각적으로 불변의 진실을 보여줘”

독도재단은 지난 2009년 출범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역사 왜곡에 의한 억지임을 밝히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독도관련 고지도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도는 제작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그 시대 사람들의 영토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를 통해 일본 스스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기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증거력이 크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를 중심으로 현재 170점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중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포인트」의 「1포인트 -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주장의 근거 자료로 사용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1779년 초판 지도를 조작한 1846년 조작판 지도임을 밝히고자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초판 및 조작판 등 16점과 관련 연구논문 등을 엮어 도록집 『지도에 그려진 독도의 진실 -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진실을 밝히다.』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재)독도재단 사무총장 유수호

지도는 시각적으로 불변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 속에 그려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백 마디 말보다 사진이나 그림 한 장이 더욱 강한 설득의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도록집이 자국에 불리한 증거는 숨기고 임의로 조작된 유리한 증거만으로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해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야욕을 무력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도재단은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독도 수호 사업과 독도 탐방 사업, 국내외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치며 '독도사랑 에너지'를 곳곳에 확산시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이고,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록집 제작을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독도 수호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재단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DEX

1. 山形県 2. 秋田県 3. 岩手県 4. 宮城県 5. 福島県 6. 茨城県 7. 栃木県 8. 群馬県 9. 埼玉県 10. 千葉県 11. 東京都 12. 神奈川県 13. 新潟県 14. 富山県 15. 石川県 16. 福井県 17. 山梨県 18. 長野県 19. 岐阜県 20. 静岡県 21. 愛知県 22. 三重県 23. 滋賀県 24. 京都府 25. 大阪府 26. 兵庫県 27. 奈良県 28. 和歌山県 29. 徳島県 30. 香川県 31. 高松市 32. 愛媛県 33. 高知県 34. 福岡県 35. 佐賀県 36. 熊本県 37. 大分県 38. 鹿児島県 39. 沖縄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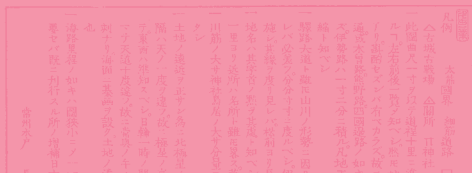
목 차

Contents

발간사	04
I. 나가쿠보 세키스이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08
1. 심정보(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의미와 해석	09
2. 최선웅(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1
3.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 vs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지도(1846) 비교	14
II. 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6
16점(1778_2점, 1779, 1781, 1791, 1811, 1833_2점, 1840, 1844_2점, 1846, 연도미상 4점)	
III.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관련 연구 및 분석	33
1. 최선웅(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본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연구	34
2. 최재영(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이상균(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배경과 독도영유권적 가치	74
3. 박경근(독도재단 연구원) - 일본 외무성 10포인트에 제시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한 분석	87

나가쿠보 세키스이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 심정보(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의미와 해석
2. 최선웅(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3.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 vs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지도(1846) 비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의미와 해석

심정보(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일본지도의 선각자로 불리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1717~1801)는 이바라기현(茨城県) 다카하기(高萩)에서 출생하여 에도(江戸)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저명한 지리학자이다. 2017년에는 탄생 300주년을 맞아 그의 유물 693점이 이바라기현 지정 유형문화재로, 2020년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 586점이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적, 지도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농민 출신으로 유소년 시절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를 잃고, 친척집에서 성장했다. 그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장년기까지 이웃의 서당에서 한학과 한시, 천문과 지리 등을 배우면서 지리와 지도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어 궁극한 바깥세상을 다니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경험을 쌓았다.

44세 때는 도호쿠(東北) 지방을 여행하고 『동오기행(東奧紀行)』을, 51세 때는 나가사키(長崎)를 거쳐 시모노세키(下關)에서 베트남 부근을 표류했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정리한 『안남국표류물어(安南國漂流物語)』를, 그리고 나가사키를 비롯한 주요 도시와 경관을 기록한 『나가사키행역일기(長崎行役日記)』를 나중에 정리하여 간행했다. 게다가 그는 지도 제작에도 매진하여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를 비롯하여 지구만국산해여지전도(地球萬國山海輿地全圖), 대청광여도(大清廣輿圖), 당토역대주군沿革地圖 등의 지도를 남겼다.

일본에서 최초의 실측도는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 1745~1818)가 전국 각지를 걸어 다니면서 측량하고, 사후 그의 제자들이 자료를 모아 1821년에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를 완성했다. 이 지도는 관찬으로 당시로서는 비교적 정확하고 우수했지만, 정부에 비닉(秘匿)되어 관계자 이외에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이 지도보다 42년 이른 시기에 완성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실측도가 아닌 편집도이다.

에도 시대에 정부가 내부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여러 지방(國)을 그린 국회도(國繪圖)와 전국을 그린 일본도(日本圖)는 서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다. 에도 초기의 일본도는 국(國)의 배치를 나타낸 행기도(行基圖)를 토대로 한 것이다. 중기에는 화가였던 이시가와 토모노부(石川流宣)가 1687년에 본조도감강목(本朝圖鑑綱目)이라는 일본도를 완성했다. 이 지도는 100년 동안 간행되어 일반인들이 널리 이용했지만, 18세기 후반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가까운 일본지도를 만들어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지도는 일반 민중의 지도로 널리 활용되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라는 역작을 완성하기 이전 단계로서 1760년대에 일본도(日本圖)와 개제부상분리도(改製扶桑分里圖)를 만들었다. 이들은 사찬 지도로서 일본전도 수준에서 동해상의 작은 섬 독도와 울릉도가 최초로 등장한다. 간행 연대가 불명확한 1760년대의 일본도에는 오키제도 북서에 두 섬의 모양과 함께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 명칭이 기재되었다. 경위선이 표시된 1768년의 개제부상분리도는 울릉도(竹島 一云磯竹島)와 독도(松島), 그리고 두 섬 옆에는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이것은 오키의 지지를 기술한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일본 북서의 경계는 오키까지라고 명기한 것이다.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지도는 일본에서 최초로 경위선이 들어간 일본지도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에도 초기부터 세계지도에 경위선을 표시했지만, 일본지도에는 에도 후기부터 경위선이 나타난다. 1754년 모리 고안(森幸安)의 일본분야도(日本分野圖)는 손으로 직접 그린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경위선이 들어간 가장 오래된 일본지도이다. 나가쿠보의 지도는 일본분야도를 참고한 흔적이 있다. 그는 지도에서 경선은 교토(京都)가 기점이 되도록 정했으며, 위선은 시부가와 하루미(渋川春海)의 측정치를 이용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1768년 개제부상분리도를 만든 이후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고 섭렵하여 1779년에 더욱 발전된 초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완성했다. 이 지도는 약 1/130만 축척에 경위선이 표시된 대형(135×85cm)의 지도로서 일본의 형상과 내용 등이 현실과 같이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1768년 개제부상분리도의 내용과 동일하게 표현하여 일본 북서의 경계는 오키까지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두 섬 옆의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글귀는 여기에서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정확히 이즈모(出雲)로부터 오키를 원망(遠望)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은주시청합기』 권1의 국대기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지도를 만들면서 『은주시청합기』의 내용을 신뢰하여 독도와 울릉도를 지도에 나타내고, 글귀도 그대로 적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 지도의 북서 변방에 위치한 조선 남동부의 부산 일대, 동해상의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의 영역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경위선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지도는 실측도가 아닌 편집도임에도 일본열도의 윤곽은 매우 양호하고, 일본에서 최초로 경위선을 지도에 표시하는 등 지도제작 방식이 진보했다. 그것은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정부 편찬의 국회도(國繪圖)나 일본도(日本圖)를 비롯하여 다수의 자료와 여행에서 얻은 각 지역의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여 끊임없이 지도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1760년대에 최초로 일본지도를 만든 이래 1779년 제1판 이후 최후로 완성된 1791년 제2판까지 10회 이상의 개정 작업을 반복하는 집념을 보였다.

그래서 그가 1801년 별세한 이후에도 이 지도는 역작이었기에 1811년, 1833년, 1840년, 1846년, 1871년에 중판되어 19세기 후반까지 서민들의 지리적 지식의 보급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나아가 이 지도는 민간의 지도제작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 계통에 속하는 다양한 일본지도가 나왔으며, 외국에도 전해져 일본의 구체적인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최선웅(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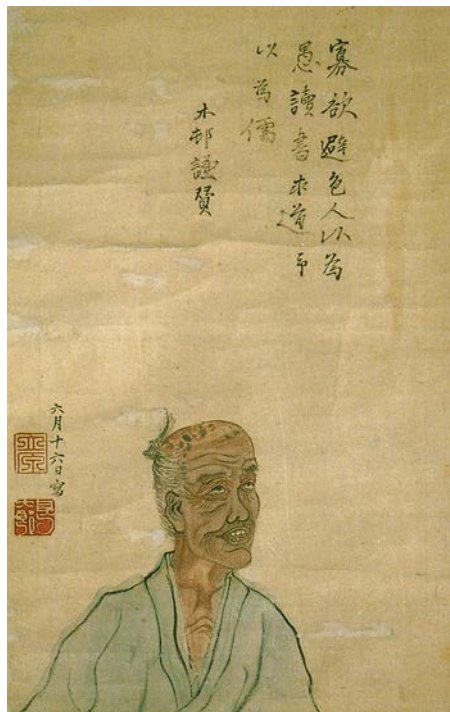
2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1717~1801)는 1717년(享保 2) 히타치국(常陸國) 다가군(多珂郡) 아카하마촌(赤浜村)의 농가에서 태어나 1801년(享和 1) 작고할 때까지 지리학의 선구자로 활약했다. 하루타카(玄珠)는 그의 본명이다. 15세에 고향 인근의 시모데즈나촌(下手綱村)의 한학자인 스즈키 겐준(鈴木玄淳)의 사숙(私塾)에서 한시를 배웠고, 18세 때는 미토번(水戸藩)의 유학자 나고에 난케이(名越南溪) 밑에서 공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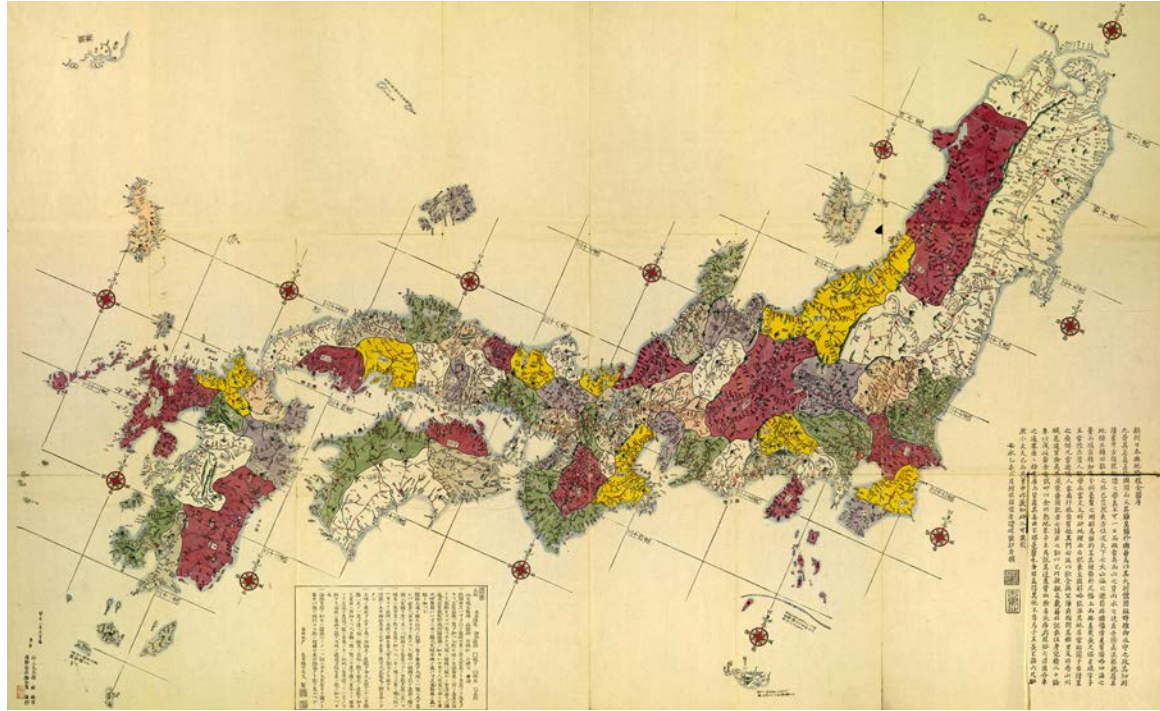
28세 때부터는 동북지방과 나가사키(長崎) 등을 여행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막부에서 일본 전국을 측량해 1728년(享保 13)에 제작한 「쿄호일본도(享保日本圖)」와 모리 코안(森幸安)의 「일본분야도(日本分野圖)」등을 참고하고, 오슈도(奥州道)를 왕래하는 여행자나 다카야마 히코쿠로(高山彦九郎), 기무라 겐카도(木村蒹葭堂), 후루카와 고쇼켄(古川古松軒)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정리해 1774년(安永 3)에 일본지도의 편집을 완성하였다. 이듬해인 1775년(安永 4)에 교토를 방문해 시바노 리쓰잔(柴野栗山)으로부터 지도의 서문을 받았다.

1777년(安永 6)에는 미토번 제6대 번주인 도쿠가와 하루모리(徳川治保)의 시강(侍講, 측근에서 학문을 강의하는 사람)에 발탁 되어 에도 코이시카와(小石川)의 미토번 저택에 거주하면서 유학과 지리학·천문학 등을 가르쳤다. 1778년(安永 7)에 지도를 완성하여 출판허가를 득하고, 1년 뒤인 1779년(安永 8)에 새로운 정보에 따라 지도를 수정하여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를 완성하고, 1780년(安永 9) 오사카서점(大坂書店)에서 간행하였다.

011



<도 1> 다치하라 교쇼(立原杏所)가 14세 때 그린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肖像. 화제는 '과욕을 피하는 사람이 우직하다. 독서를 추구하고, 이미 유자가 되었다.'(출처: 茨城縣立圖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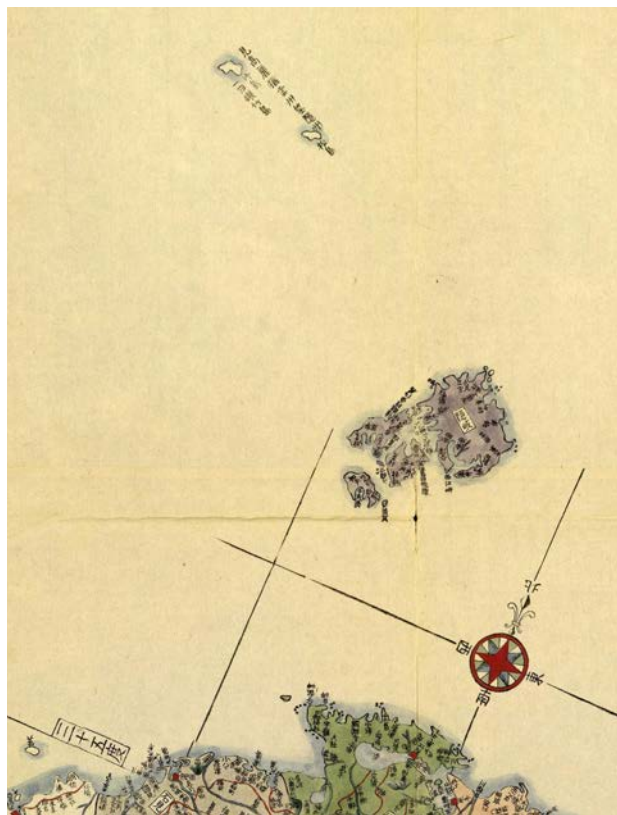


〈도 2〉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79년 초판(安永 8)의 개정 10판. 134cm×83.5cm(출처: 독도재단)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1779년(安永 8) 초판이 발행된 이래 1871년(明治 4)까지 100년 가까이 수십 차례에 걸쳐 발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생존했을 때 발행된 지도는 1779년 초판과 1791년(寛政 3) 제2판뿐이고, 나가쿠보 세키스이 사망이후에는 1811년(文化 8)에 제3판, 1833년(天保 4)에 제4판, 1840년(天保 11)에 제5판이 간행되었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는 에조(蝦夷, 현재의 홋카이도)와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오키나와(沖繩) 등을 제외한 당시 일본의 관할구역을 나타낸 지도로 10리를 1촌(寸)으로 한 축척(약 130만분의 1)을 사용하였고, 지도의 위쪽은 북북동으로 방위가 틀어져 있다. 일본의 관할구역에는 당시의 행정 단위별로 구분하여 채색이 되어 있고, 경위선이 그려져 있다. 위선은 각지의 위도를 조사해 표시한 것이고, 경선은 위선에 직교해서 그린 형식적인 방격선(方格線)이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좌측 상단에는 조선의 남동쪽 해안이 그려져 있고, 그 동쪽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다. 울릉도는 ‘죽도(竹島)’로,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되어 있고, 울릉도에 옆에는 ‘또한 기죽도라 한다(一云磯竹島)’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는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雲州, 이즈모의 이칭)에서 운슈(隱州, 오키의 이칭)를 보는 것과 같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 글은 1667년에 사이토 호센(齊藤豊仙)이 저술한 오키의 지지(地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起)』 권1 국대기(國大記)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도 3〉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79년 초판(출처: 독도재단)
 울릉도(竹島)·독도(松島)에는 채색이 없고, 경위선이 그려져 있지 않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846년 모방판(출처: 와세다대학도서관)
 울릉도(竹島)·독도(松島)에 채색이 있고, 경위선이 그려져 있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초판에는 조선과 울릉도, 독도는 경위선 밖에 그려져 있고, 일본 관할구역에 채색된 행정구역 별 색과 달리 채색이 되어있지 않아 일본 관할구역과는 구별되어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가 나란히 그려져 있어 마치 두 섬이 형제 섬으로 표현되어 있어, 후대 일본의 지도제작자들도 이러한 배치를 따라 그리게 되었다. 그리고 『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하여 ‘일본의 서북쪽 경계의 한계는 오키섬’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울릉도와 독도는 일찍이 에조나 오가사와라제도, 오키나와 등과 같이 일본의 관할구역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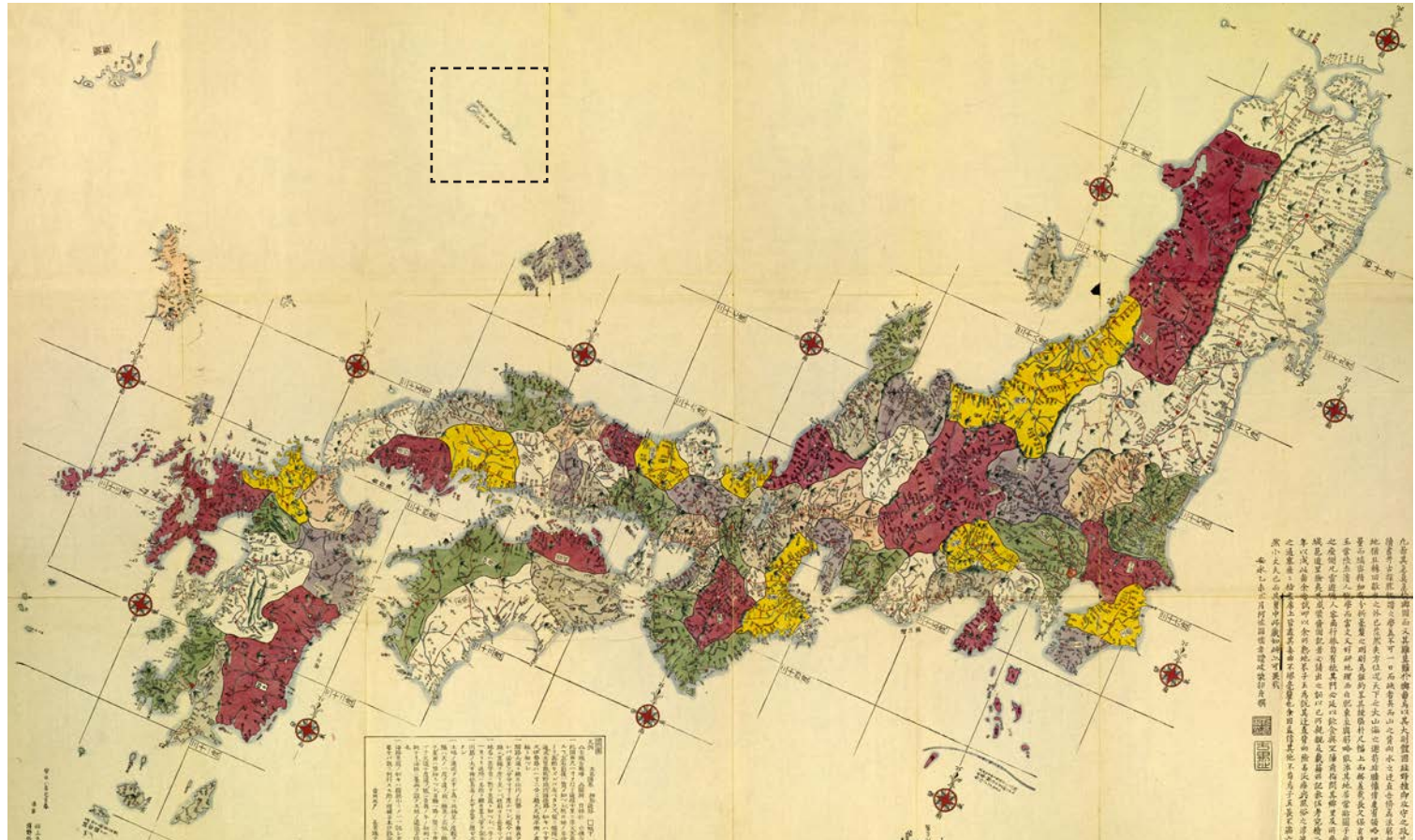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1779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제5판까지 발간되었는데, 이 가운데 1840년(天保 11) 제5판까지는 울릉도와 독도에 채색이 되지 않았으나, 1844년(弘化 1) 이후 민간에서 모방판이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관할구역과 같이 채색을 하고, 경위선까지 확대해 그려 넣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1846년(弘化 3) 모방판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올려놓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찍이 조선 령이 아니었다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3 '지도 조작을 통한 일본의 억지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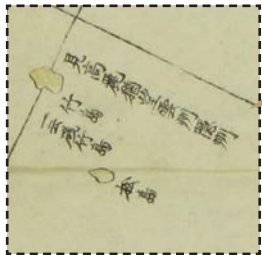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 vs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지도(1846) 비교



울릉도와 독도를 채색하지 않고
경위도선을 그리지 않아 조선 영토로 인식



〈그림 1〉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 134×83.5, 출처 : 독도재단)



울릉도와 독도를 채색하고
경위도선을 그려 일본 영토로 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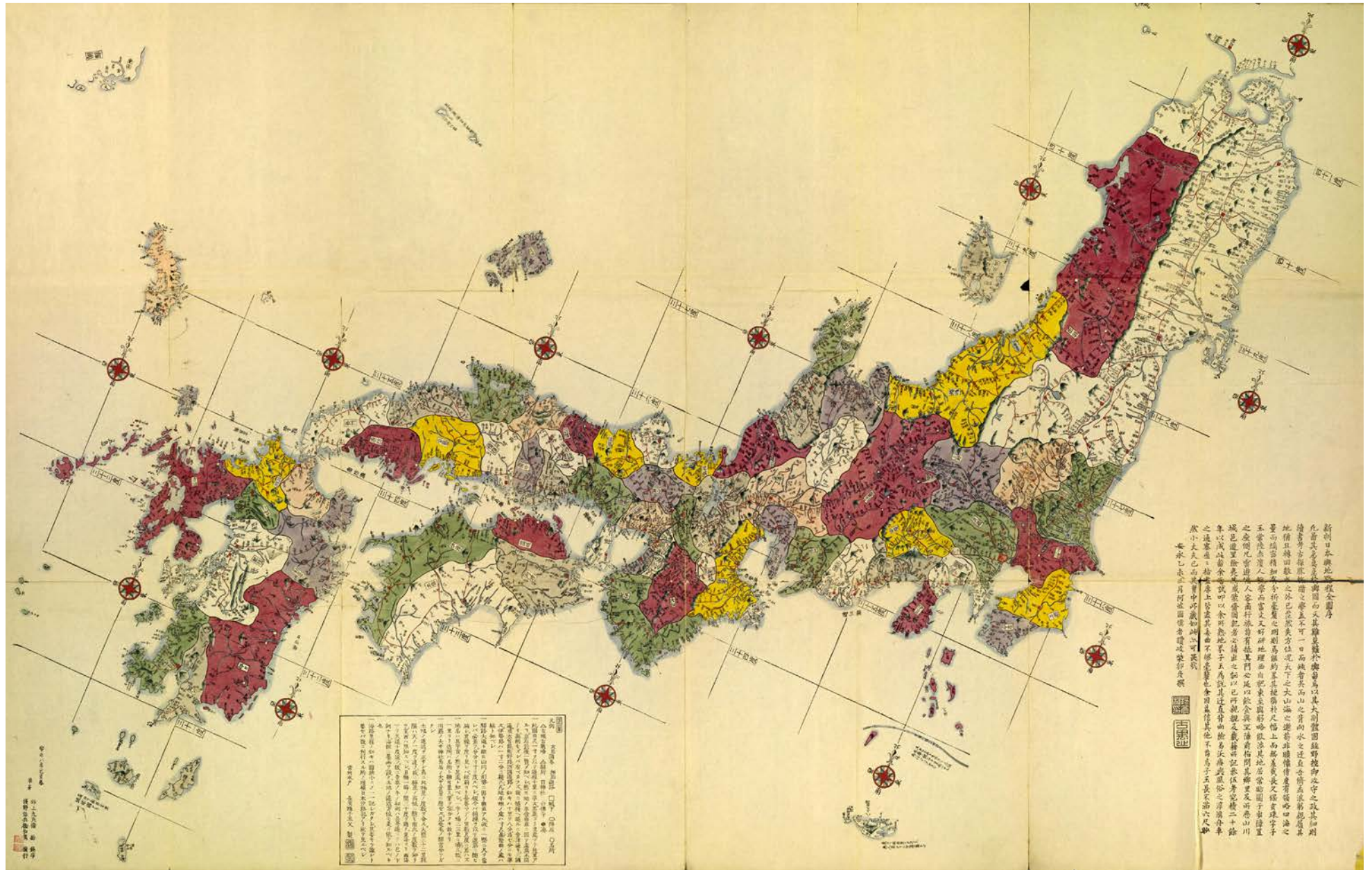


<그림 2> 개정일본여지노정진도(1846, 98×72, 출처 : 와세다대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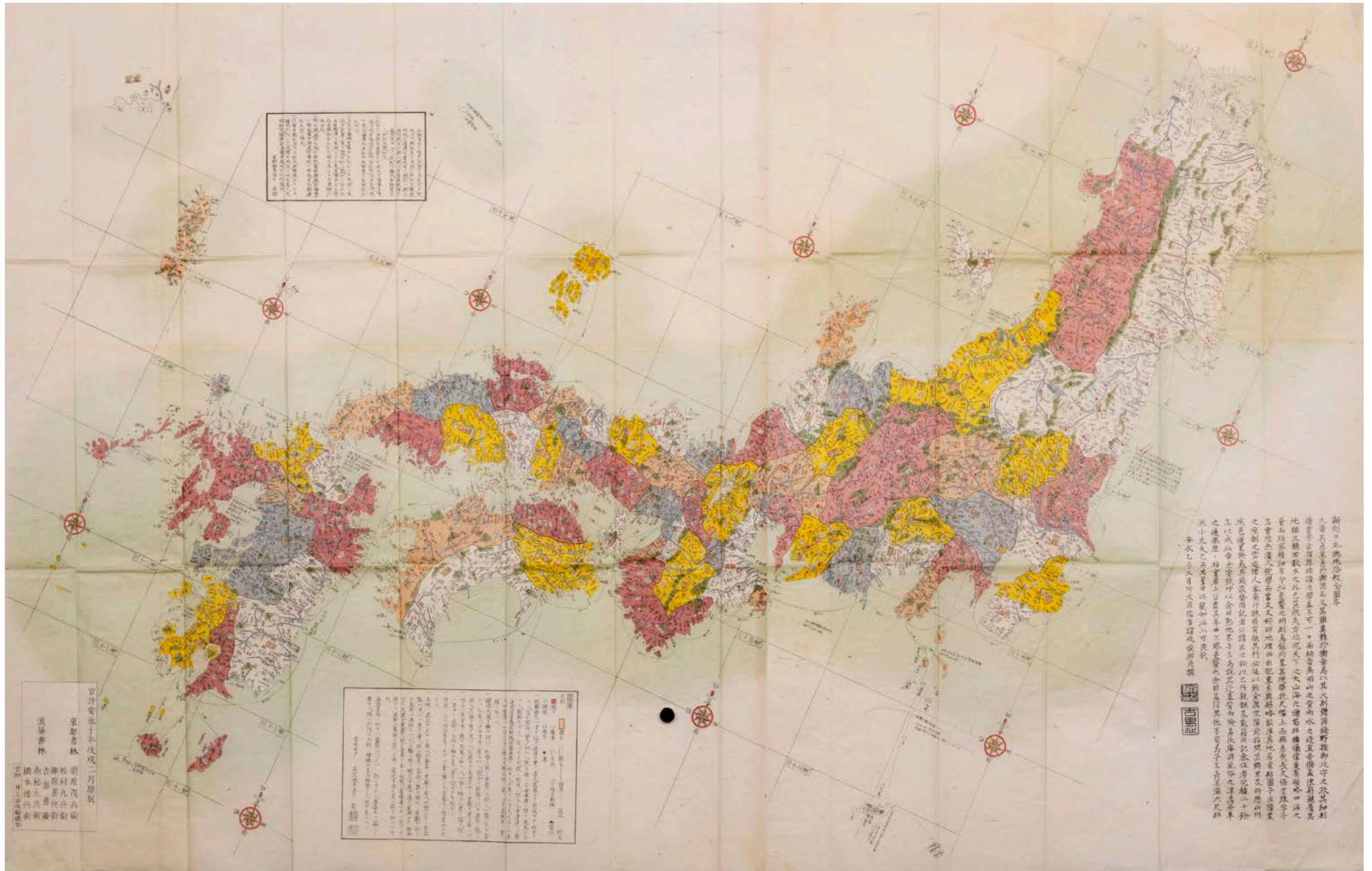
1.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8, 133.1×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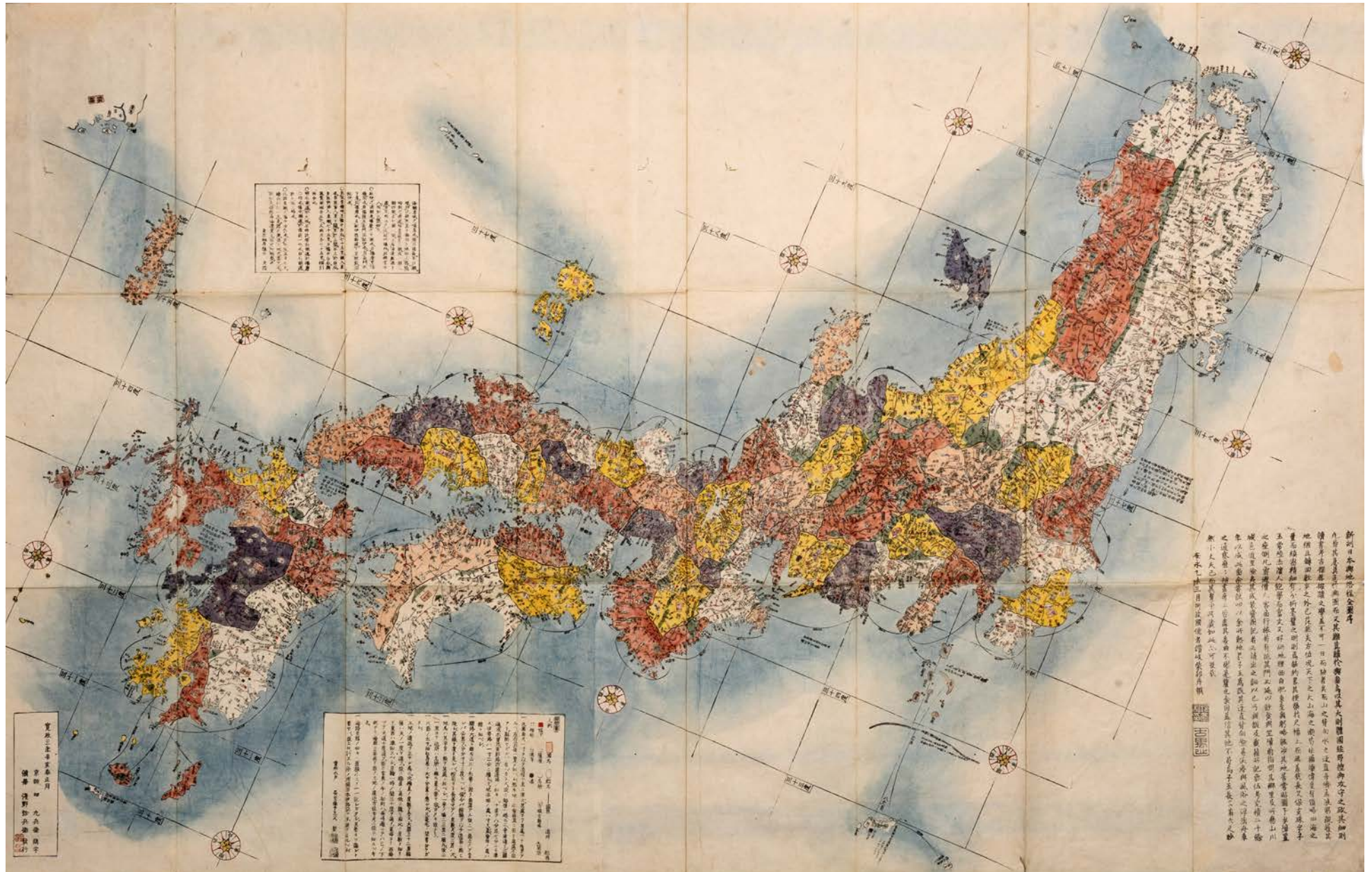
3.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 134×83.5, 관허1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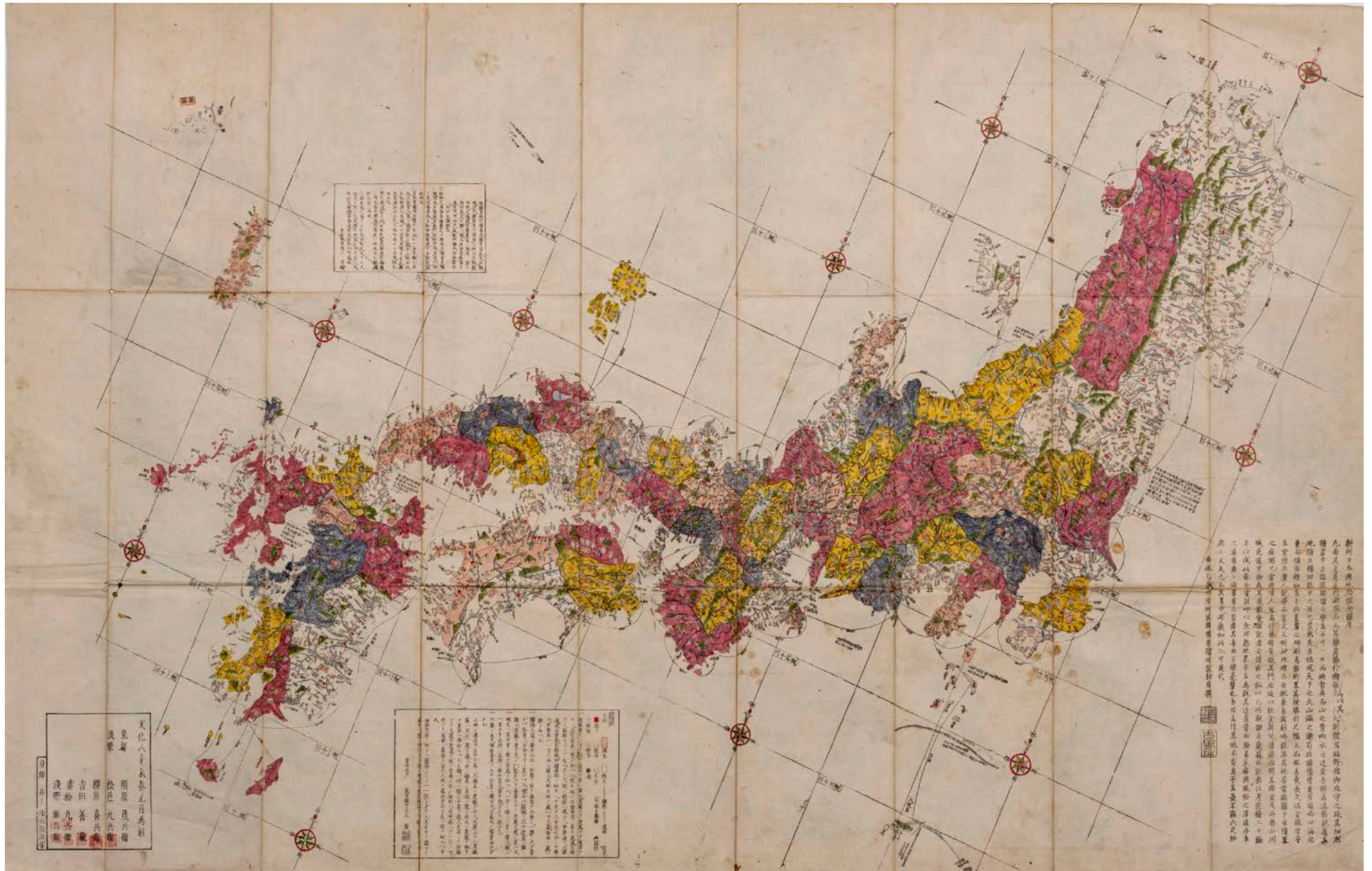
4.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81, 133.7×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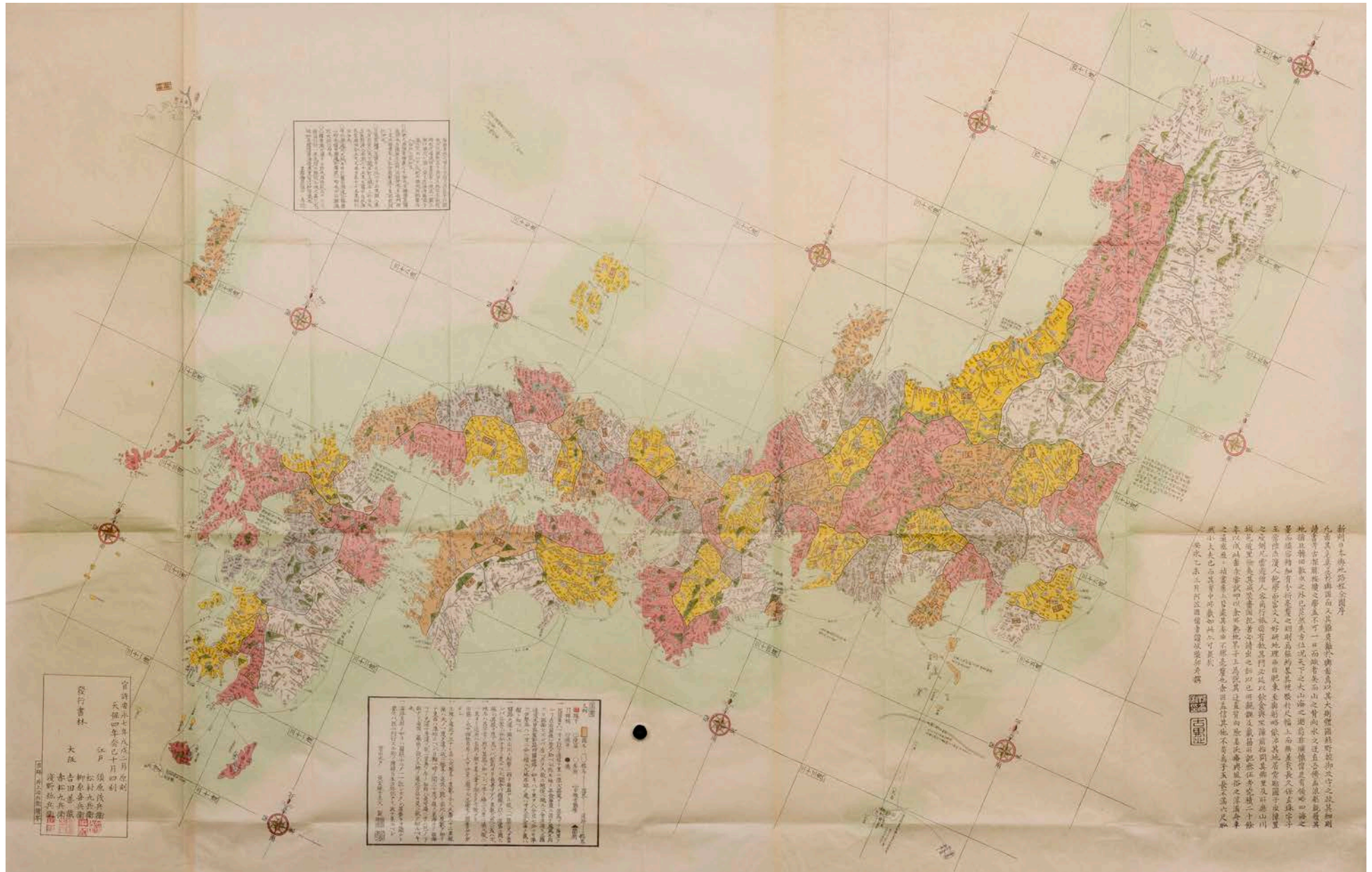
5.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91, 128.8×84.6, 관허2판)



6.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11, 139.9×84.7, 관허3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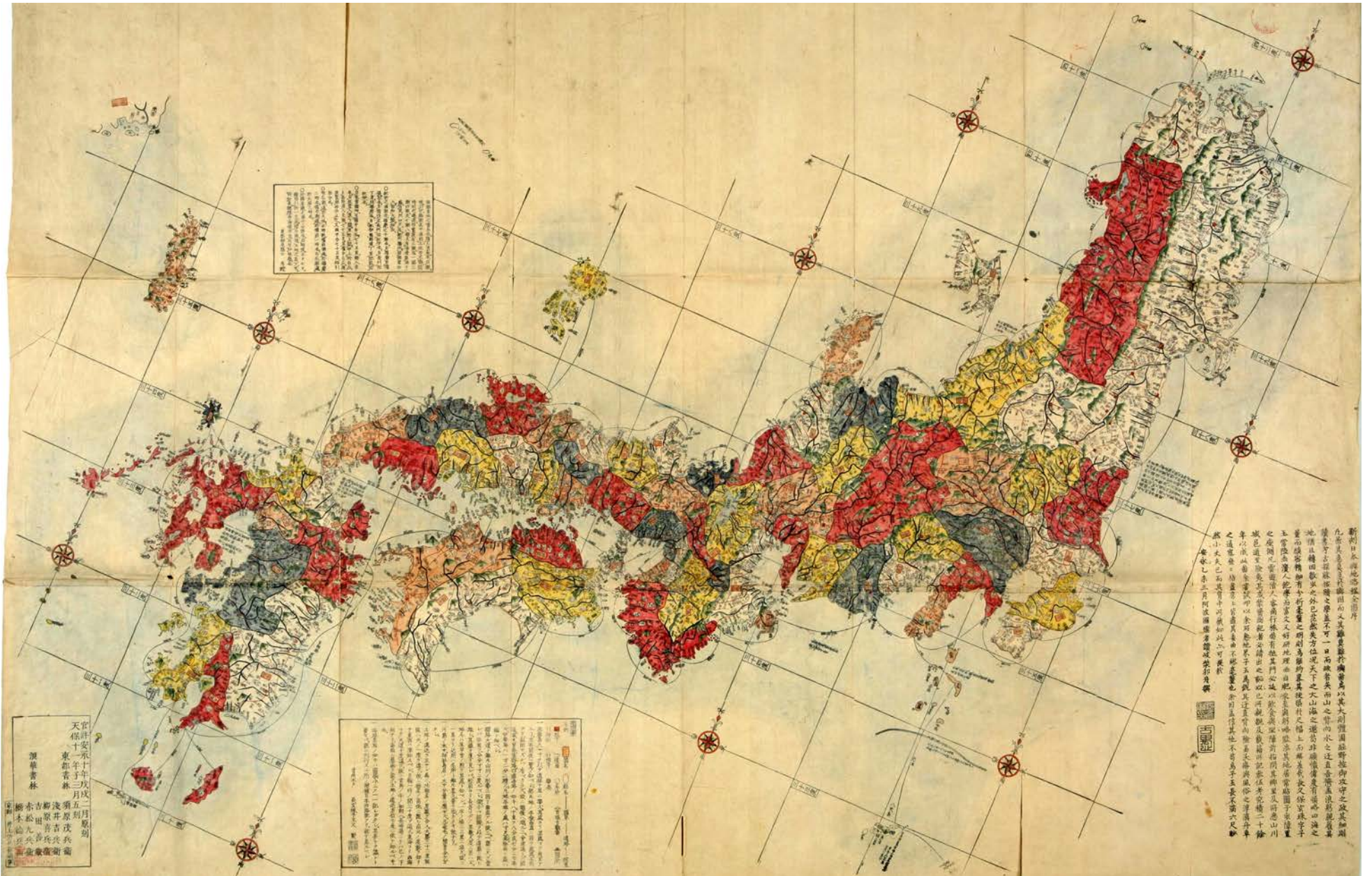
7.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33, 136.1×91.8, 관허4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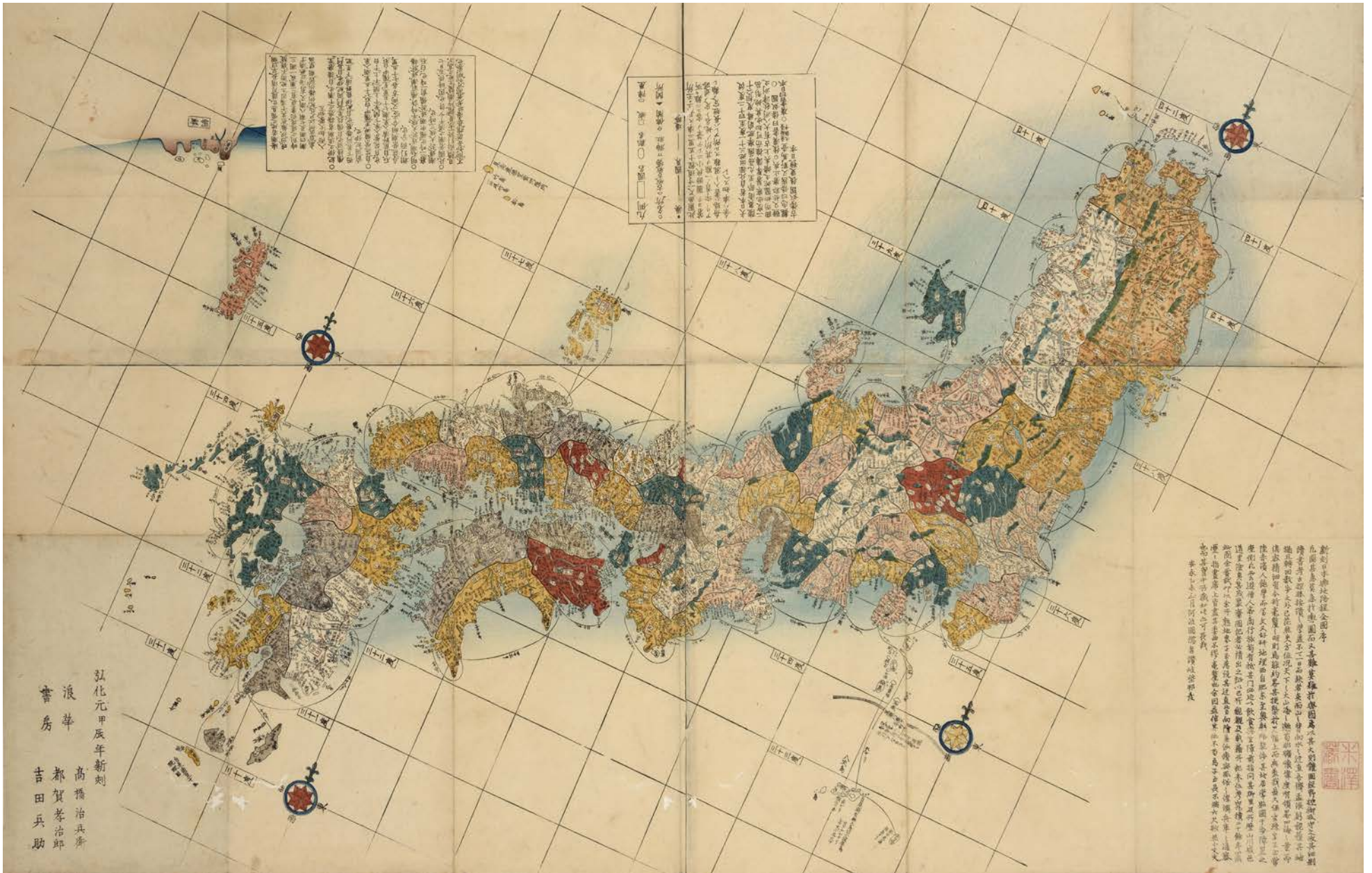
8.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33, 144.1×94.11, 관허4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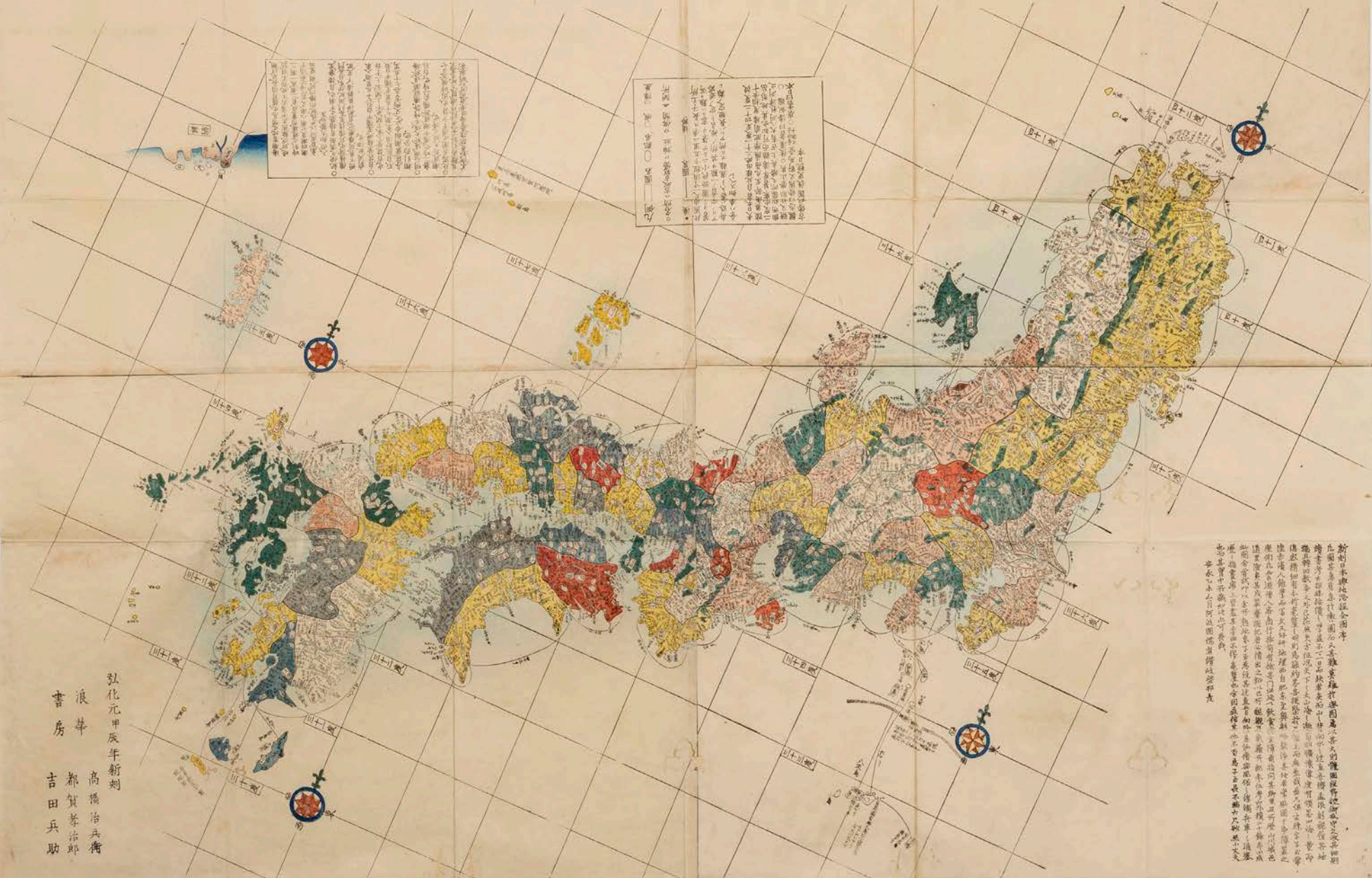
9.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840, 131×86, 관허5판)



10. 개정일본어지노정전도(1844, 98.4×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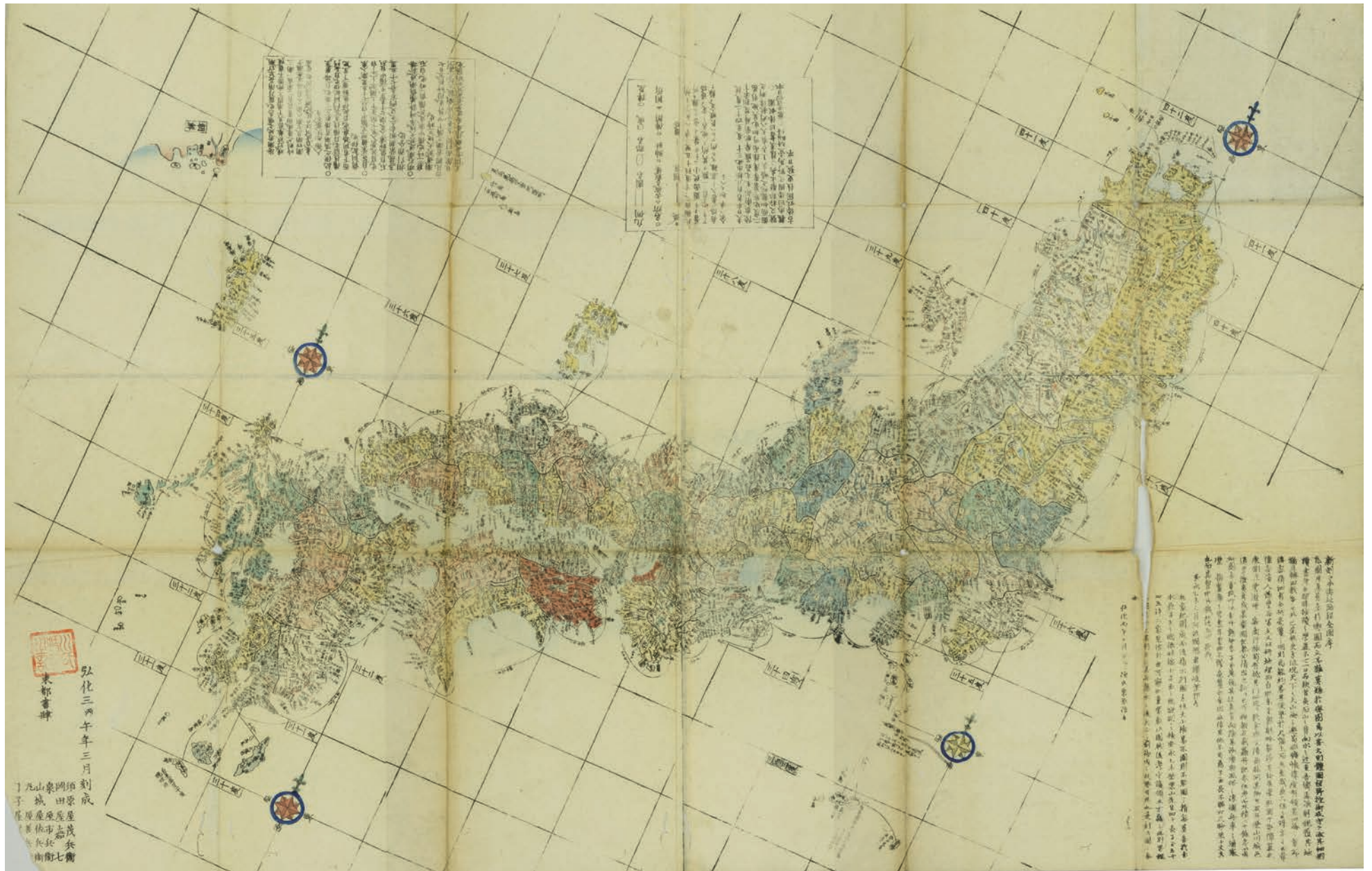
11.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4, 97.4×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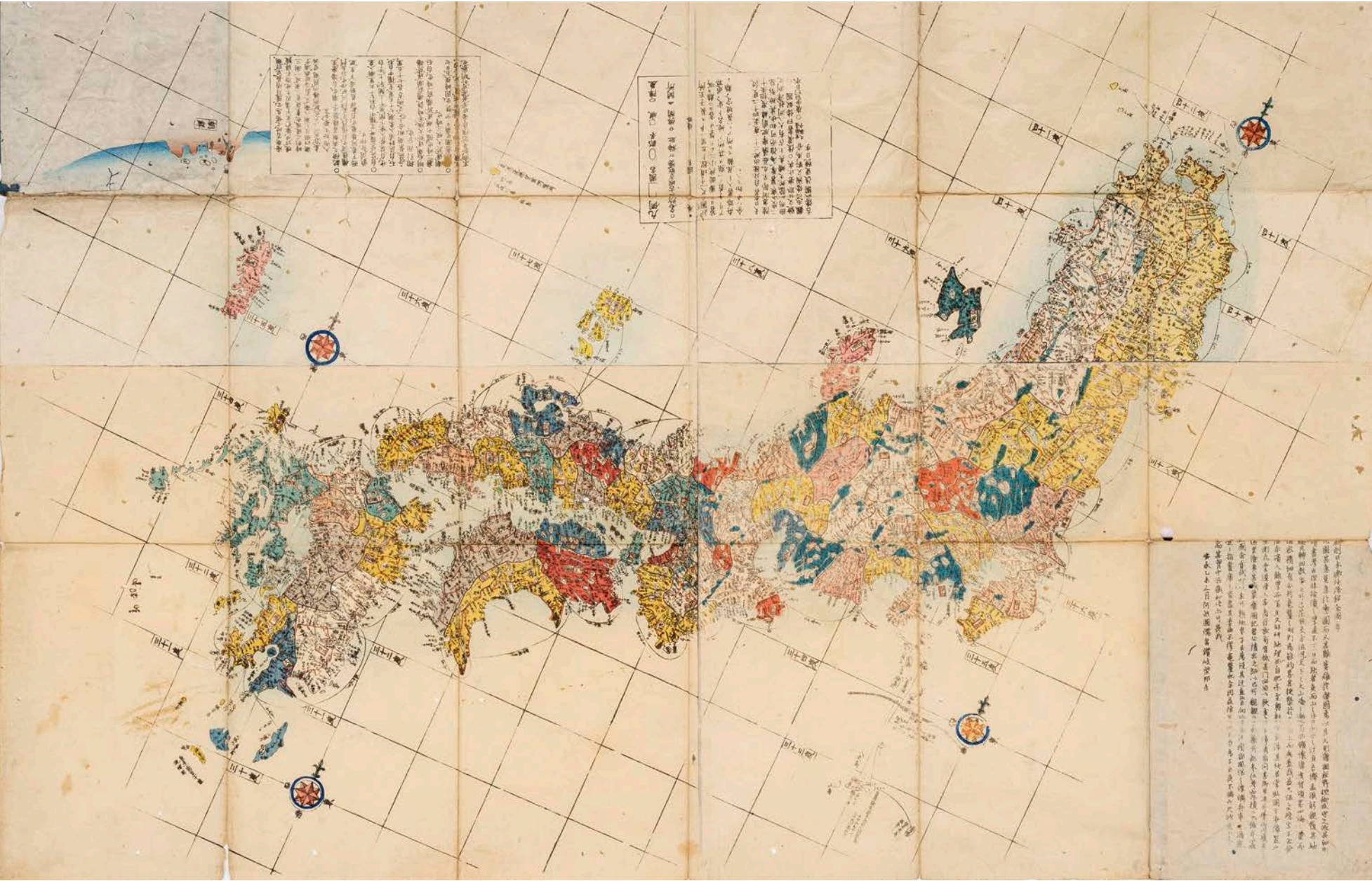
弘化元年辰年新刻
 浪華 高橋治兵衛
 書房 都賀孝治郎
 吉田兵助

新刻日本地理圖
 凡國其地... (The text in this block is small and partially illegible, but appears to be a preface or introduction to the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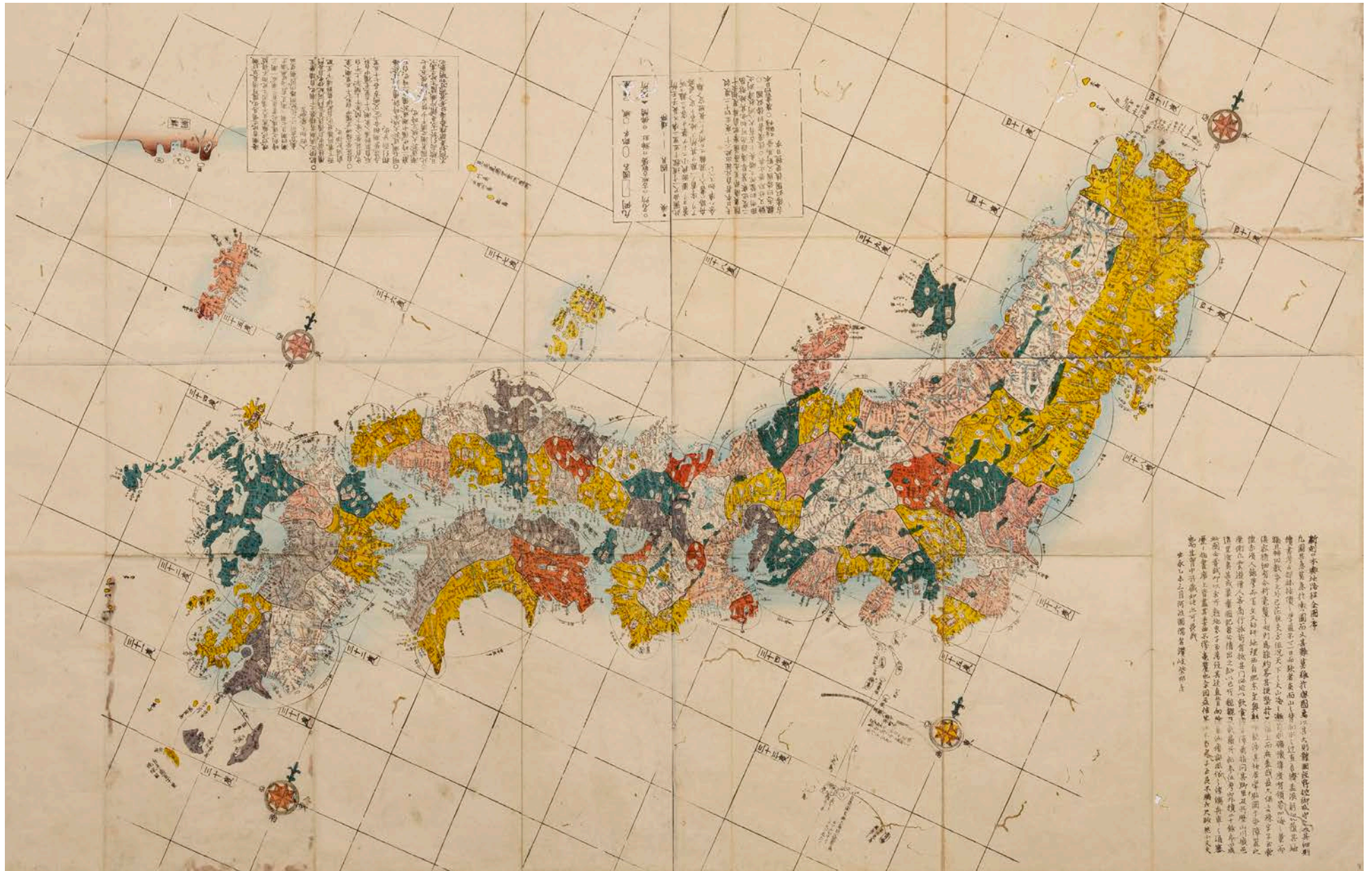
12.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6, 9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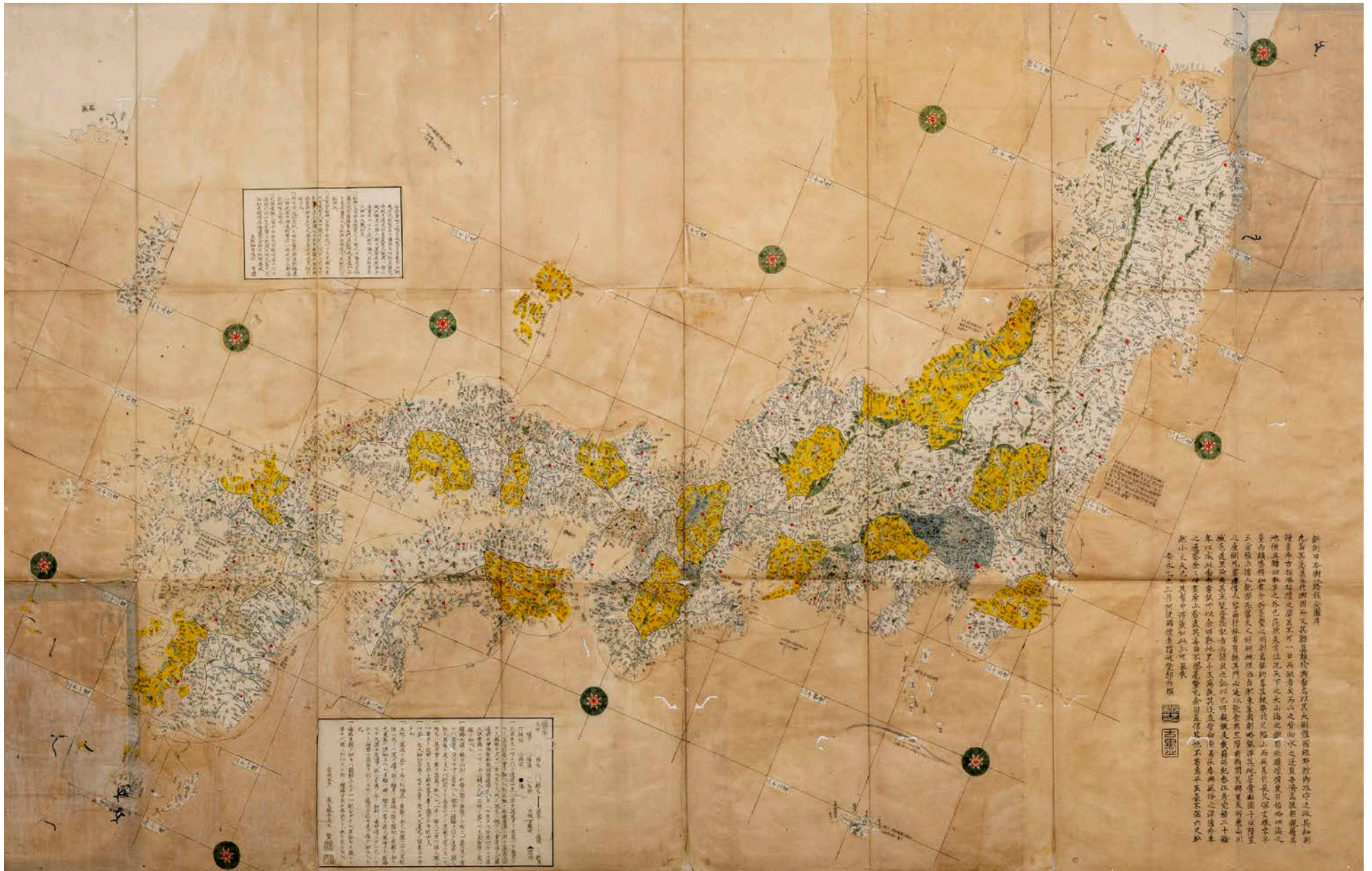
13.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연대미상, 97.7×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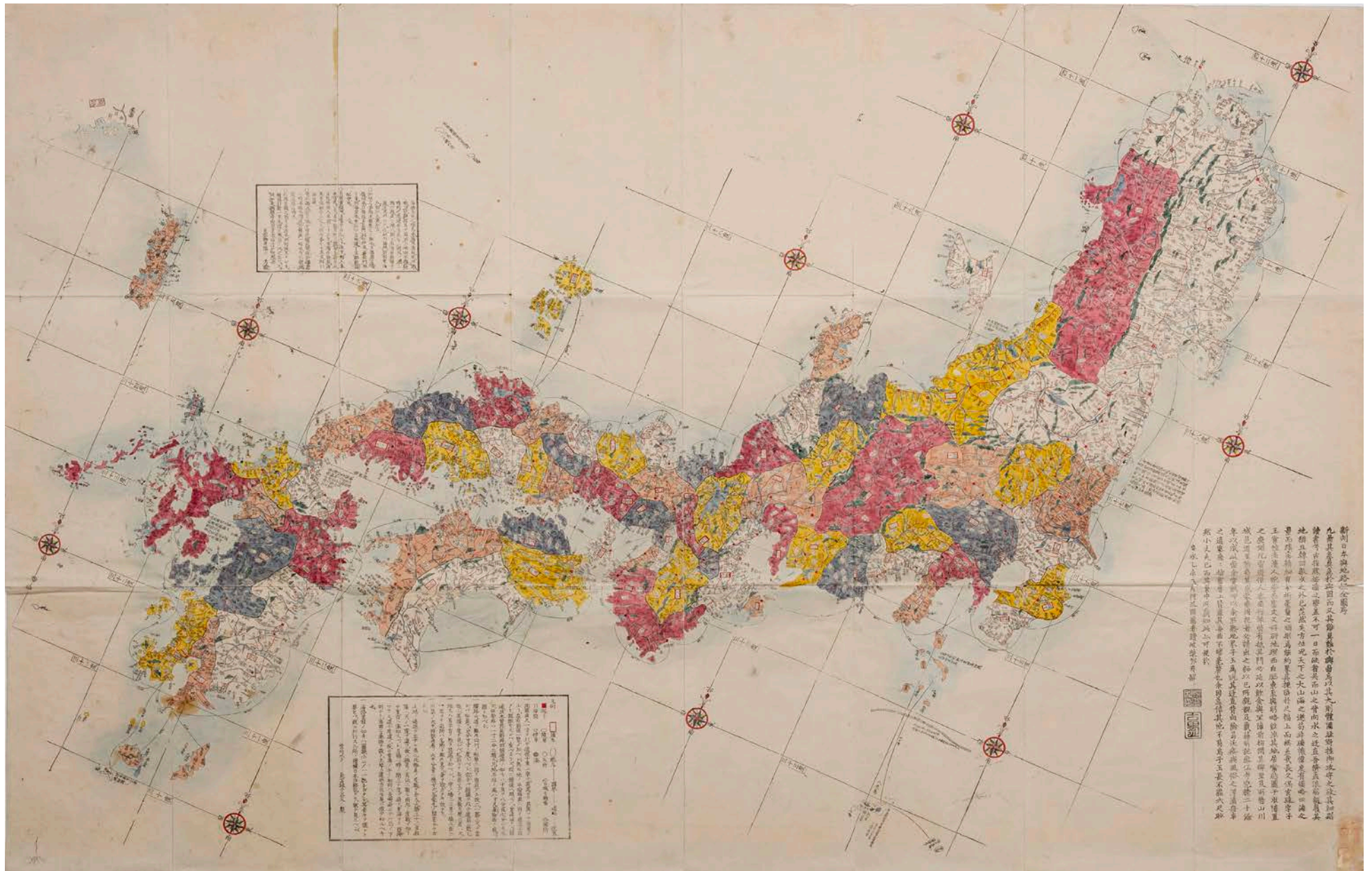
14.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연대미상, 99.9×66.7)



15.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연대미상, 142.2×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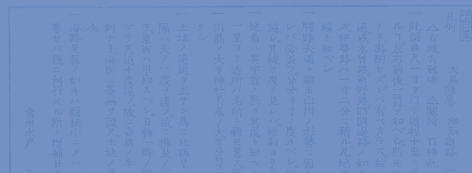
16.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연대미상, 130.1×86.1)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관련 연구 및 분석



1. 최선웅(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본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연구
2. 최재영(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 · 이상균(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배경과 독도영유권적 가치
3. 박경근(독도재단 연구원)
- 일본 외무성 10포인트에 제시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한 분석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본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연구

-독도재단 소장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중심으로-

최선웅(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요약 :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1779년에 일본의 지도제작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처음 제작한 일본 전국지도로, 당시까지 일본지도에 없었던 경위선이 채용되고 많은 지명이 표기되어 100여 년간 중판을 거듭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된 지도이다. 지도 좌측 상단에는 인접국인 조선의 남동쪽 해안과 울릉도·독도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생애와 업적,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 과정과 지도의 내용, 판본의 종류 등을 분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살펴 일본 측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주요어 :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울릉도, 독도, 오키섬, 경위선, 판본

I. 서론

일본의 전국지도 제작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가장 먼저가 백제에서 건너간 왕인(王仁) 박사의 후예인 행기(行基) 스님이 745년경 제작한 행기도(行基圖)¹⁾이다. 이 지도는 1687년 이시카와 토모노부(石川流宣)의 「본조도감강목(本朝圖鑑綱目)」이 나올 때까지 1천년 가까이 일본 전국지도의 원형이 되었고, 이후 ‘유선도(流宣圖)’라는 이름의 「본조도감강목」은 18세기 후반까지 1세기에 걸쳐 중판되었다.

류센도는 1779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가 간행되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종래의 지도와 달리 경위선(경선은 방각선임)이 그려진 정밀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메이지(明治)시대 초기까지 1세기에 걸쳐 수십 종에 달하는 많은 판본이 간행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일본 지도사(地圖史)에 불멸의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당시 일본의 관할지역뿐 만 아니라 조선의 남동쪽 해안과 울릉도·독도를 비롯해 유구왕국(琉球王國)과 예조지(蝦夷地)의 일부가 그려져 오늘날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지도사에서 「개정일본여지

* 이 논문은 한국지도학회지 제18권 제3호(2018)에 발표된 것을 전면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President, Korean Cartographic Lab. cswmap@naver.com)

1) 794년 행기(行基) 스님이 제작한 일본 전국지도로, 현존 가장 오래된 지도는 1305년에 제작된 것이다.

노정전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생애와 업적과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제작 계기부터 자료 수집과 분석, 원도 편집,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고찰하였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판본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독도재단 소장 지도와 일본에 소장된 각종 지도를 상호 비교 검토하고, 아키오카 다케지로(秋岡武次郎)의 『일본지도사(日本地圖史)』, 도시카즈 카이다(海田俊一)의 『유선도와 적수도(流宣圖と赤水圖)』, 메이지대학도서관(明治大學圖書館) 아시다문고(蘆田文庫)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판본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독도 영유권 근거에 대해서는 첫째 ‘경위선과 채색 유무에 따른 영역’, 둘째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의 해석에 따른 결과로 나누어 일본 측의 주장을 먼저 고찰한 뒤 우리 측의 주장을 서술하였다. 특히 ‘경위선과 채색 유무’에 대해서는 울릉도·독도 뿐 아니라 유구왕국과 예조지의 섬, 무인도, 유형지의 섬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모방판과 해적판에 그려진 경위선과 울릉도·독도가 일본 관할지역과 같이 채색된 이유에 대해서는 1836년에 발생한 ‘다케시마 사건(竹島事件)’을 비정해 추론하였다.

이 논문에서 일본식 한자는 모두 우리식 한자로 바꾸었고, 일본의 지명·인명 등 고유명사는 일본식 음독으로 표기하고 한자를 병기하였다.〔예; 다케시마(竹島)〕. 또한 지명과 인명 등은 원지음과 우리 음을 혼용하여 표기하고〔예; 오키섬(隱岐島),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문헌이나 지도명, 고유명사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식 음독으로 표기하였다〔예;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또한 연도는 서력과 함께 조선 및 일본 연호를 병기하였다〔예; 1402년(태종 2), 1779년(安永 8)〕.

II.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생애와 업적

1. 세키스이의 생애와 업적

나가쿠보 세키스이(이하 ‘세키스이’)는 1717년(享保 2) 히타치국(常陸國) 다가군(多珂郡) 아카하마촌(赤浜村)²⁾의 농가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11세 이전에 부모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농사일을 거들며 살았다. 세키스이는 농민으로 사는 것 보다는 학문에 뜻을 뒤 17세 때부터

농사를 짓는 한편 이웃마을 시모테즈나촌(下手綱村)의 의사이자 한학자인 스즈키 겐준(鈴木玄淳, 1703~1784)의 사숙에 다니며 논어와 한시 등을 배웠다.

23세에 결혼한 뒤부터 더욱 학문에 전념해, 25세 때는 미토 쇼코칸(水戸彰考館)³⁾의 나고에 난케이(名越南溪, 1699~1777) 밑에서 주자학(朱子學)·한시문(漢詩文)·천문지리(天文地理)를 공부하였다. 34세 때에는 『논어고훈(論語古訓)』과 『좌씨춘추(左氏春秋)』를 강의할 만큼 실력자가 되어 유학 외에도 천문서와 지리서를 두루 탐독하였는데, 특히 한학자 바바 노부다케(馬場信武)가 펴낸 『초학천문지남(初學天文指南)』과 이구치 쓰네노리(井口常範)가 펴낸 『운기역술천문도해(運氣曆術天文圖解)』를 정독하였다.⁴⁾

2) 현재의 茨城県 高萩市 赤浜

3) 미토번에서 대일본사(大日本史) 편찬을 위해 설치한 수사국(修史局)

4) 長久保光明, 1972, “長久保赤水の地圖編集とポルトラノ海圖利用について”, 『地圖』 Vol.10-3

1760년(宝曆 10) 44세 때에는 20여 일간 일본 동북지방의 하마가도(浜街道)를 북상해 이와키타이라(岩城平) - 소마무라(相馬中村) - 이와누마(岩沼) - 센다이(仙台) - 마쓰시마(松島) - 이시노마키(石巻) - 나루코(鳴子) - 데와(出羽) - 산잔(三山) - 사카타(酒田) - 니가타(新潟) - 아이즈(会津) - 코리야마(郡山) - 시라카와(白河) - 오다와라(太田原) - 바토(馬頭) - 히타치국의 다이고(常陸國の太子)를 거쳐 돌아 왔다. 여행하는 동안 높은 산을 목표삼아 자침기(磁針器)로 방향을 측정하고, 숙장(宿場)·마을·명소고적 등을 일일이 기록하였다. 뒤에 이 자료를 정리해 1792년(寛政 4)에 『동오기행(東奥紀行)』을 집필하였다.⁵⁾

1761년(宝曆 11)부터는 동료 시바타 헤이조(柴田平蔵)가 소장하고 있는 지도와 지리지 등을 참조해 개략도를 그려 지명과 거리·방위를 기입하며 일본 전국지도의 초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1767년(明和 4)에는 이소하라촌(磯原村)의 촌장 대리인 안남(安南, 베트남) 부근에서 표류한 선원을 인수하기 위해 미토번(水戸藩) 관리와 함께 나가사키(長崎)를 방문해 청국상관(淸國商館)과 네덜란드상관의 식사와 풍습 등을 기록하여 『나가사키행역일기(長崎行役日記)』와 『안남국표류기(安南漂流記)』 등을 저술하였다. 이듬해 1768년에는 미토번의 번사(藩士)가 되어 이름을 하루다카(玄珠), 자를 시교쿠(子玉)로 바꾸었고, 이 해에 일본지도 제작을 위한 시안도(試案圖)인 경위도가 기입된 「개제부상분리도(改製扶桑分里圖)」를 작도하였다.⁶⁾

1774년(安永 3)에는 교토 체재 중에 천문학 인문서인 『천상관규초(天象管闕鈔)』를 집필하고, 수입서인 『직방외기(職方外紀)』를 필사하기도 했다. 1775년에는 교토의 유학자인 시바노 리쓰잔(柴野栗山)에게 의뢰해 제작한 지도의 서문인 ‘신각일본여지노정전도서(新刻 日本輿地路程全図序)’를 받아 완성하였다. 1777년(安永 6)에는 미토번 학자 등의 추천으로 미토번의 제6대 번주인 도쿠가와 하루모리(徳川治保)⁷⁾의 시코(侍講)⁸⁾에 발탁되어 미토번 저택에 기거하면서 유학과 지리학·천문학 등을 가르쳤다. 1779년(安永 8)에는 오사카 서점에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발간해 이듬해 1780년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1785년(天明 5)에는 청나라 강희(康熙)연간에 제작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참조해 「대청광여도(大清廣輿圖)」를 완성하고, 이어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1602년에 제작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계통의 세계지도인 「개정지구만국전도(改正地球萬國全圖)」도 제작하였다.⁹⁾

1786년(天明 6)에는 쇼코칸의 편수(編修) 직명으로,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¹⁰⁾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한 『대일본사(大日本史)』의 「지리지」를 맡아 집필을 시작하였는데, 일본 68쿠니의 각 군촌(郡村)의 유래·명소고적 등의 지지를 수많은 자료를 열람해 요약하였다. 이때 세키스이는 지인이나 고향의 본가와도 소식을 끊고 편수에 전념하였는데, 현재 세키스이 자필의 『대일본사』 지리지 초고는 10여 책이 남아 있다.¹¹⁾

5) 長久保光明, 1969, “長久保赤水の日本地圖編集について”, 地圖 Vol.7 No.3

6) 長久保光明, 1969, 앞의 논문

7) 미토번(水戸藩)의 제6대 번주

8) 측근에서 학문을 강의하는 사람

9) 長久保赤水先生銅像建立實行委員會

10) 미토번(水戸藩) 제2대 번주

11) 長久保光明, 1969, 앞의 논문



〈도 1〉 세키스이가 73세 때 그린 자화상
(출처: 高萩市歴史民俗資料館所蔵)

1789년(寬政 1)에는 동양 최초의 역사지도첩인「당토역대주군연혁도(唐土歷代州郡沿革圖)」를 완성하였고, 역사부도의 원형인 「고금역대연혁지도(古今歷代沿革地圖)」도 편찬하였으며, 1790년(寬政 2) 74세 때는 「에조지도(蝦夷之圖)」완성하였다. 1791년(寬政 3)에는 관직을 사직하고,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재판을 발간하였으며, 1792년(寬政 4)에는 중국 하은주(夏殷周) 3대의 정전법(井田法)과 세법을 개략적으로 풀이한 『예기왕제지리도설(禮記王制地理圖說)』을 펴내기도 하였다. 세키스이는 82세 때인 1798년(寬政 10)에 귀향하여 1801년(享和 1) 7월 23일 8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¹²⁾

2.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주요 연보¹³⁾

1717년(享保 2) : 11월 6일, 현재의 이바라키현 남서부의 히다치노쿠니(常陸國) 다가군(多賀郡) 아카하마무라(赤浜村) 농가에서 태어남.

1726년(享保 8) : 9세 때 모친이 사망하고, 1년 뒤부터 계모 밑에서 생활.

1727년(享保 13) : 11세 때 부친 사망.

1730년(享保 15) : 한학자 스즈키 겐준(鈴木幻淳)의 사숙에서 한학(漢學) 공부.

1738년(寬保 1) : 미토번(水戸藩)의 유학자 나고에 난케이(名越南溪)에게 사사.

1739년(元文 3) : 23세 때 사촌 누이동생(從妹)과 결혼

1753년(宝曆 3) : 학우(松岡七友)와 함께 미토번으로부터 표창받음.

1760년(宝曆 10) : 44세 때 동북지방(東北地方)을 20여 일간 여행.

1767년(明和 4) : 51세 때 미토번의 명으로 나가사키(長崎)에 파견, 『나가사키행역일기(長崎行役日記)』, 『안남표류기(安南漂流記)』 저술.

1768년(明和 5) : 학문의 공으로 미토번의 번사(藩士)가 되어 이름을 하루다카(玄珠), 자를 시교쿠(子玉)로 바꿈. 이 해에 위도가 기입된 「개정일본부상분견도(改正日本扶桑分見圖)」제작.

1773년(安永 2) : 『추요담(芻蕘談)』 저술.

1774년(安永 3) : 지도를 제작해 교토(京都)와 오사카(大阪) 방문. 『천상관규초(天象管闕鈔)』 집필, 수입서 『직방외기(職方外紀)』 베껴 씀.

1775년(安永 4) : 시바노 리쓰잔(柴野栗山)으로부터 서문인 신각일본여지노정전도서(新刻日本輿地路程全図序)를 넣어 지도를 완성.

1777년(安永 6) : 미토번 주의 시강(侍講)이 됨.

1778년(安永 7) : 「농민질고(農民疾苦)」를 작성하여 번주에게 제출.

1779년(安永 8) : 63세 때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초판 오사카의 아사노야헤(淺野弥兵衛) 서점에서 발행.

12) 平凡社 編, 1964, 世界大百科事典 第2版, 平凡社

13) 長久保赤水 顯彰會(<http://nagakubosekisui.org/>)

1783년(天明 3) : 「대청광여도(大清廣輿圖)」완성

1785년(天明 5) : 69세 때 세계지도인 「개정지구만국전도(改正地球萬國全圖)」 제작.

1786년(天明 6) : 70세 때 미토번(水戸藩)의 특명으로 『대일본사(大日本史』의 지리지(地理志) 편찬 시작.

1788년(天明 8) : 미토번의 군용마를 사육하던 대능목장(大能牧場)을 진언해 폐쇄.

1789년(寬政 1) : 중국 역대 연혁지도인 「당토역대주군연혁도(唐土歷代州郡沿革圖)」완성.역사부도의 원형인 「고금역대연혁지도(古今歷代沿革地圖)」편찬.

1790년(寬政 2) : 「에조지도(蝦夷之圖)」 제작

1791년(寬政 3) : 관직에서 물러남.「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재판 발행. 『오상도설(五常圖說)』 간행.

1792년(寬政 4) : 『예기왕제지리도설(禮記王制地理圖說)』 완성. 『동오기행(東輿紀行)』간행.

1797년(寬政 9) : 81세 때 귀향. 화가 다치하라 교쇼(立原杏所)한테 초상화를 그림.

1801년(享和 1) : 7월 23일, 85세를 일기로 아카하마무라에서 사망.

1911년(明治 44) : 종4위(從四位)에 추증됨.

Ⅲ.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제작

1.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편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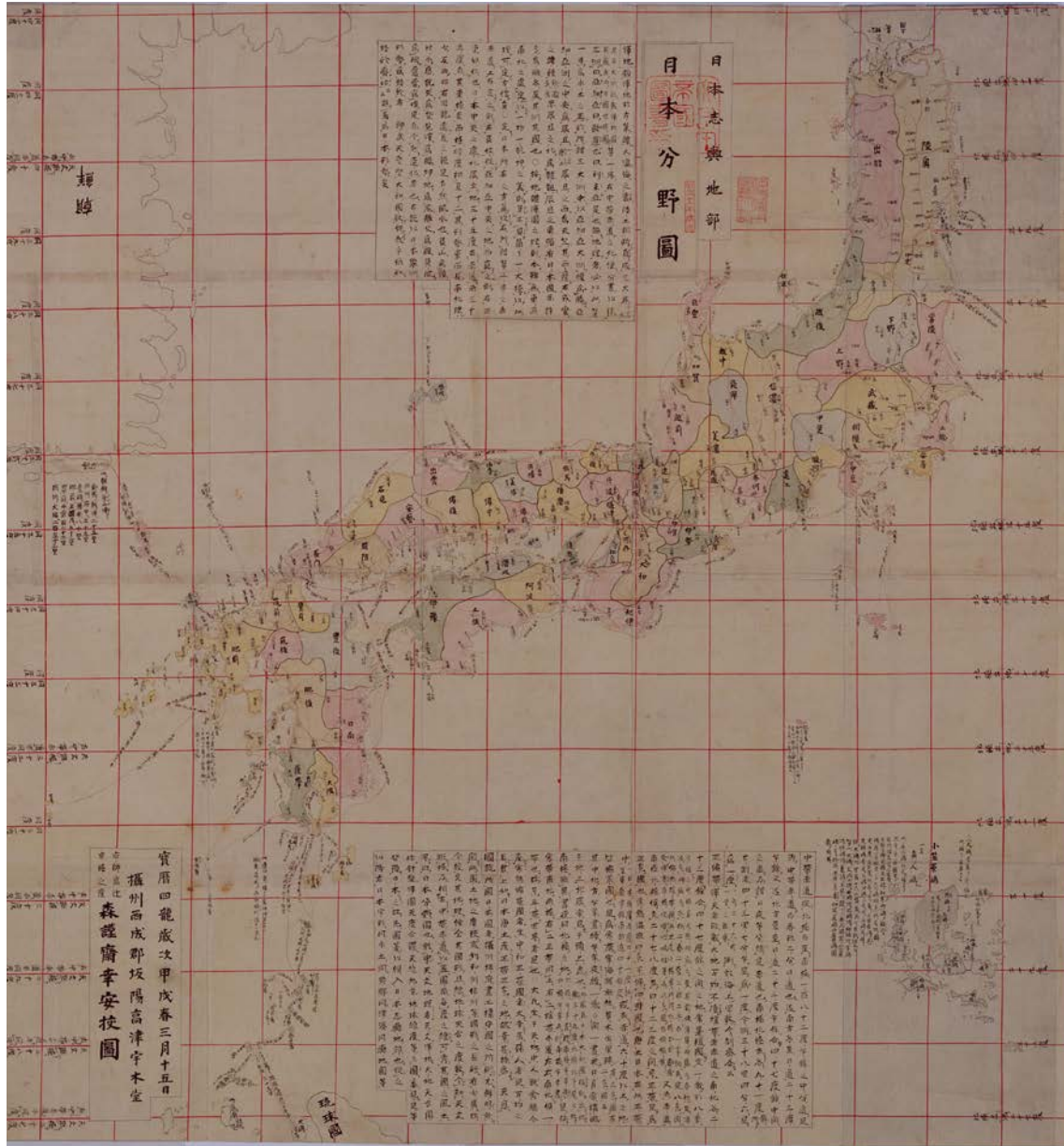
038

세케스이는 천문서과 지리서를 탐독하면서 지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에는 이시카와 토모노부(石川流宣)가 제작한「본조도감강목」나 「일본해산조륙도(日本海山潮陸圖)」와 같은 일본 전국지도 등이 있었으나, 세키스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761년(宝曆 11)부터 당시 발행된 지도와 지리지·천문서 등을 참고하는 한편 마쓰오카 7우(松岡七友)¹⁴⁾의 한 사람인 시바타 헤이조(柴田平蔵)로부터 당시 발행된 일본지도를 빌려 보거나, 히다치국(常陸國)의 쇼코칸에 소장된 수많은 지도와 지리서를 열람하였다. 이밖에 청나라 유예(游藝)가 편찬한 『천경혹간(天經或問)』과 한학자 바바 노부다케(馬場信武, ?~1715)가 1706년(宝永 3)에 편찬한 『초학천문지남초(初學天文指南鈔)』와 같은 천문서를 읽는 한편 교토의 지도제작자인 모리 코안(森幸安, 1701~?)이 1754년(宝曆 4)에 제작한 「일본분야도(日本分野圖)」를 통해 경위도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¹⁵⁾

세키스이의 일본지도 제작에 결정적 계기가 된 모리 코안의 「일본분야도」는 위선과 경선(방격선)이 기입되고 위도가 표기된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일본 68개 행정구역의 경계선과 쿠니명(國名)이 표기되어 있고, 붉은 선으로 도로와 항로가 그려져 있다. 또 지도상에는 적색으로 종횡의 방안선이 그려져 있는데, 위선은 27°에서 42°까지 1° 간격으로 그려지고, 경선은 위선에 직각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그려져 있다.

14) 중국의 竹林七賢을 본 딴 스키 켄준을 비롯한 마쓰오카(松岡) 지역의 일곱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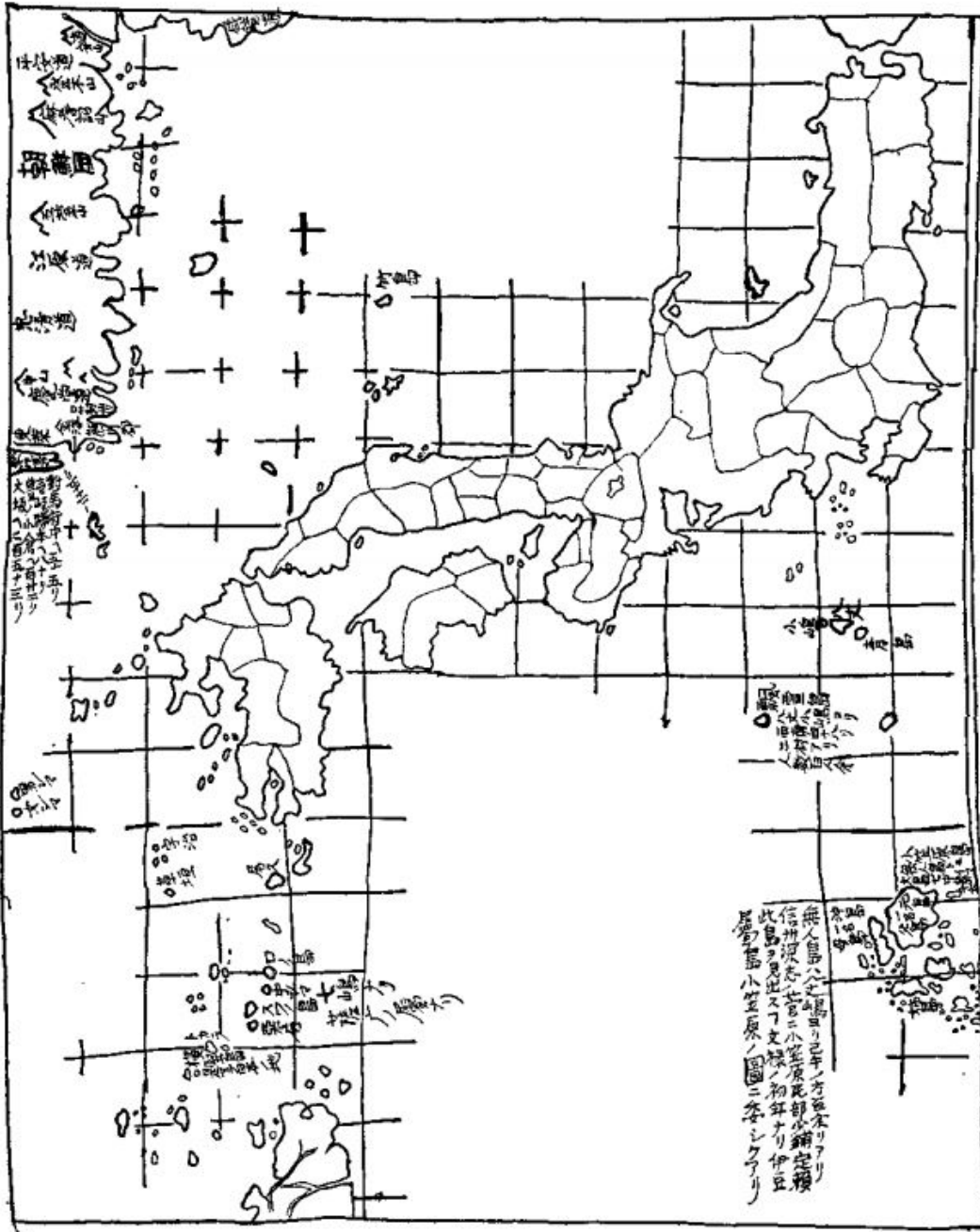
15) 中村拓, 1974, 『日本古地圖大成』, 講談社 pp.29



(도 2) 모리 코안(森幸安)의 일본분야도(출처: 日本文書館)

지도 좌측 상단에는 조선의 해안선이 그려져 있으나, 부산포(釜山浦)는 섬으로 표현되고, 일본의 오키섬(隱岐島) 북쪽, 위도 38°선에는 울릉도인 다케시마(竹島)가 그려져 있다. 일본 땅은 행정구역 별로 채색이 되어 있으나, 조선 땅과 다케시마에는 채색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지도에 울릉도가 그려진 것은 1692년(元祿 5)에서 1696년(元祿 9) 사이에 조선과 일본 간에 발생한 울릉도 영유권 문제인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¹⁶⁾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6)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安龍福) 일행이 일본인들에 의해 연행되면서 발생한 울릉도 소속에 관한 분쟁(울릉도 정계)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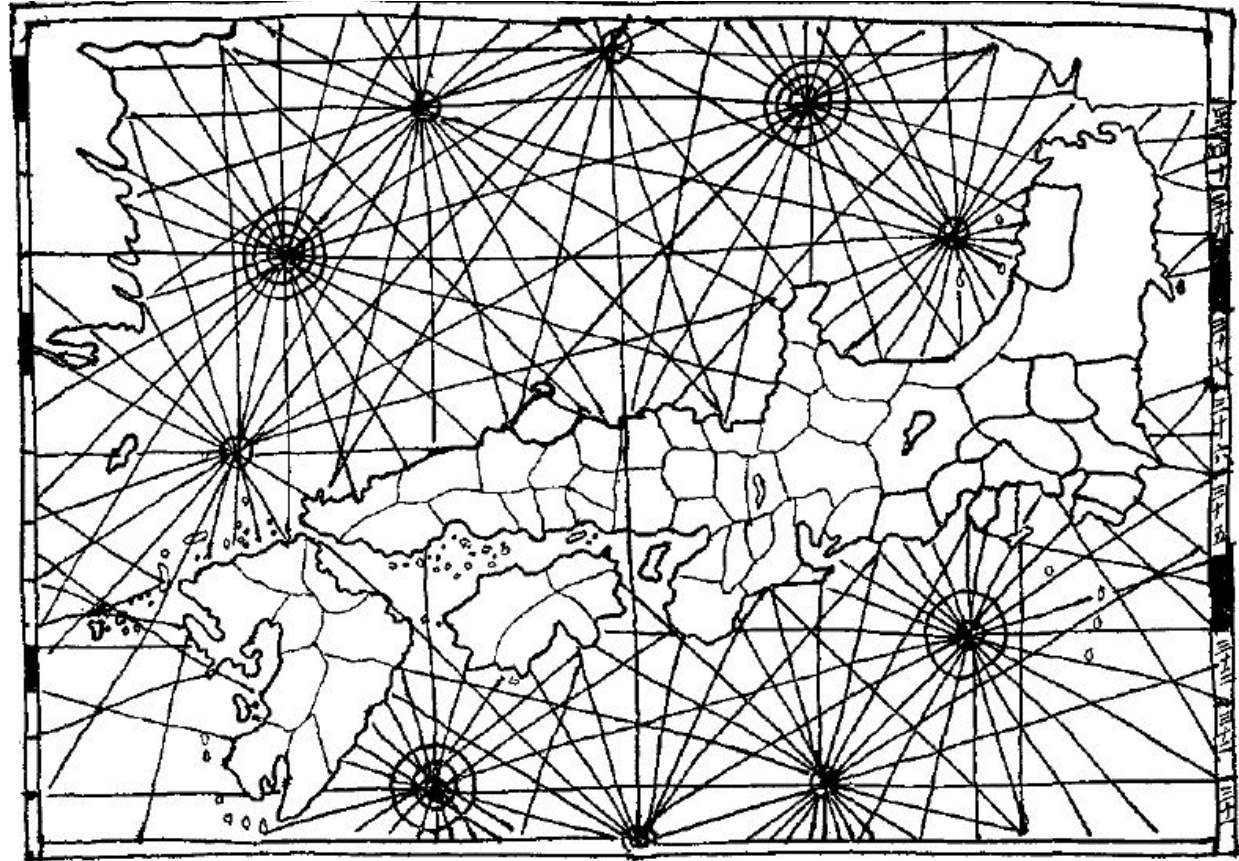


〈도 3〉 세키스이가 모사한 다치바나모리국지도(출처: 高萩市 長久保厚)

세키스이가 모사한 지도 가운데 「다치바나모리국 지도(橘守國圖)」¹⁷⁾와 모리 코안의 「일본분야도」를 비교해 보면 경위선의 전개와 일본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지도 좌측 상단의 조선의 형태도 거의 같다. 이것으로 판단해 세키스이는 모리 코안의 「일본분야도」나 또는 그 지도를 저본으로 한 것을 모사해 ‘橘守國圖’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하튼 세키스이가 경위선 지도를 발상하게 된 것은 모리 코안의 「일본분야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17) 지도 뒷면에 세키스이가 필적으로 ‘橘守國圖’라고 기입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 원래는 橘守國에 소장하고 있는 일본지도를 말함.

18) 上杉和央, 2010, “地圖史における森幸安の再布置”, 歴史地理學 52-1(248)



〈도 4〉 세키스이가 작도한 포르톨라노 해도식 일본지도(출처: 高萩市 長久保厚)

세키스이가 유럽으로부터 전해진 포르톨라노 해도(Portolano chart)식 일본지도를 작도한 것은 나침반에 의한 항해에 필수적인 방위반(方位盤, compass rose)을 지도에 그려 넣기 위함이었다. 지도는 해안선과 쿠니계(國界)만 그려져 있는 소략한 것으로, 조선은 「다치바나모리쿠니도」와 같은 형태로 그려져 있다. 지도 오른쪽 테두리에는 31°부터 41°까지 위도가 기입되고, 방위반은 대형 4개, 소형 6개가 그려져 있는데, 방위반에서 뻗어나간 항정선(航程線)은 22개 내지 24개가 사방으로 교차되어 있다. 이밖에 세키스이가 작도한 것으로 알려진 포르톨라노 해도식 일본지도가 또 있는데, 이 지도의 형태는 앞의 지도와 유사하나 쿠니명(國名)과 죠가정(城下町)¹⁹⁾의 기호가 그려진 것이 다르다.²⁰⁾

19) 일본 領主의 居城을 중심으로 성립된 도시인 죠가마치(城下町).

20) 長久保光明, 1972, “長久保赤水の地圖編集とポルトラノ海圖利用について”, 『地圖』 Vol.10 No.3 日本國際地圖學會



〈도 5〉 세키스이가 작도한 일본약도(출처: 高萩市 長久保厚)

세키스이는 「다치바나모리쿠니도」에 이어 모리 코안의 「일본분야도」와 같이 위도가 표기된 「일본약도(日本略圖)」를 작도했는데, 위도는 천문역학자인 시부카와 슌카이(渋川春海, 1639~1715)가 1684년(貞享 1)에 완성한 『정형력(貞享曆, 전7권)』²¹⁾ 1권에 기록된 위도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슌카이의 ‘북극성출지도수(北極星出地度數)에 따르면 일본 각지의 위도는 쓰가루(津軽) 42°, 닛코(日光) 37°, 에도(江戸) 36°, 쿠마노(熊野) 34°, 교토(京都) 35°, 고치(高知) 33°, 나가사키(長崎) 32°, 가고시마(鹿児島) 31°, 다이슈(対州) 36° 등이다. 「일본약도」에는 위선은 그리지 않고 테두리에 위도만 기입했는데, 동쪽은 38°에서 42°, 서쪽은 29°에서 42°까지 이고, 여백에는 방위반 5개가 그려져 있다.²²⁾

「일본약도」는 가로세로 크기가 64cm나 되는 제법 큰 지도로, 모리 코안의 「일본분야도」와는 해안선의 형태나, 행정구역 경계, 조선의 해안선 등이 전혀 다르다. 지명은 일본 동북지방에만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안도로 추정된다. 지도 테두리 사변에는 방위를 문자로 표기했고, 지도 우측 하단에는 슌카이의 ‘북극성출지도수’에 의한 일본 각지의 위도와 함께 “일본의 폭은 동서 12°, 남북 3° 혹은 2°1', 대개 40리 정도,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에 더하면 균일해져 길이 600리, 폭 100리이다(日本國經度東西12度 南北3度或は2度1度 大都40里程 絶長補補短而均量之長六百里 横百里也)”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 글에서 경도(經度)의 사전적 의미는 ‘經度’가 아니고 ‘직경이나 거리’라는 뜻이다.²³⁾

21) 일본 독자적으로 사용한 太陰太陽曆의 曆法書.

22) 長久保光明, 1969, “長久保赤水の日本地圖編集について”, 『地圖』 Vol. 7 No. 3 日本國際地圖學會

23) 長久保光明, 1992, 地圖史通論, 暁印書館 pp. 274



〈도 6〉 세키스이가 작도한 개제부상분리도(출처: 高萩市歴史民俗博物館)

세키스이는 지도제작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본 각지의 지명을 고증하는 한편 해안선으로 약도를 작도하고, 당시의 관찬지도인 「국회도(國繪圖)」²⁴⁾를 축소한 뒤 이를 접합·편집해 일본 전체의 윤곽을 작도해 나갔는데, 1768년(明和 5)에 작도한「개제부상분리도」가 그 성과물이다. 여기에서 '부상(扶桑)'은 일본의 옛 명칭이다. 지도상에는 온통 흰색이 칠해져 있는데, 이것은 해안선의 드나듦, 육로의 지명, 산지와 하천 등을 수정하기 위해 백색 호분(胡粉)을 칠하고 가필한 흔적이다. 육로는 『도정척도절용집(道程尺度節用集)』이나 『무감(武鑑)』²⁵⁾ 등을 참고해 지명과 거리를 기입했고, 군명이나 에도(江戸)로부터의 거리는 『왜절용실개대(倭節用悉皆袋)』를 참고하였다.²⁶⁾

24) 徳川幕府가 통치 목적으로 각 쿠니에 명해 1605년(慶長 10)부터 제작한 쿠니 단위의 行政地圖.

25) 에도시대에 출판된 大名과 幕府의 役人名·石高·俸給·家紋 등을 기록한 연감형식의 紳士錄.

26) 長久保光明, 1969, 앞의 논문

현재 일본 학계에서도 이 「개정일본부상분리도」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제작하기 위한 원도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앞서 작도한 「일본약도」와는 다르게 종이 크기에 맞춰 당시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관할지역을 가능한 크게 나타내기 위해 지도의 위선을 동쪽으로 20°가량 틀어 그렸다. 그러다 보니 모리 코안의 「일본분야도」에 그려진 조선의 해안선이 일부만 나타나고, 유구국(琉球國)과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는 잘려나가고 말았다. 이밖에 지도 우측 하단에 세로 방격선에 평행하게 붙어 있는 첨지(籤紙)는 지도의 제목과 범례에 대한 해설이고, 끝에는 미토(水戸) 향사(郷士) ‘赤水長玄珠子玉’이라고 적혀 있다.

2.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제작과 지도의 내용

세키스이는 정확한 일본지도 제작을 위해 수많은 문헌자료와 각종 지도를 검토·분석하고 그것도 모자라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시안도를 작도하면서 지도 편집을 구체화시켜 나갔으며, 더욱 일본지도의 수정은 당시 발행된 일본총도(日本總圖)나 각 행정구역의 군분지도(郡分地圖), 도중안내도(道中案内圖) 등을 참고하였다. 세키스이의 현존 자료 가운데 자필로 ‘대일본여지도초고(大日本輿地圖初稿)’라고 쓴 지도는 작도한 연도가 없고 위선도 그려지지 않았지만, 초고로 보이는 지도이다. 이밖에 발행연도, 발행처, 범례 등은 없으나 완성 초판본과 비교해도 지도의 형태가 유사한 「일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가 있는데, 경위선은 그려져 있지 않으나, 방위반 7개가 그려져 있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초판본은 이러한 선행 지도를 참조해 제작하였다.²⁷⁾

세키스이는 1774년(安永 3)에 완성한 지도의 원도를 지참하고 교토(京都)를 방문해 유학자인 시바노 리쓰잔(柴野栗山, 1736~1807)에게 청을 넣어 이듬해 1775년(安永 4) 3월에 지도의 서문을 받아 지도를 완성하여 오사카에서 출판허가를 출원해 1778년(安永 7) 2월에 허가를 득하였다. 당시 일본은 출판물을 후교쇼(奉行所)²⁸⁾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출판자 이름과 초고, 원서(願書)를 년고지(年行事)²⁹⁾에 보내 마치도쇼(町年寄)³⁰⁾에 출원하면 봉행서(奉行書)를 가쿠문쇼(學問所)³¹⁾에 제출한다. 원서에는 목판을 조각하는 호리시(彫師)와 인쇄하는 스리시(摺師), 발행부수(300~500부) 등도 기입해야 한다.³²⁾

27) 長久保光明, 1992, 앞의 책 pp.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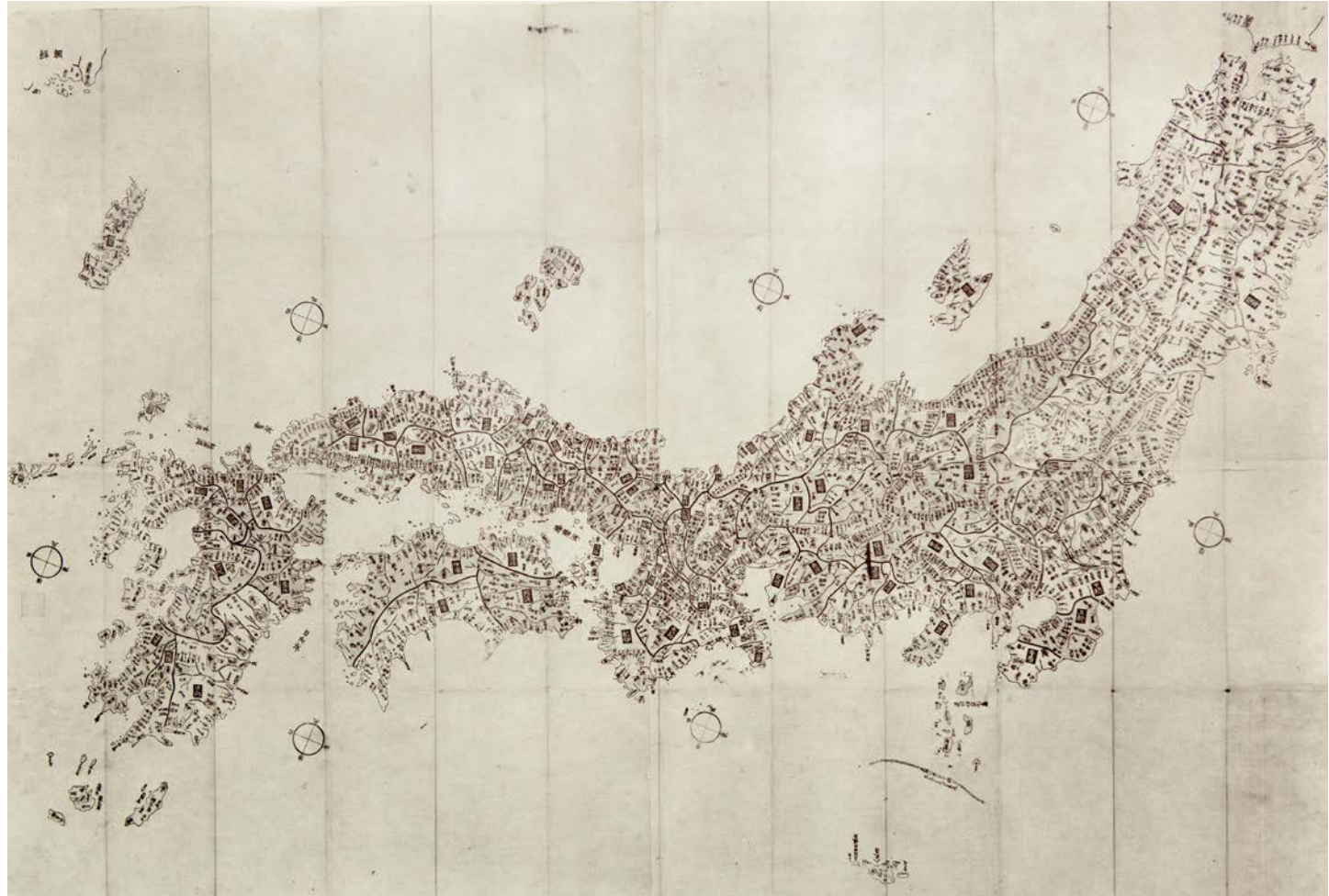
28) 奉行은 에도시대 武家の 직명으로, 奉行所는 직무를 보는 役所이다.

29) 1년 간 근무하는 役人.

30) 에도시대 町役人の 호칭.

31) 學問을 담당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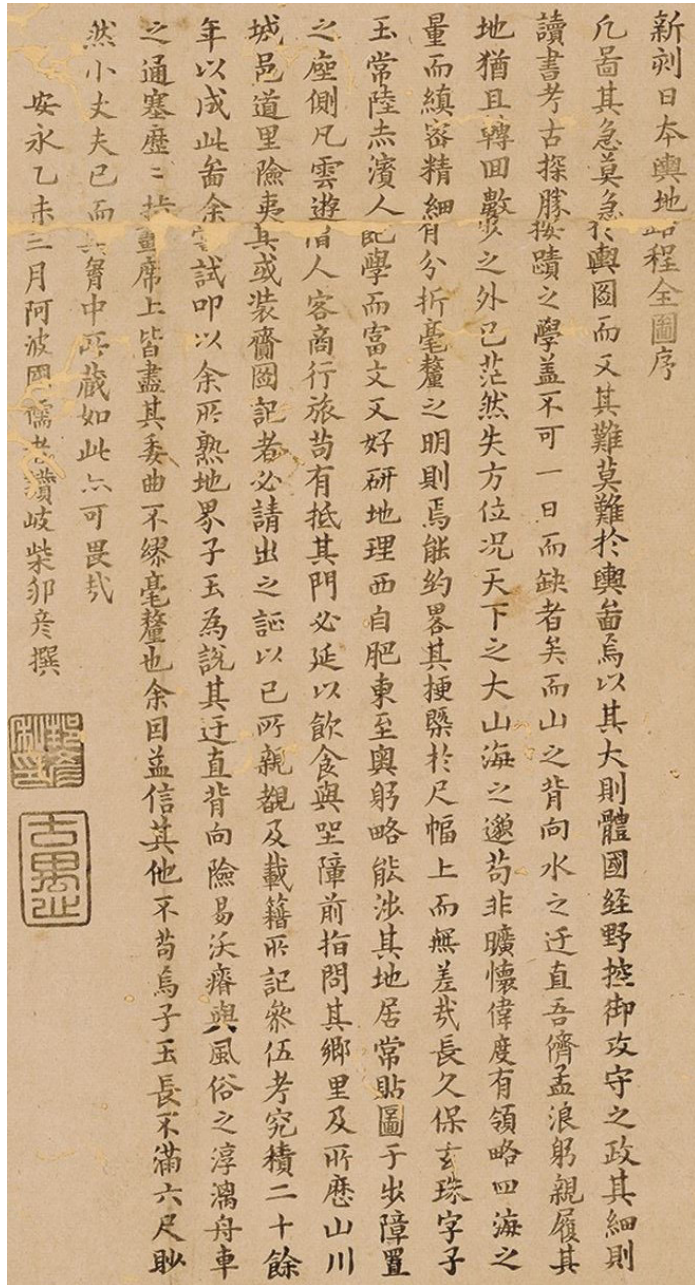
32) 長久保光明, 1969, “長久保赤水の日本地圖編集について”, 『地圖』 Vol.7 No.3 日本國際地圖學會



〈도 7〉 秋岡武次郎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원도로 추정한 일본여지도정전도

지도는 1779년(安永 8) 봄에 오사카(浪華)의 조각가 무라카미큐베에(村上九兵衛)가 판각한 뒤 발행자 아사노야헤에(淺野弥兵衛)가 인쇄해 미려한 채색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초판이 발행되었다. 1779년에 간행된 초판은 4종류나 있어 인쇄를 거듭할 때 수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791년(寛政 3) 재판까지는 목판 채색의 지도가 간행되었으나, 1811년(文化 8) 3판부터는 갓바스리(合羽刷)에 의한 방법으로 8~10색까지 다색으로 인쇄되기 시작하였다.

‘갓바스리’란 공판화(孔版畫)의 일종으로, 분을 뜬 형지(型紙)에 무늬를 박아서 염색한 가다조메(型染め) 염색기법으로 예전부터 일본에 전해오



〈圖 8〉 시바노 리쓰잔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서문

는 기술이다. 염색 이외에도 풍속화를 색도 인쇄한 니시키에(錦繪) 등의 작품에도 이용되었다. 갓바스리는 얇은 미농지 5매 정도를 감물(柿渋)³³⁾로 붙여 합지(合紙)한 내수성이 강한 삼지(洪紙)로 본을 뜬 종이(型紙)로 사용하는데, 인쇄할 용지위에 색을 넣기 위한 부분만 잘라낸 본 뜬 종이를 맞춰 놓고 그 위에 쇠모(刷毛)로 원하는 채료(彩料)를 인쇄하면 본 뜬 종이의 잘라낸 부분이 그대로 용지에 전사되는 방식이다.³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초판은 1779년에 발행되었으나, 판매는 1780년부터 시작되었다. 지도의 범위는 에조지(蝦夷地, 현재의 홋카이도)와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유구왕국(琉球王國) 등지를 제외한 당시 일본의 관할지역을 표현하고 있으며, 조선의 남동부와 울릉도·독도가 그려지고, 유구의 일부 섬과 에조지의 일부 섬이 묘사되어 있다. 지도의 방위는 북북동으로 약 20도 틀어져 있고, 지도에는 위도 1° 간격의 위선이 교토를 지나는 35° 선을 기준으로 31°에서부터 41°까지 그려지고, 위선에 직각으로 위선의 간격과 동일하게 그어진 경선은 실제 경선이 아닌 방격선(方格線)이다. 이 지도를 투영도법으로 가정해 본다면 원도투영(圓壘投影)³⁵⁾의 일종인 방안도법(方眼圖法)으로 경위선이 묘사된 최초의 일본지도로 평가된다. 축척은 10리(里)를 1치(寸)로 계산하면 1:1,296,000이 된다.³⁶⁾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해안선은 측량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해안선의 형태가 현대의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밀하게 묘사되었고, 해안을 따라 경위선이 교차하는 곳에는 ‘東西南北’ 방위가 기입된 12개의 방위반이 그려져 있다. 지형은 하천과 호수·산으로 표현되었는데, 산은 한 개 또는 연결된 봉분(封墳) 모양으로 그리고 녹색으로 채색하였다. 지도 우측 하단에는 시바노 리쓰잔의 서문이 적혀 있고, 좌측 하단 좌측에는 세키스이가 작성한 지도에 대한 범례가 실려 있다. 또 지도 하단 좌측 끝에는 발행연도와 함께 조각가 이름, 발행소 등의 판권(版權)이 기재되어 있다. 서문에는 “20여년이 걸려 지도를 완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지도제작을 완성한 1774년(安永 4)을 역산하면 1754년(宝曆 3)경이 된다. 지도의 서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 털 익은 감의 즙액을 발효 숙성한 액체로, 여러 용도로 쓰이는 일본고유의 재료.

34) 矢崎いづみ, 2006 “合羽摺の技術・表現方法の應用に關する研究”, 日本デザイン学会

35) 등간격의 평행직선의 경선에 위선이 직교하는 方眼형태로 표현되는 지도투영법의 총칭으로 圓柱 投影이라고도 함.

36) 小川泉, 1966, 『地圖編集および製圖』, 山海堂, pp.23

“모든 도서 가운데 요긴하기가 지도만한 것이 없고, 또한 어렵기가 지도만한 것이 없다. 그것으로 크게는 나라의 틀을 세우고 들판의 경계를 정하고, 공수의 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자세하게는 책을 읽고 옛 것을 연구하며 승지를 찾고 유적을 살펴 배울 수 있으니, 이 모두가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된다. 산의 형세와 물의 흐름이 한데 어울려 방향을 종잡을 수 없으니, 그곳을 지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빙빙 돌다가 몇 걸음 가지 않아 어이없이 방향을 잃는데 하물며 천하가 넓고 산과 바다가 아득하니 진실로 넓은 도량이 아니었다면 세상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치밀하고 정밀하여 작은 차이도 분석해 밝혀 요약을 잘 하였으니, 한 자 폭의 지도상에 요점만 간추렸는데도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나가쿠보 하루 다카는 자가 시교쿠이고 히타치의 아카하마 사람으로, 학식이 풍부하고 문장이 뛰어나며 또한 지리 연구를 좋아해 서쪽 구마모토에서 동쪽 동북 지방에 이르기까지 직접 다녔다. 그 지역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지도 초고를 지니고 다녔기 때문인데, 길에 장막을 쳐 놓고 떠돌아다니는 스님과 상인, 나그네들이 그 앞에 이르면 반드시 음식을 내어 함께 앉아 그들의 고향과 산천, 읍성을 지나올 때 이정과 지형의 험난함과 평탄함을 물어 지도 초고에 기입하였다. 그들이 기록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부탁해 그것을 놓고 자신이 직접 본 것과 기록한 것을 비교해 자신과 그들의 것을 함께 고증하고 연구해 20여년 걸려 이 지도를 완성하였다. 내가 잘 아는 곳을 시험 삼아 물었더니 시교쿠는 그곳의 물 구비와 산의 형세, 험난함과 평탄함, 비옥함과 척박함, 풍속의 후함과 박함, 배와 수레가 다닐 수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일일이 지도를 보며 설명해 주었는데, 모든 것이 자세하고 다름이 없었다. 나는 이 때문에 더욱 믿게 되었으니 나머지 것도 어찌 진실하지 않겠는가, 시교쿠의 키는 6척도 되지 않은 작은 사람이지만 그의 가슴속에 품은 것이 이와 같으니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안영을미(安永乙未, 1775년) 3월 아와노국(阿波國) 유자 사누키(讃岐) 시바 쿠니히코(柴邦彦) 찬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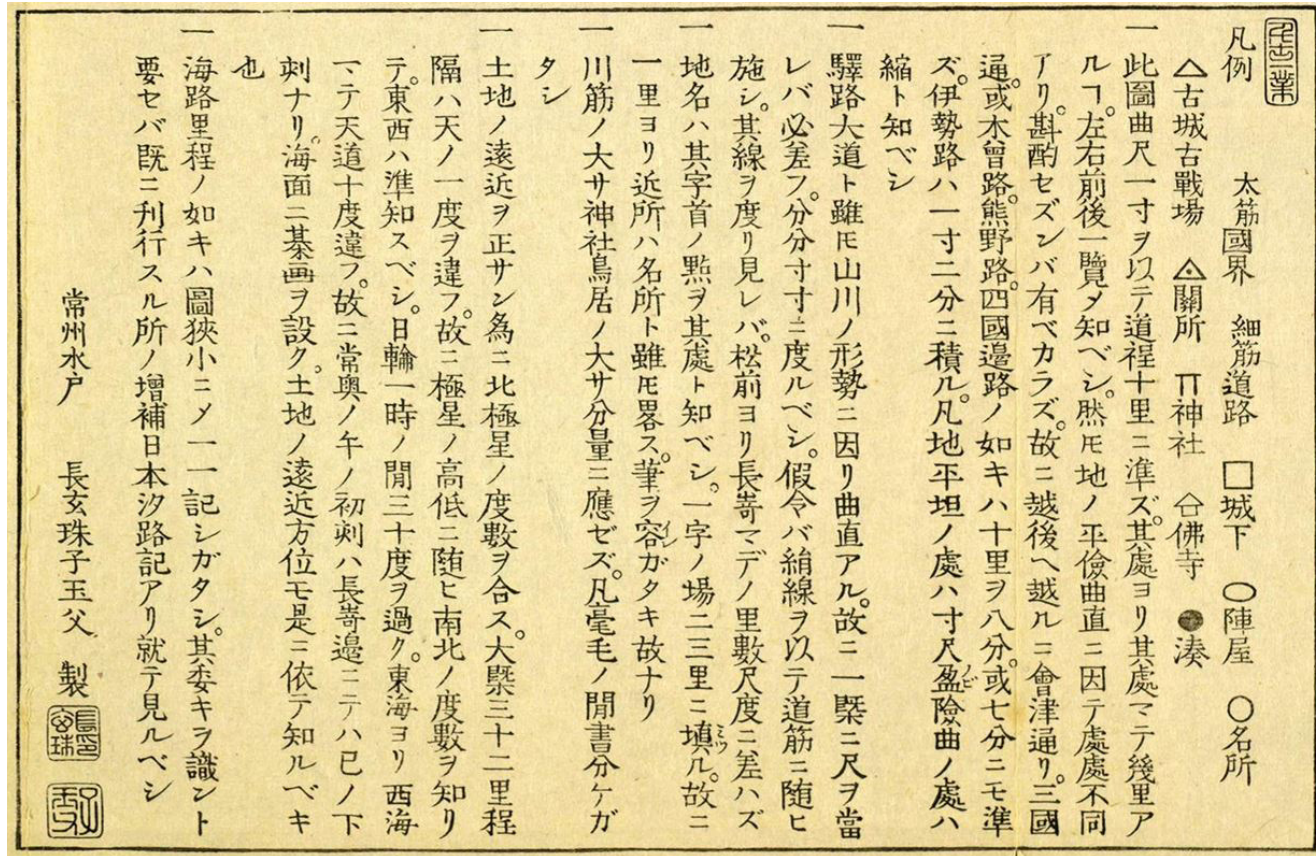
지도 범례 모두에 적힌 ‘千古一業’은 “옛날부터 학문과 기예, 일은 동일하다”는 뜻으로, 위조를 방지할 위한 ‘관방인(關防印)’이라고 한다.³⁸⁾ 범례에 따르면 행정구역계(國界)는 굵은 선(太筋), 도로는 가는 선(細筋)으로 나타냈으며, 각 행정구역의 성하(城下)는 정사각형(□) 기호, 번청(藩廳)인 진옥(陣屋)은 타원형 기호, 명소는 원형(○) 기호, 고성고전장(古城古戰場)은 삼각형(△) 기호, 관소(關所)는 삼각형 내 점(△) 기호, 신사(神社)는 (π)기호, 불사(佛寺)는 가옥 모양의 기호, 진(湫)은 먹색 원형(●) 기호로 표시하였다. 1791년 재판에는 쿠니명(國名)과 군명·군계가 추가되고, 채색이 된 것도 있다.

범례 설명문은 6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곡척(曲尺)³⁹⁾ 1치(寸)를 도정(道程) 10리(里)로 했다는 당시의 축도(縮圖)에 관한 것으로, 땅의 평험곡직(平險曲直)에 따라 10리가 1치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난 곳이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산천의 형세에 따라 역로(驛路)나 대도(大道)는 곡직(曲直)이 있어 먼 거리를 계측할 때는 도로 선을 면사(綿絲)로 재면 거리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는 지명의 첫 글자가 목표물의 정위치(正位置)라는 설명이고, 네 번째는 하천의 굽기나 신사조거(神社鳥居)의 크기는 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섯 번째는 토지의 원근을 정확히 하기 위해 북극성도수(北極星度數)를 이용해 약 32리는 천(天)의 1° 어긋나고, 북극성의 고저에 따라 남북의 도수를 알 수 있고, 동서는 알 수 없다는 설명으로, 일륜(日輪, 태양) 1시간은 30°를 넘고, 동해에서 서해까지는 천도(天道) 10° 어긋나고, 따라서 쓰네오키(常奧, 常陸國의 서남쪽)의 오초각(午初刻, 11시 25분경)은 나가사키 외곽의 사하각(巳下刻, 10시 45분 경)이 되고, 해면에 기화(棋畵, 중횡선)를 그으면 토지의 원근방위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섯 번째는 해로이정(海路里程)은 지도가 협소하여 일일이 기재하지 못하고, 자세한 것은 『증보일본서로기(增補日本

37) 최영성 교수의 번역을 필자가 재해석한 것임.

38) 長久保光明, 1992, 앞의 책 pp.300

39) 나무나 금속으로 ㄱ자 모양으로 만든 자. 곡척 1자(尺)는 경척(鯨尺) 8치(寸)에 해당.



〈도 9〉 개정일본외지노정전도 초판의 범례

『汐路記』⁴⁰⁾를 보라는 설명이다.⁴¹⁾

당시의 일본의 지방행정 구분은 율령제에 근거해 설치된 영제국(令制國)으로, 68개의 쿠니(國)가 있었는데, 지도에는 쿠니 별로 7가지 색으로 구분하였고, 쿠니 명은 직사각형 내에 표기하였다. 범례에 따라 각 쿠니의 죠가(城下)는 큰 사각형(□)으로 그 외 마을은 작은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적색으로 채색해 눈에 띄도록 하였다. 성하와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적색 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지명은 쿠니명 이외에 해·탄(灘)·하천·호수·산·성지(城地)·향촌(鄉村)·신사(神社)·불사(佛寺)·명승·고적·가도(街道)의 역명(驛名)·해변의 진(湊)·고전장(古戰場)·섬·갑(岬) 등 4,200개에 달하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40) 다카다 마사노리(高田政度)가 1796년에 편찬한 항해업자의 지침서

41) 長久保光明, 1992, 앞의 책 pp.300~303

3.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판본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1779년(安永 8) 초판이 발행된 이래 1871년(明治 4)까지 실로 1세기에 걸쳐 판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판이 발행되었다. 일본의 도서관이나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목이 ‘신각일본여지도정전도(新刻日本輿地路程全圖)’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지도상에 별도의 제목이 없어 시바노 리쓰잔의 서문 제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발행연도를 ‘1775年(安永 3)’이라고 한 것도 연도가 기재되지 않아 시바노 리쓰잔 서문 말미에 있는 ‘安永乙未(1775)’를 인용한 것으로, 이것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정식 명칭과 발행연도가 아니다.

또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가운데 판권에 관해 ‘안영 10년 무술 2월 원각(官許安永十年戊戌二月原刻)’이라고 쓰인 지도의 ‘戊戌’은 ‘안영(安永) 10년’이 아니라 ‘안영 7년(1778)’으로 이 또한 잘못 표기된 것이다. 더욱이 지도 상단 왼쪽에는 사카키바라 은사(榊原隱士)의 ‘조석에 관한 고찰(潮汐に關する考)’이 실려 있고, 발행처 등으로 판단해 1833년(天保 4) 이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출판허가를 득한 초판이 간행된 이래 쇄(刷)를 거듭함에 따라 수정을 가해 지형의 형태, 기재 문자의 크기 등 다른 개정판(改訂版)이 간행되었고, 이후 모방판과 출판허가를 받지 않은 해적판 등 수많은 지도가 간행되었는데, 일본 내 각지에 소장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상호 비교 검토하고 판본을 정리한 논문⁴²⁾에 게재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출판허가 판본과 일본의 지리학자 아키오카 다케지로(秋岡武次郎)의 『일본지도사(日本地圖史)』⁴³⁾의 내용, 도시카즈 카이다(海田俊一)의 『유선도와 적수도(流宣圖と赤水圖)』⁴⁴⁾의 내용, 메이지대학도서관(明治大學圖書館) 아시다문고(蘆田文庫)의 지도목록과 (재)독도재단 소장의 지도 등을 참조해 정리한 판본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출판허가 판

①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초판

출판허가 : 1778년(安永 7) 2월

발행연도 : 1779년(安永 8) 봄, 판매는 1780년(安永 9) 6월에서 9월 사이

지도크기 : 135×83cm

판각자 : 오사카(浪華) 무라카미쿠헤에(村上九兵衛)

발행처 : 오사카 아사노야헤에(浪華 淺野弥兵衛)

아키오카 다케지로는 초판도 개정(改訂)된 판본이 적어도 4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으나, 도시카즈 카이다는 초판의 개정판이 11점이라고 분류하였다.⁴⁵⁾

42) 馬場章 외, 2003, “デジタルアーカイブを利用した地圖の書誌學－長久保赤水製作「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の場合－”, 情報處理學會

43) 秋岡武次郎, 1955, 『日本地圖史』, 河出書房, pp.146-147

44) 海田俊一, 2017, 『流宣圖と赤水圖－江戸時代のベストセラー日本地圖－』, 三恵社

45) 海田俊一, 2017,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赤水圖)の改版過程について, 『地圖』Vol.55 No.3 日本國際地圖學會

초판본은 세키스이의 후손이 기증한 것으로 현재 다카하기시 역사민속자료관(高萩市歴史民俗資料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특징은 지도 우측 상단에 오시마(大島)와 코지마(小島)가 그려져 있지 않고, 혼슈(本州) 북단의 시모키타반도(下北半島)의 끝 부분이 쇠칼쿠리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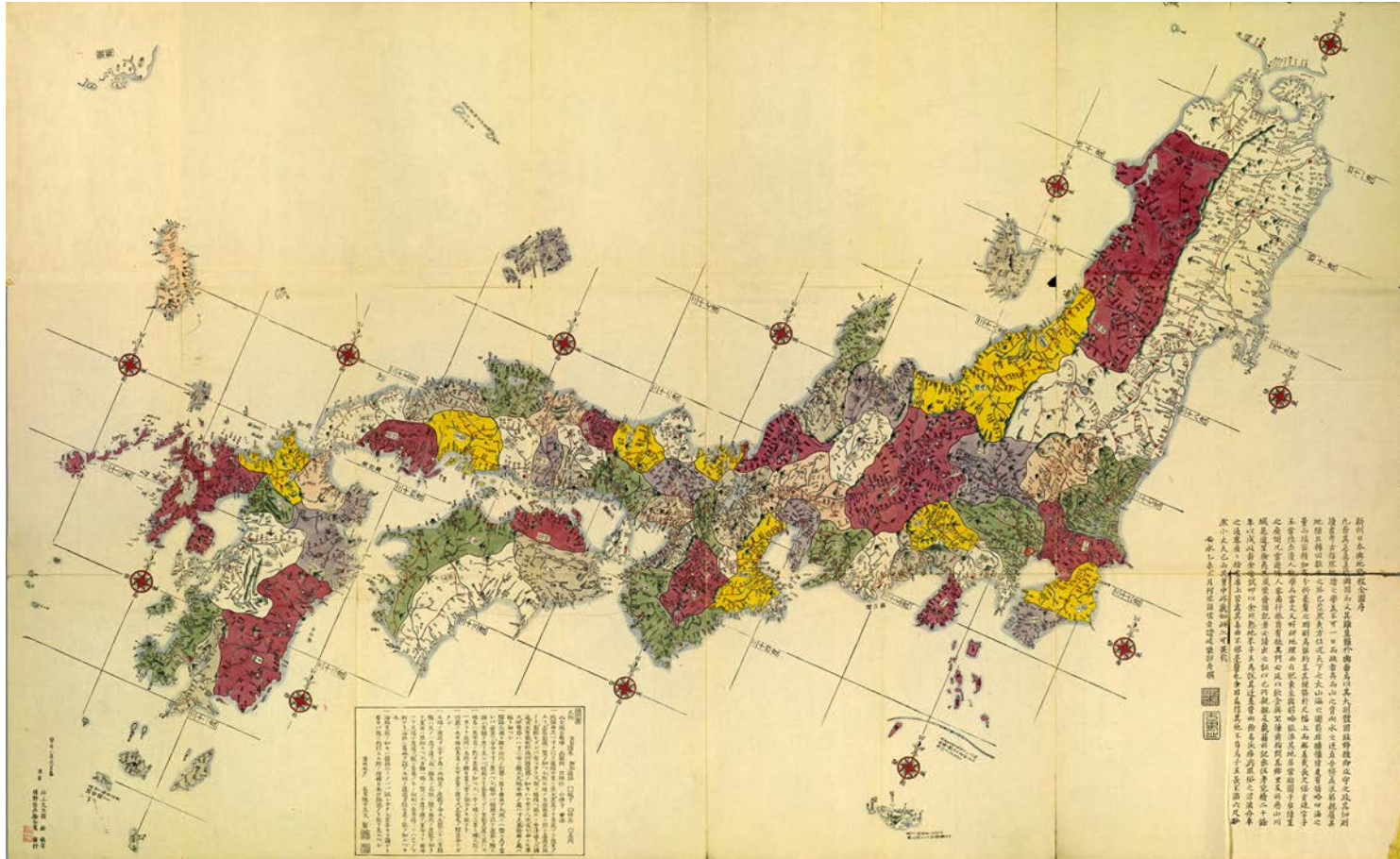


〈도 10〉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79년 초판(출처: 高萩市歴史民俗資料館)

②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개정 10판

발행연도 : 1779년(安永 8)

지도크기 : 134×83.5cm



〈도 11〉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1779년 개정 10판(출처: 독도재단)

판각자 : 오사카(浪華) 무라카미쿠헤에(邨上九兵衛)

발행처 : 오사카 아사노야헤에(浪華 淺野弥兵衛)

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도시카즈 카이다의 1779년(安永 8) 초판의 개정판 11점을 분류한 바에 따르면 개정(改訂) 10판에 해당된다. 개정 10판에는 상단 오른쪽에 작은 섬 오시마(大島)와 코지마(小島)가 그려져 있고, 혼슈(本州) 북단의 시모키타반도(下北半島)의 끝 부분의 모양도 독특하게 변하고, 반도 내에 ‘오소레산(恐山)’이 서남쪽으로 약간 이동되었으며, 시모키타반도와 쓰가루반도(津輕半島) 사이의 오마자키(大間崎)가 나쓰도마리(夏泊)로 수정되었다.



〈도 12〉 1779년(安永 8) 초판 개정 6판(좌측)과 개정 10판(우측)의 비교

③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제2판

출판허가 : 1790년(寬政 2) 11월

발행연도 : 1791년(寬政 3)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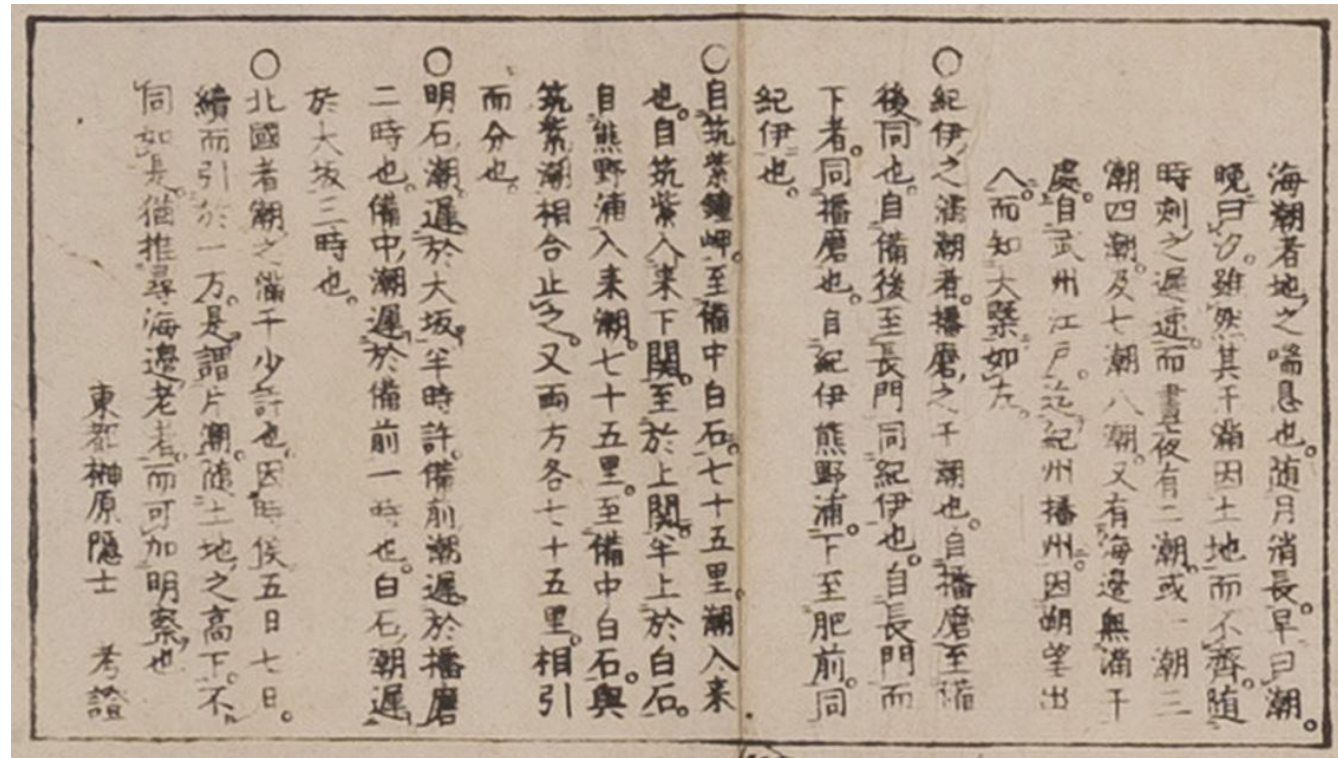
지도크기 : 128.8×84.6cm

판각자 : 교토(京師) 하타쿠헤에(畑九兵衛)

발행처 : 오사카 아사노야헤에(浪華 淺野弥兵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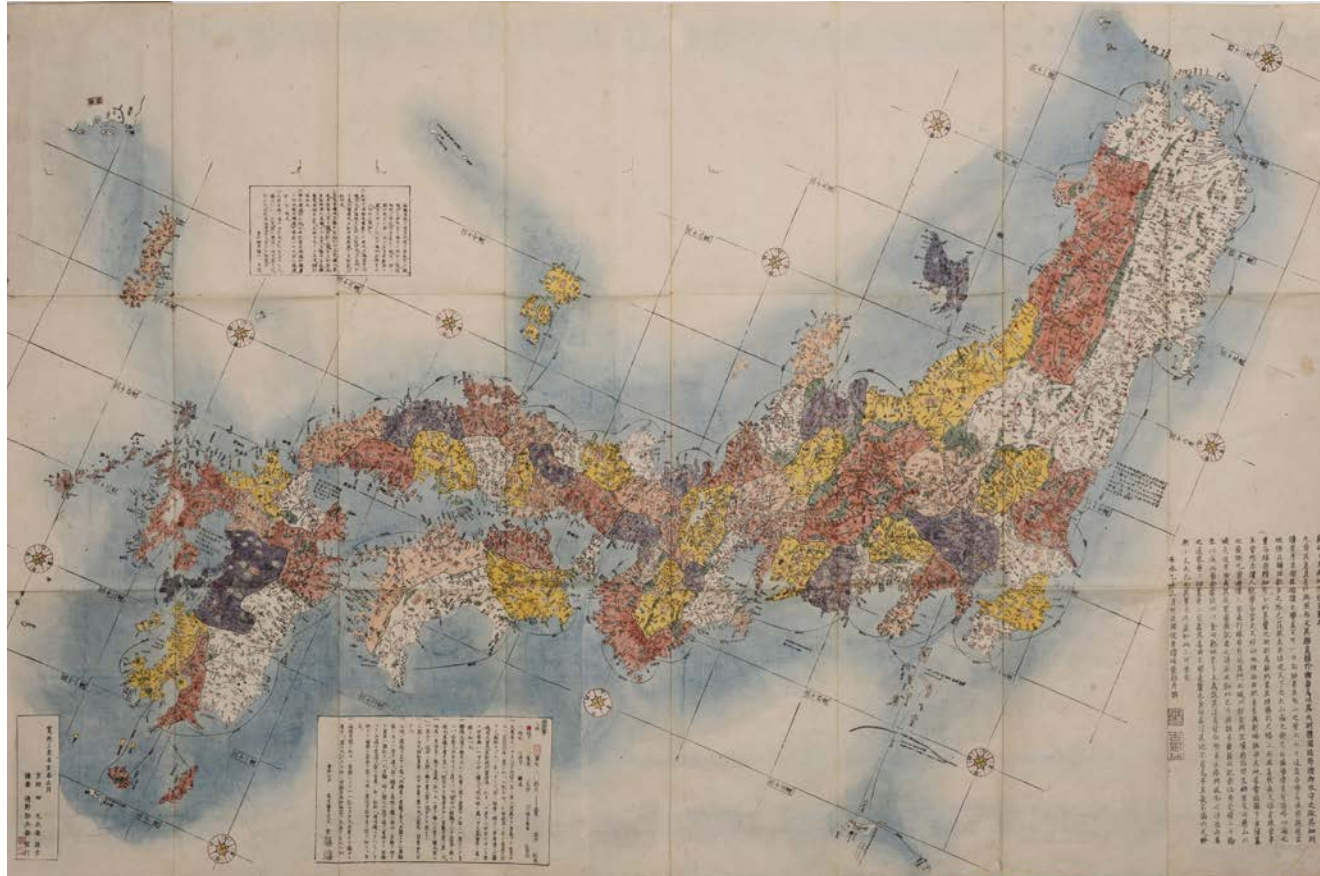
1791년(寬政 3)에 간행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세키스이 생존 시에 수정된 완성판으로 개정 4판까지 간행되었고, 초판본과 다른 것은 해로(海路)와 군명이 기입되고 지명이 대폭 추가 되었다. 범례에는 군명(郡名)이 사각형 기호 내에 표기되고, 군 경계가 파선(破船)으로 추가되었으며, 12개였던 방위반은 10개로 줄어 표시되어 있다. 지도 상단 왼쪽 쓰시마섬(對馬島)와 오키섬(隱岐島) 사이에는 사카키바라 은사(榊原隱士)의 ‘조석(潮汐)에 관한 고찰’이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다의 조수는 대지의 호흡이다. 달의 간만(干滿)에 따르면 이른 아침에는 간조라고 하고, 저녁에는 만조라고 한다. 그 간만은 토지에 따라 다르다. 시각의 지연에 따라 밤낮의 2조(潮)가 있다. 혹은 1조, 3조, 4조 및 7조, 8조도 있다. 또 바닷가에 간만이 없는 곳도 있다. 부슈·에도(武州江戸)에서 기슈·반슈(紀州播州)까지 달이 차고 출입하면 대략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도 13〉 사카키바라 은사(榊原隱士)의 조석(潮汐)에 관한 고증

- 기이(紀伊)의 만조는 하리마(播磨)의 간조이다. 하리마에서 비후(備後)까지도 마찬가지다. 비고(備後)에서 나가토(長門)에 이르는 기이와 같다. 나가토보다 아래는 하리마와 같다. 기이·쿠마노우라(紀伊熊野浦)에서 시모히젠(下肥前)에 이르는 기이와 같다.
- 쓰쿠시(쓰쿠시)가네사키(筑紫鐘岬)에서 비츄·시로이시(備中白石)까지 75리. 조수가 들어오다. 쓰쿠시에서 시모노세키(下関)로 들어온다. 카미노세키(上関)에 이르러 반쯤 시로이시에 오르다. 쿠마노우라(熊野浦)에서 들어오는 조수 75리. 비츄시로이시에 이르러 쓰쿠시의 조수와 부딪치기를 멈춘다. 또 양쪽 각 75리, 서로 잡아당겨 갈라진다.
- 아카시(明石)의 조수. 오사카(大坂)보다 늦어지기 1시간쯤이다. 비젠(備前)의 조수, 하리마에 늦으면 2시가 된다. 비츄의 조수, 비젠에 늦으면 1시가 된다. 시로이시의 조수, 오사카에 늦으면 3시가 된다.
- 호코쿠(北国)는 조수의 간만, 조금만 있다. 때에 따라 5일, 7일 계속해서 한쪽으로 당긴다. 이것을 편조(片潮, 조수의 흐름이 6시간마다 바뀌는 현상)라고 한다. 땅의 높낮이를 따르며, 같지 않은 일을 하는 것과 같다. 또한 해변의 노인에게 찾아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사카키바라 은사(榊原隱士) 고증.



〈도 14〉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91년 제2판(출처: 독도재단)

④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제3판

발행연도 : 1811년(文化 8) 1월

지도크기 : 131.2×86cm

판각자 : 京師 이노우에쿠헤에(井上九兵衛)

발행처 : 東都 스하라모헤에(須原茂兵衛), 大阪 마쓰무라쿠헤에(松村九兵衛)·야나기하라 키헤에(柳原喜兵衛)·요시다젠조(吉田善藏)·아카마쓰쿠헤에(赤松九兵衛)·하시모토도쿠베에(橋本德兵衛)

1801년(享和 1) 나가쿠보 세키스이 사망 이후에는 1811년(文化 8)에 제3판, 1833년(天保 4)에 제4판, 1840년(天保 11)에 제5판이 간행되었다.

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제4판

출판허가 : 1778년(安永 7) 2월

발행연도 : 1833년(天保 4) 10월 4刻

지도크기 : 144.1×94.1cm

판각자 : 京師 이노우에쿠헤에(井上九兵衛)

발행처 : 江戸 스하라모헤에(須原茂兵衛), 大阪 마쓰무라쿠헤에(松村九兵衛)·야나기하라 키헤에(柳原喜兵衛)·요시다젠조(吉田善藏)·아카마쓰쿠헤에(赤松九兵衛)·아사노야헤에(淺野弥兵衛)

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4판의 특이한 점은 각 발행처 밑에 출판자를 확인하는 인장이 찍혀져 있다.



<도 15>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833년 4판(출처: 독도재단)

⑥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제5판

출판허가 : 1781년(安永 10)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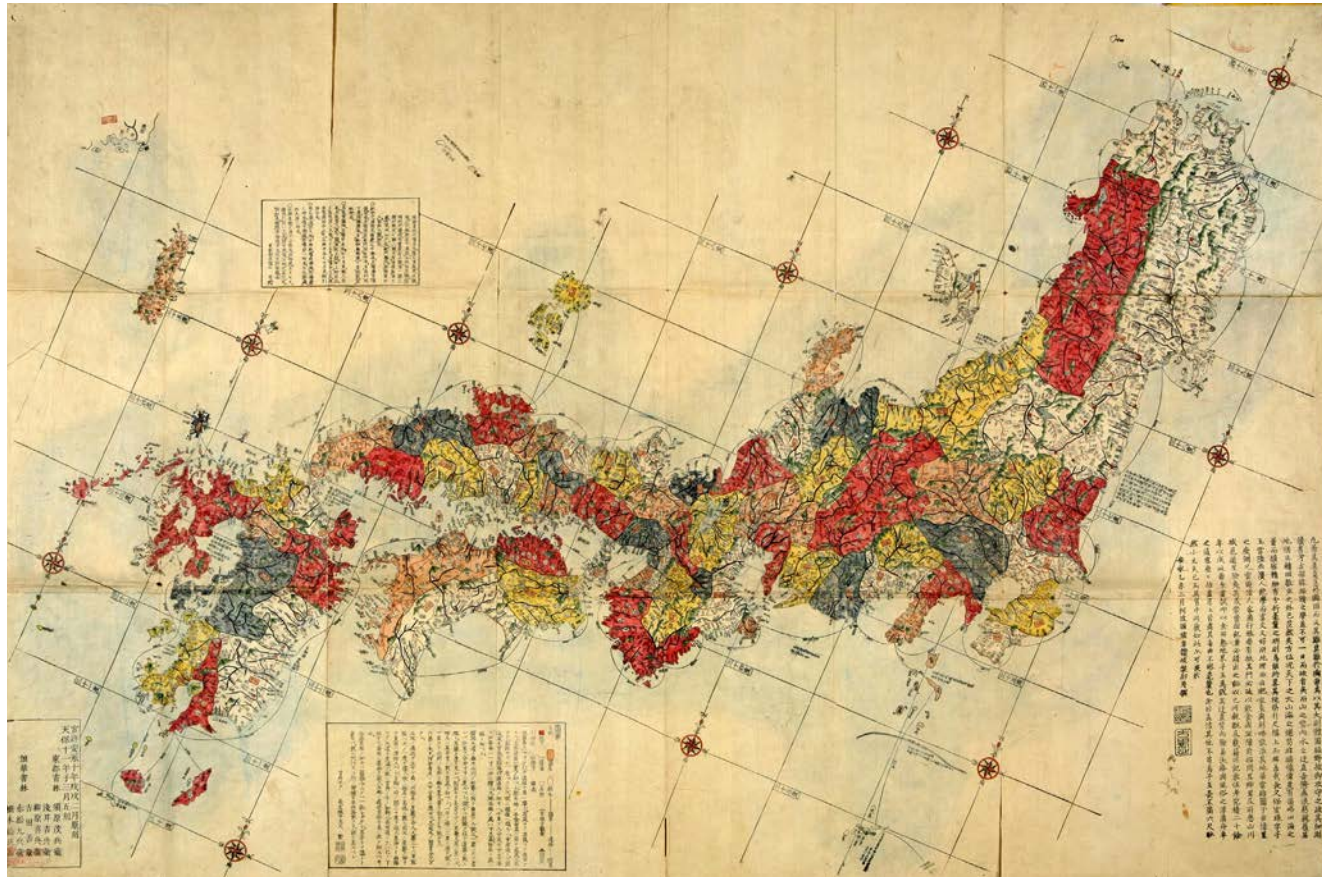
발행연도 : 1840년(天保 11) 3월 5척

지도크기 : 131×86cm

판각자 : 京師 이노우에쿠헤에(井上九兵衛)

발행처 : 東都 스하라모헤에(須原茂兵衛), 浪華 아사이기치헤에(淺井吉兵衛)·야나기하라키헤에(柳原喜兵衛)·요시다젠조(吉田善藏)·아카마쓰쿠헤에(赤松九兵衛)·하시모토도쿠베에(橋本德兵衛)

이 「개정일본여노정전도」 제5판에도 각 발행처 밑에 출판자를 확인하는 인장이 찍혀져 있다.



<도 16>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840년 5판(출처: 독도재단)

2) 모방판

상기 제5판 이후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인기가 높아지자 출판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방판(模倣版)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모방판의 특징은 지도의 규격이 가로 98cm, 세로 72cm 정도로 정규판 보다는 작고, 일본 영역에만 표시되던 경위선이 지도 전체로 확대되어 표시되었으며, 일본 영역 이외의 지역에도 채색이 되어 있다. 또한 범례는 지도 북쪽 중앙으로 이동되어 거꾸로 앉혀져 있고, 방위반은 대폭 줄어 4개만 표시되어 있다.

① 1844년(弘化 1) 신각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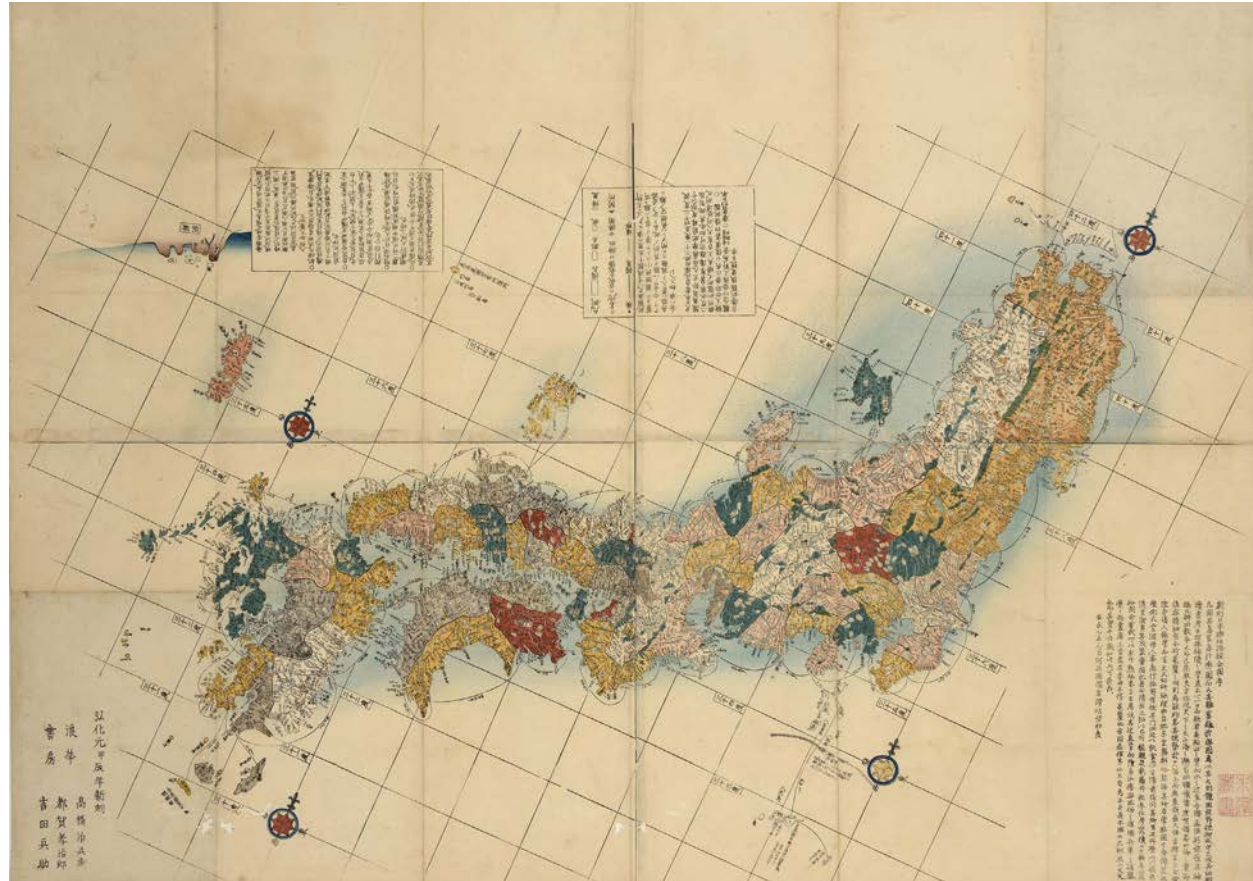
발행연도 : 1844년(弘化 1)

지도크기 : 98.4×71.3cm

발행처 : 나니와쇼보(浪華書房), 다카하시지헤에(高橋治兵衛)·쓰가코지로(都賀孝次郎)·요시다헤이스케(吉田兵助)

1844년(弘化 1) 신각판은 크기가 이전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비해 약 3분의 2로 축소되고, 세키스이의 이름과 도장도 삭제되었으나, 지도의 서문·범례·조석 고증은 이전과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 크게 달라진 점은 경위선이 지도 전체로 확대되고, 범례는 지도 위쪽 가운데로 옮겨졌으나 조석 고증과 함께 거꾸로 표시되어 있다. 범례의 해설도 대폭 생략되었으며, 지도의 지명 또한 많이 생략되었다.

이 1844년(弘化 1) 판부터 경위선이 지도 전체로 확대되고, 울릉도(竹島)·독도(松島)가 일본의 오키국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마치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 모방판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내세워 울릉도·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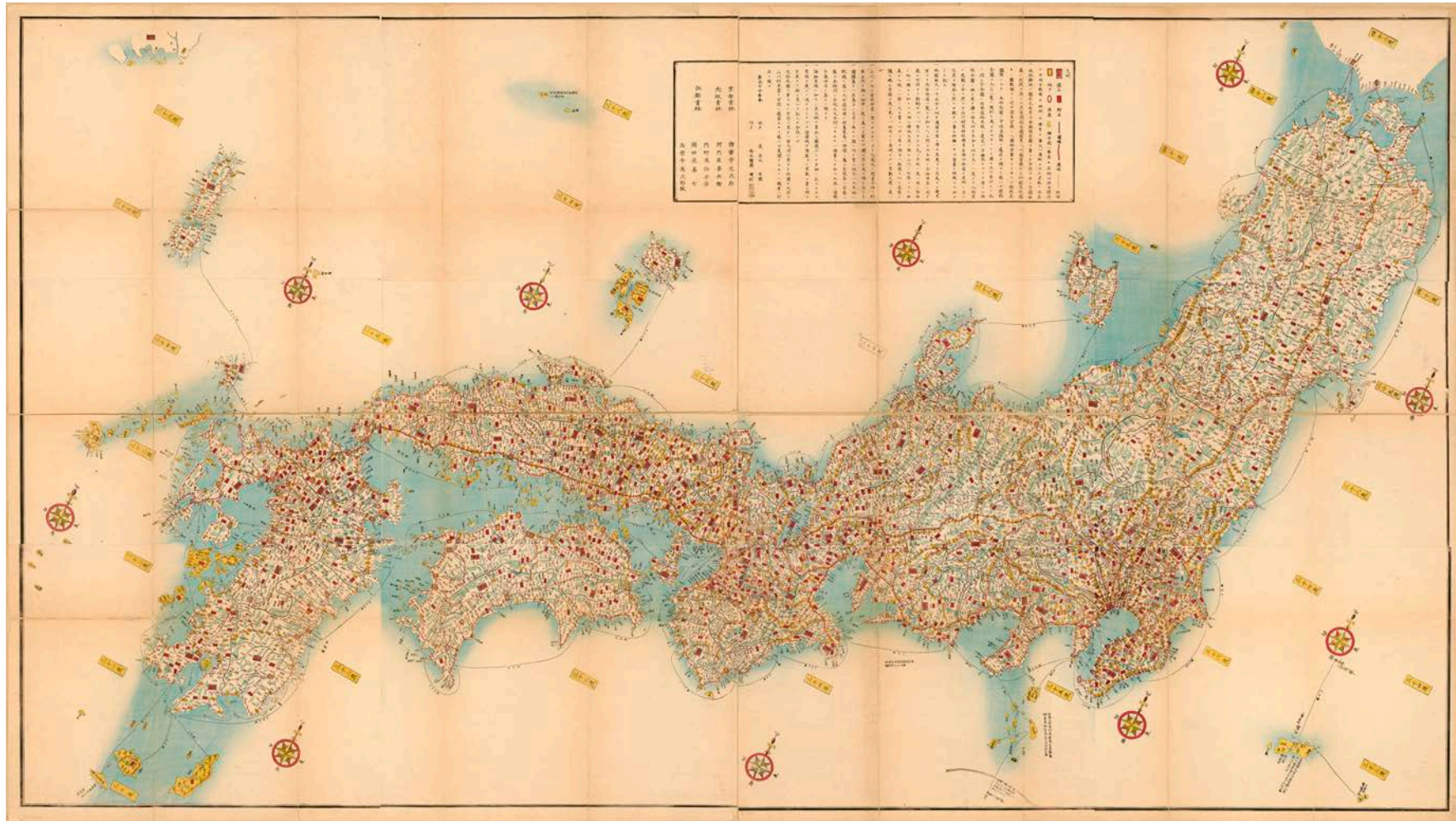
〈도 17〉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844년 신각판(출처: 독도재단)

② 1846년(弘化 3)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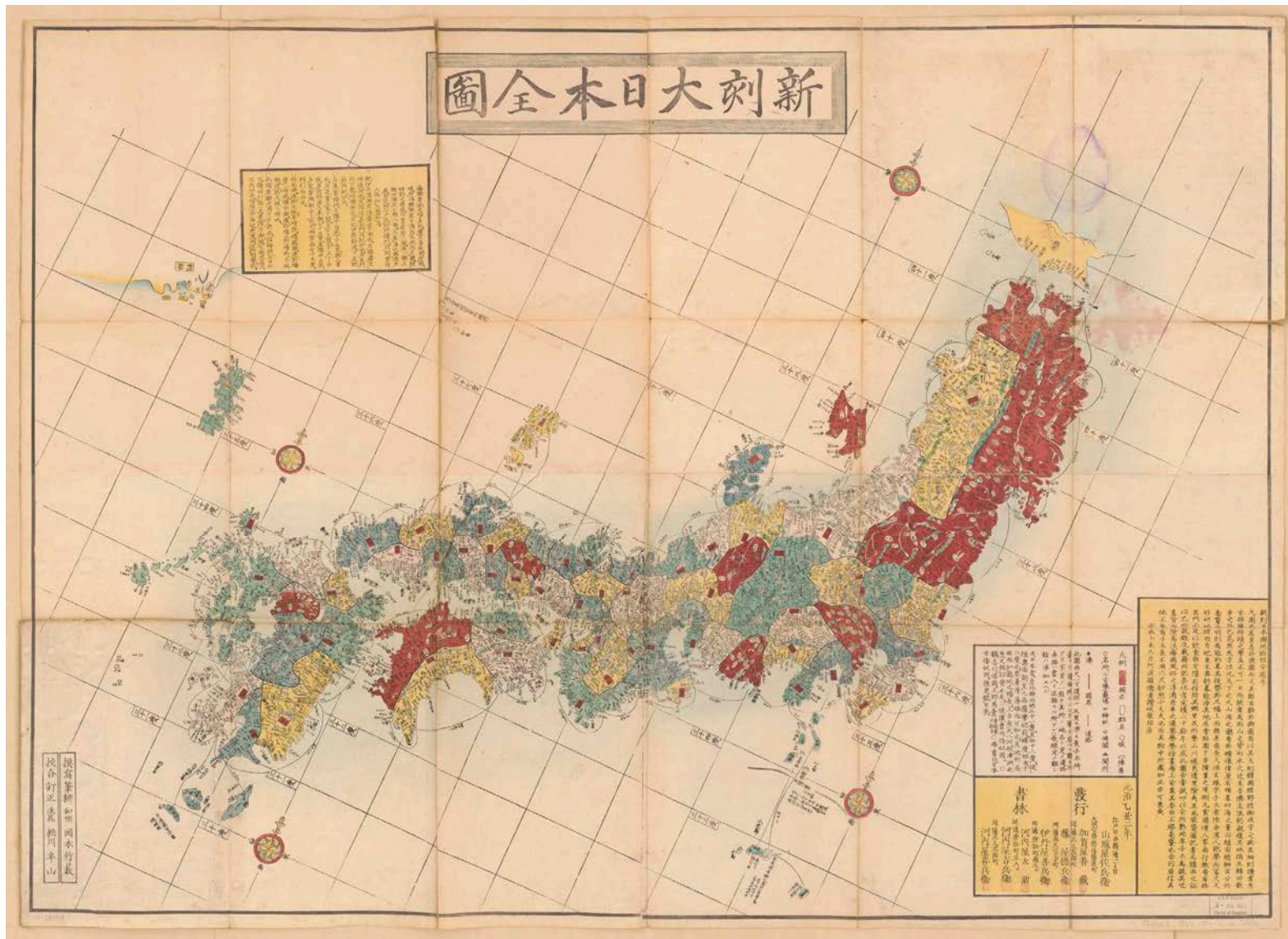
발행연도 : 1846년(弘化 3) 3월

지도크기 : 99×72cm

발행처 : 동도서림(東都書林), 스하라야모헤에(須原屋茂兵衛)·오카다야카시치(岡田屋嘉七)·이즈미야이치베헤(泉屋市兵衛)·야마시로야사헤에(山城屋佐兵衛)·마루야젠베에(丸屋善兵衛)·초지야헤이베에아이시(丁子屋平兵衛合梓)



<도 18>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852년 판(출처: Library of Congress)



〈도 19〉 개정일본어지노정전도 1865년 판(출처: Library of Congress)

③ 1852년(嘉永 5) 판

발행연도 : 1852년(嘉永 5)

지도크기 : 184×102cm

발행처 : 교토서림(京都書林), 오사카서림(大阪書林), 고토서림(江都書林)

이 지도는「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저본으로 막부 말기에 증보개정한 지도로,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보다 1.3배가량 크고, 지명이 풍부하나 경위선은 그려져 있지 않다. 서문이 빠지고, 범례와 판권도 위쪽에 합쳐 표시되어 있다.

④ 1862년(文久 2) 판

발행처 : 에도(江戸) 야마시로야사헤에(山城屋佐兵衛)

⑤ 1865년(元治 2) 판

발행연도 : 1865년(元治乙丑 2)

지도명 : 신각대일본전도(新刻大日本全圖)

발행처 : 에도 산성옥좌병위(山城屋佐兵衛), 오사카 카가야젠조(加賀屋善藏), 후지야도쿠베에(藤屋德兵衛), 카와치야키헤에(河内屋喜兵衛)

지도 제목은 상단 중앙에 ‘신각대일본전도(新刻大日本全圖)’라고 크기 쓰고, 하단 우측에 서문과 범례, 판권이 실려 있다. 상단 좌측에 ‘조선(潮汐)에 관한 고찰’이 이름 없이 실려 있다. 지도 전체에 경위선이 그려지고, 방위반은 4개만 표시되어 있다.

⑥ 1871년(明治 4) 판(1852년 원각)

지도명 : 증정대일본국군여지노정전도(增訂大日本國郡輿地路程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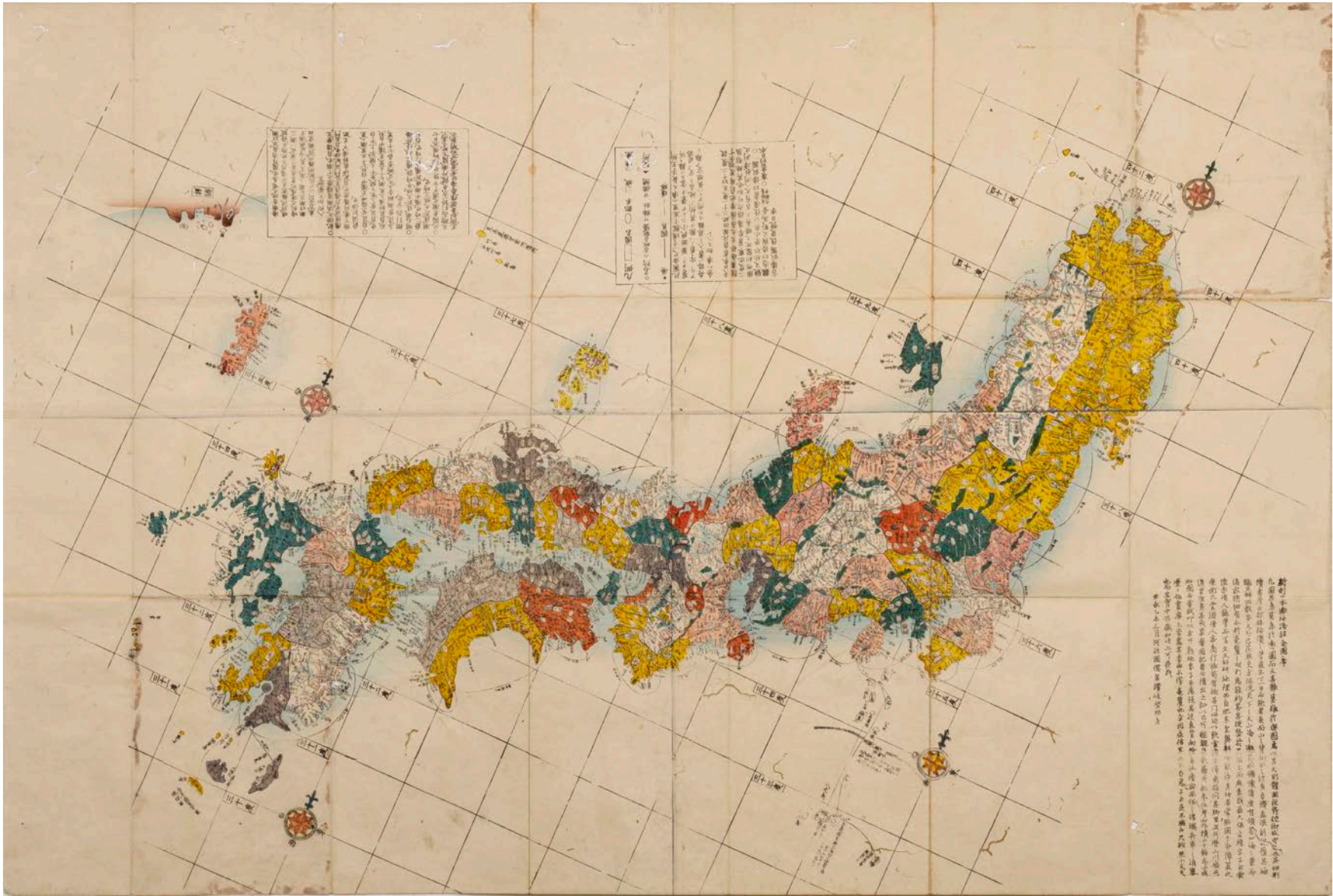
지도크기 : 186×104cm

발행처 : 세이쿄서림(西京書林), 오사카서림(大阪書林), 고토서림(東京書林)

3) 해적판

지도크기 : 99.9×66.7cm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해적판은 발행처와 발행연도가 기재되지 않고, 지도의 규격도 제각각이다. 흔히 발행연도가 없는 지도에 대해 연도를 ‘1775년(安永 3)’라고 밝힌 지도는 서문에 기재된 연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해적판 중에는 경위선이나 방위반이 없거나 심지어 서문이나 범례가 없는 판도 존재한다. 더욱 이러한 지도는 엽가판으로 제작되어 용지도 일본종이(和紙)가 아닌 현재의 모조지와 같은 백연지(白軟紙)를 사용하고, 채색이 없는 지도도 존재한다.



〈도 19〉 개정일본어지노정전도 1865년 판(출처: Library of Congress)

IV.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본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 경위선과 채색 유무에 따른 근거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실측지도는 아니지만, 위선에 직교하는 경선(방격선)을 골격으로 1779년에 제작된 일본 전국지도로, 1821년 이노 타다타카(伊能忠敬, 1745~1818)에 의해 측량·제작된 「대일본연해여지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전국지도로 평가되었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는 일본의 관할구역 외에도 조선의 남동부 일부와 울릉도·독도가 그려져 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자국에 유리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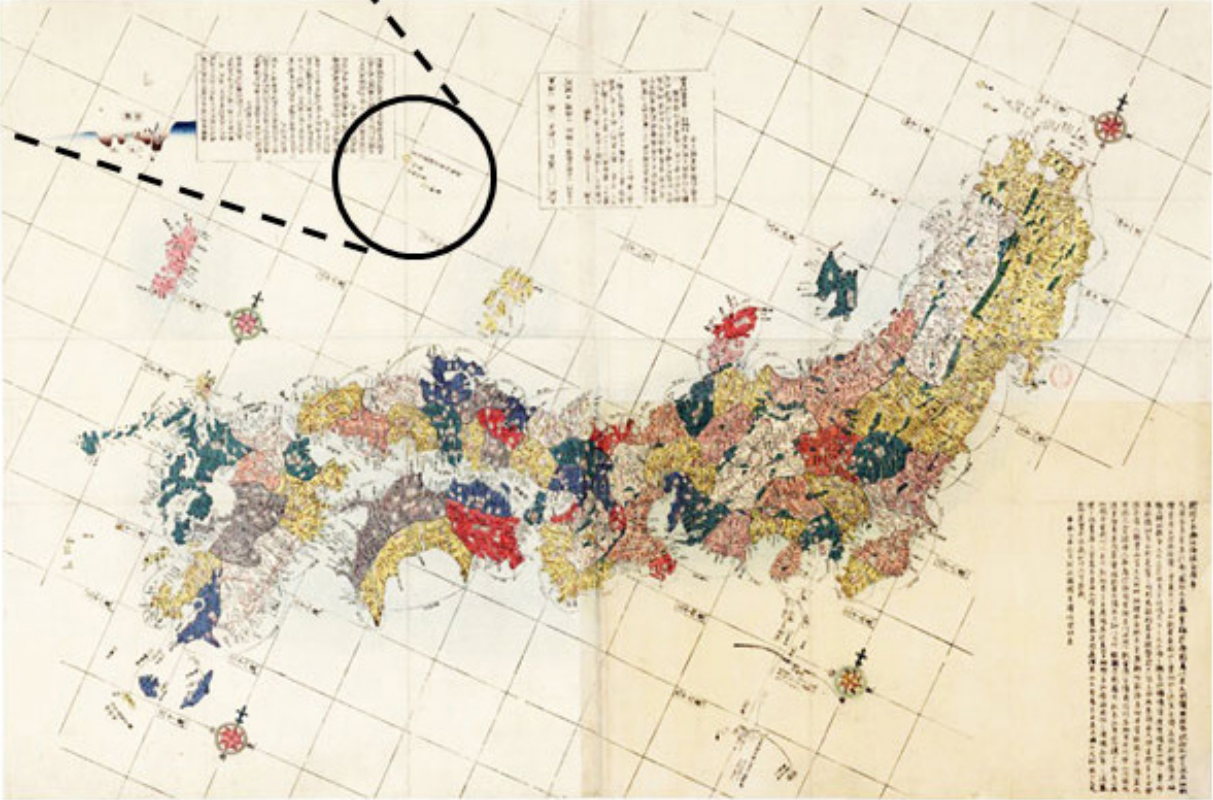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가운데 출판허가를 받은 제5판까지는 당시 일본의 행정구역인 68개 쿠니(國)에만 국한되어 경위선이 그어지고, 68개 쿠니에만 채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울릉도·독도는 경위선 밖에 그려져 있고, 채색도 없어 일본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1844년 모방판부터는 지도 전체로 경위선이 확장되고, 울릉도·독도에도 오키국(隱岐國)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울릉도·독도가 마치 일본의 관할구역처럼 표시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외무성(外務省)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에 있어서 다케시마의 인지(日本における竹島の認知)’라는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현재의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마쓰시마’라고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는 ‘다케시마나 이소다케시마’라고 불렸다【도1】. 다케시마나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의 오류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음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년 초판)외에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現在の竹島は、我が国ではかつて「松島」と呼ばれ、逆に鬱陵島が「竹島」や「磯竹島」と呼ばれていました【図1】。竹島や鬱陵島の名称については、ヨーロッパの探検家等による鬱陵島の測位の誤りにより一時的な混乱があったものの、我が国が「竹島」と「松島」の存在を古くから承知していたことは各種の地図や文献からも確認できます。例えば、経緯線を投影した刊行日本図として最も代表的な長久保赤水(ながくぼせきすい)の「改正日本輿地路程(よちろてい)全図」(1779年初版)のほか、鬱陵島と竹島を朝鮮半島と隠岐諸島との間に的確に記載している地図は多数存在します。”

이와 같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79년 초판을 언급하면서 예시한 지도는 울릉도·독도가 일본 관할구역으로 표시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846년(弘化 3) 모방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島根縣)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 측 제작 지도로 보는 다케시마(日本側作製地圖にみる竹島)’라는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채색이 없는 것은 다케시마, 마쓰시마, 한반도 외에 초판에서는 치쿠젠의 미고지마(현재의 오키노시마), 사쓰마의 구치노에라부지마, 예조지



〈도 2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846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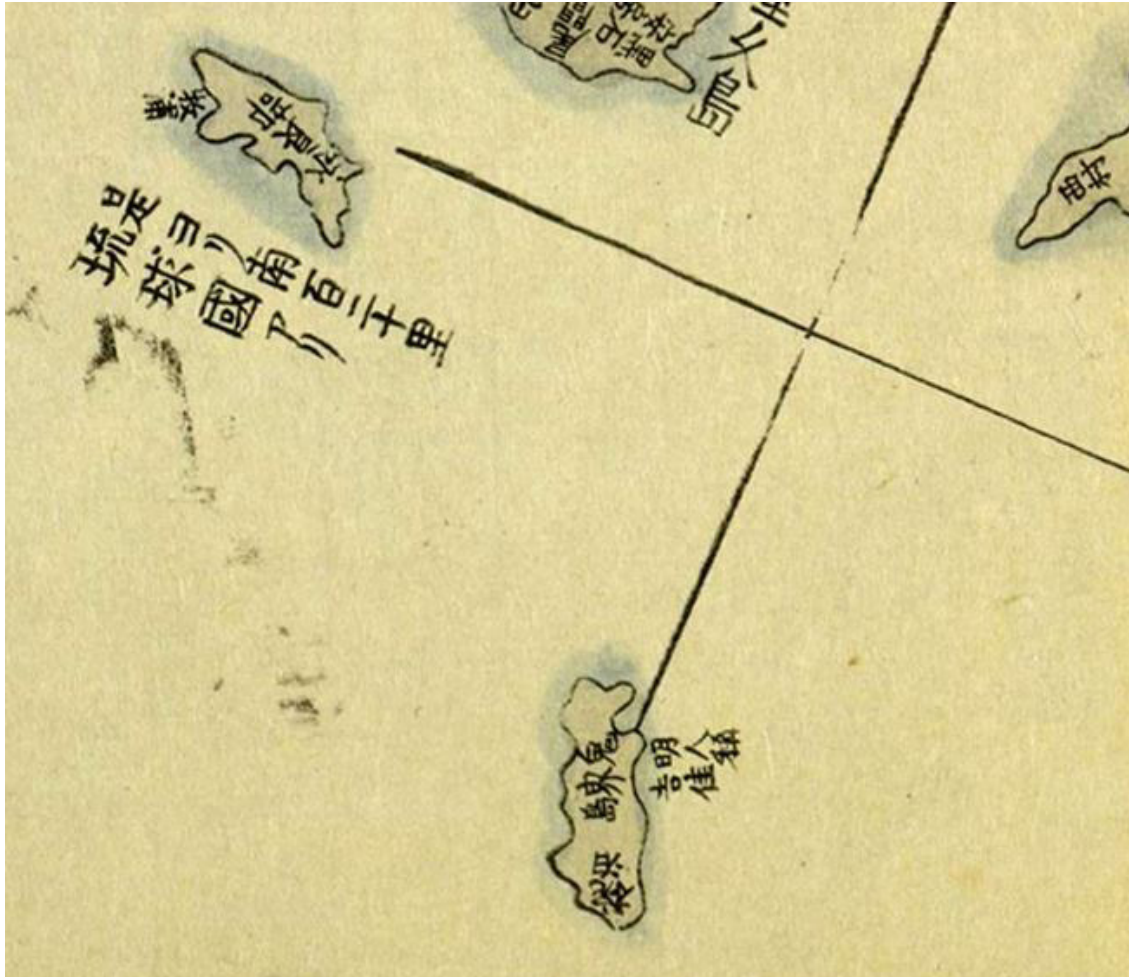
(마쓰에번))이고, 2판에서는 하치조지마, 미고지마, 구치노에라부지마, 에조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채색이 없는 것을 보아 일본 령 외, 나아가 조선 령임을 증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彩色がないのは、竹島、松島、朝鮮半島のほかに、初版では、筑前の御号島(現在の沖ノ島)、薩摩の口永良部島、蝦夷地(松前藩)、2版では八丈島、御号島、口永良部島、蝦夷地とな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彩色がないことをもって日本領外、さらに朝鮮領であることを証明したことにはならないことが分かります).”

상기 시마네현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대로「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정규 판에는 울릉도·독도 외에도 채색이 없는 섬이 여러 개 존재한다. 첫 번째 지도 좌측 하단 위도 30°에 위치하는 에라부지마(永良部島)⁴⁶⁾와 기카이지마(鬼界島)⁴⁷⁾는 1872년(明治 5) 메이지정부에 의해 유구번(琉球藩)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유구왕국(琉球王國)⁴⁸⁾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경위선 밖에 위치시키고 채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에도시대 후기의 경제론가(經世論家)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93)가 1785년(天明 5)에 펴낸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의 부도인 「유구삼성병36도지도(琉球三省并三十六島之圖)」에도 에라부지마와 기카이지마는 유구국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46) 구치노에라부지마(口永良部島)라고도 불림.

47) 같은 발음인 기카이지마(喜界島)라고도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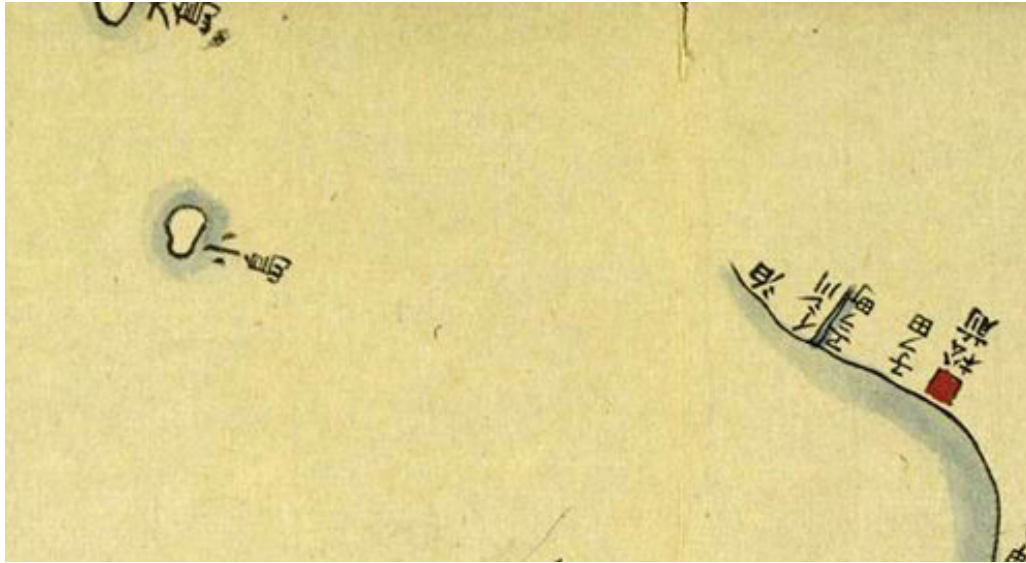
48) 유구왕국은 1429년부터 1879년까지 450년간 유구제도를 중심으로 존속했던 독립 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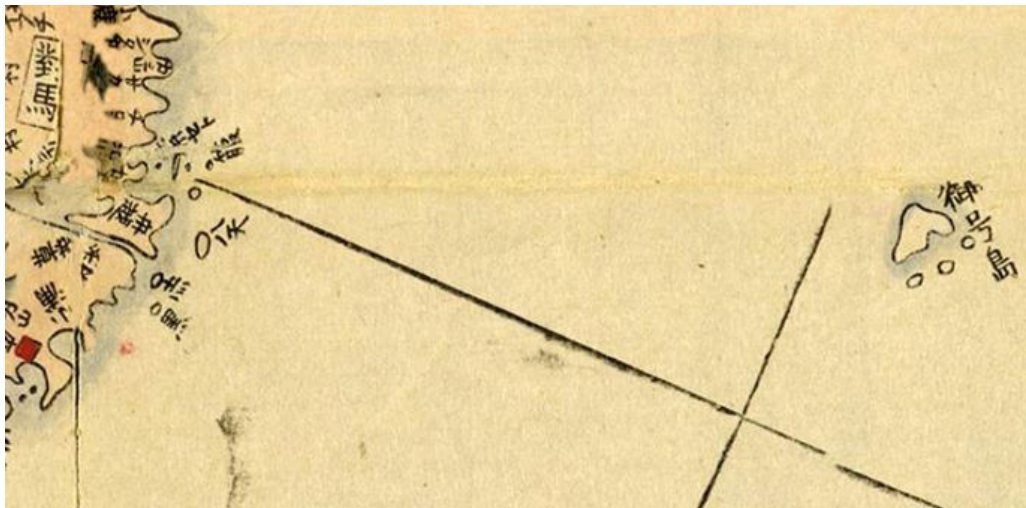
〈도 22〉 개정일본어지노정전도 초판에 채색되지 않은 에라부지마(永良部島)와 기카이지마(鬼界島)(출처: 독도재단)

두 번째, 지도 우측 상단의 위도 41° 북쪽에 위치한 오시마(大島)와 고지마(小島)는 1869년(明治 2) 메이지 신정부와 구 막부 세력 간의 내전인 포신전쟁(戊辰戰爭)이 종결되자 신정부는 태정관(太政官) 포고에 의해 에조지(蝦夷地)를 홋카이도(北海道)로 개칭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에조지의 관략구역이었기 때문에 경위선 밖에 위치시키고 채색을 하지 않은 것이다. 마쓰마에(松前)는 에조지의 오시마반도(渡島半島) 남서단에 있던 외양번(外樣藩)⁴⁹⁾으로, 에조지와 교역을 독점하던 곳으로 1807년에 비로서 북방방비를 위해 에조지 일부가 막부직할지로 되었다.

49) 계보 없이 주종관계를 맺은 무가(武家).



〈도 23〉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초판의 오시마(大島)와 고지마(小島)(출처: 독도재단)



〈도 24〉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초판의 어호도(御号島)(출처: 독도재단)

세 번째, 대마도 동쪽 해상에 위치한 미고지마(御号島)⁵⁰⁾는 고대 일본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바닷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일본의 견당사(遣唐使)도 이 섬을 표적으로 향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신(神)의 섬으로 알려져 있고,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제작될 당시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경위선 밖에 위치시키고 채색을 하지 않은 것이다. 미고지마는 1851년에 후쿠오카번(福岡藩)의 번사가 입도한 기록이 있고, 현재는 후쿠오카현(福岡縣) 무나카타시(宗像市)에 속해 있다.

네 번째, 지도 중앙부 하단에 위치한 하치쵸도(八丈島)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290km 떨어진 섬으로, 에도시대에는 “새도 지나가지 않는 섬”으로 알려진 탈출이 불가능한 유형지였다. 1600년(慶長 5) 세키가하라 전투(關ヶ原の戦い)⁵¹⁾에서 패한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가 하치쵸도에 유배되었고, 1827년(文政 10) 곤도 토미조(近藤富藏)가 살인죄로 이 섬에 유배되는 등 에도시대 265년 간 약 1,900명의 죄인이 이 섬에 유배되었다. 이와 같이 하치쵸지마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제작될 당시에는 유형지였고, 1876년(明治 9)에 이르러 시즈오카현(靜岡縣)에 속했다가 1878년(明治 11)에 도쿄부(東京府)에 속하게 되었다.⁵²⁾ 이와 같이 하치쵸지마는 당시 어떤 행정구역에도 속하지 않는 유형지였기 때문에 경위선 밖에 위치시키고, 채색을 하지 않은 것이다.

50) 규슈 본토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외딴섬으로, 현재는 오키노시마(沖ノ島)라고 불림.

51) 徳川家康의 東軍과 石田三成의 西軍이 천하를 놓고 벌인 전쟁.

52) 長久保光明, 1992, 앞의 책 pp.300~303



〈도 25〉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초판의 하치조지마(八丈島)(출처: 독도재단)



〈도 26〉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초판의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출처: 독도재단)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서문에 따르면 세키스이는 20여년에 걸쳐 지도를 완성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고증하고, 세밀히 분석해 지도 원고 작성에 매진하였다. 세키스이가 유구왕국에 속했던 에라부지마와 기카이지마, 예조지에 속했던 오시마와 고지마, 무인도였던 오고시마, 죄수들의 유형지였던 하치조지마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섬인지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섬들을 조선의 남동부와 울릉도·독도와 함께 경위선 밖에 위치시키고, 채색을 하지 않은 것이다.

2. ‘견고려유운주망은주’의 해석에 따른 영유권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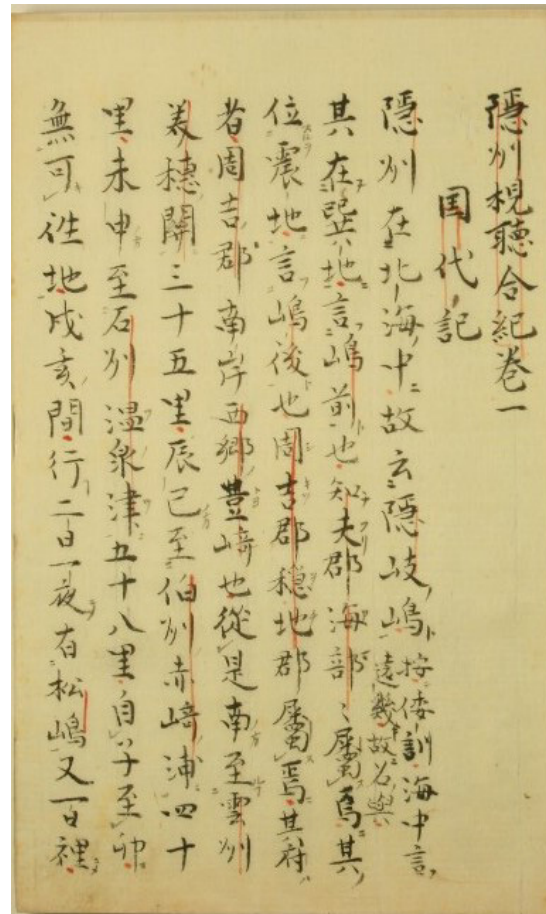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그려진 울릉도·독도는 일본식 명칭으로, 울릉도는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되고 ‘일명 이소다케시마(一云磯竹島)’라고 부기되어 있으며, 독도는 ‘마쓰시마(松島)’로 표기되어 있다. 또 두 섬 옆에는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주기가 기재되어 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자국의 영유권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키스이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제작하면서 참조했던 지도 가운데 모리 코안의 「일본분야도」와 세키스이가 모사한 「다치바나모리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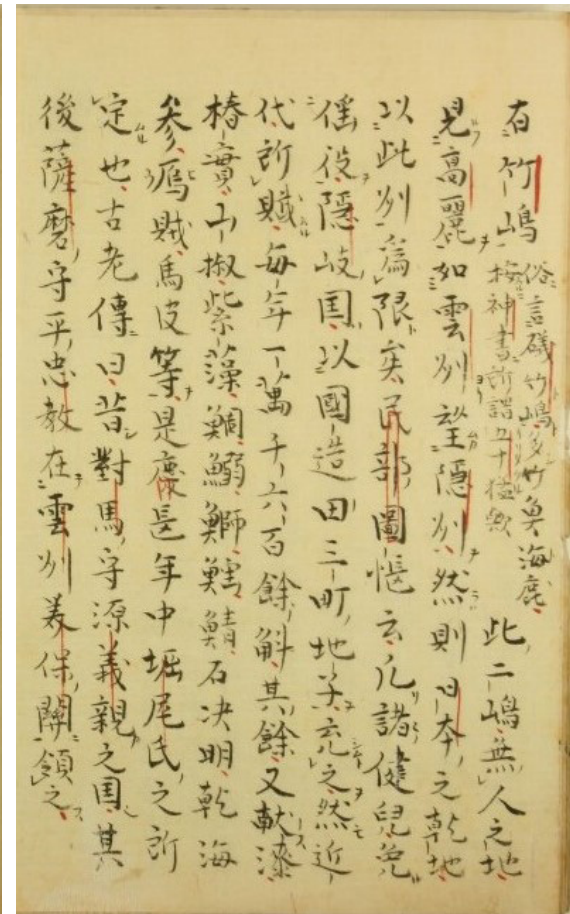
도」에는 오키섬 북쪽에 울릉도를 지칭하는 ‘다케시마(竹島)’가 표시되어 있고, 그 뒤 세키스이가 모사한 「일본약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함께 그려져 있어 세키스이는 일찍이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세키스이는 1768년(明和 5)에 작도한 「개정일본부상분리도」에도 울릉도·독도를 그려 넣고 그 옆에 ‘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독도의 위치를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어 세키스이가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를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초판 과 다른 점은 지도 전체에 경위선이 표시되어 있다.

『은주시청합기』는 이즈모 마쓰에번(出雲松江藩)의 2대 번주 마쓰다이라 쓰나다카(松平綱隆)의 명에 따라 1667년 8월 사이토 호센(齊藤豊仙, ?~1692)⁵³⁾이 오키 군다이(郡代)⁵⁴⁾로 약 2개월에 걸쳐 온슈(隱州, 오키 섬)를 순찰하고 보고들은 것을 채록한 온슈의 조사보고서이다. 이 『은주시청합기』 권1 국대기(國代記) 앞부분에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도 27〉 은주시청합기 권1 국대기(출처: 島根大學附屬圖書館)



“온슈는 북쪽 바다 가운데 있어 오키섬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왜말로 바다 속을 ‘오키’라고 하는데 거기서 연유된 이름일 것이다. 남동쪽에 있는 땅을 ‘도젠’이라 하고 치부군과 아마군이 속한다. 그 동쪽에 있는 땅을 ‘도고’라 하고 스키군과 오치군이 이에 속한다. 그 중심부는 스키군 남안의

53) 松江藩의 藩士로 사이토 간스케(齋藤勘介), 사이토 후쓰칸(齋藤弗緩) 등으로도 불린다.

54) 에도시대 領主를 대신해 郡단위의 政세·사법·군사 등의 직무를 담당한 地方行政官

사이고 도요사키이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이즈모 미호세키까지 35리, 동남쪽으로 하쿠슈 아카사키우라까지 40리. 남서쪽으로 세키슈의 유노쓰까지 58리. 북쪽에서 동쪽에 이르는 사이에 갈 수 있는 땅이 없다. 북서쪽으로 하룻밤 이틀을 가면 마쓰시마이고, 또 하루거리에 다케시마가 있는데, 속칭 ‘이소다케시마’라고 한다. 대나무와 물고기, 강치가 많다. 생각건대 신화에 나오는 이른바 이소타케일 것이다. 이 두 섬은 무인도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에서 운슈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북서쪽은 이 주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隱州在北海中故云隱岐島 按倭訓海中言遠幾故名歟 其在異地言嶋前也 知夫郡海部郡屬焉 其位震地言嶋後也 周吉郡穩地郡屬焉其府有周吉郡南岸西鄉豊崎也 從是南至雲州美穂關三十五里 辰巳至伯州赤碕浦四十里 未申至石州温泉津五十八里 自子至卯無可往地 戌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 俗言磯竹島多竹魚海鹿按神言所謂五十猛歟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雲州望隱州 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⁵⁵⁾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해석이 다른 문장은 바로 ‘견고려유운주망은주 연즉일본지건지 이차주위한의(見高麗如雲州望隱州 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의 ‘차주(此州)’인데, 일본 시마네현 홈페이지에 게재된 『隱州視聽合記(紀)』와 『隱岐國風土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은주시청합기에는 유명한 ‘見高麗如自雲州望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가 기록되어 있다. 이케우치 사토시는 이 한 문장의 주어는 앞쪽의 ‘은주’라고 하고, ‘차주’도 오키국이라고 하였다. 오니시 토시키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견고려’는 다케시마(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시점이라고 하면서도 ‘차주’는 오키국이며,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주는 모두 ‘나라’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를 섬으로 읽어 ‘차주’를 울릉도라고 한 학자는 전에는 다가와 고조이다. 최근에는 시모조 마사오, 나이토 세이쥬 등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기국풍토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從竹嶋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이다. 즉 ‘從竹嶋’가 덧붙여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케시마(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차주(울릉도)’가 한계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덧붙여 ‘차주’를 ‘오키국’이라 읽는다면 다케시마는 무인도가 되기 때문에 오키국의 소속지가 된다(隱州視聽合記(紀)は有名な‘見高麗如自雲州望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を記している。池内敏氏はこの一文の主語は冒頭の隱州とし、此州も隱岐国であるとされた。大西俊輝氏は表記されていないが、‘見高麗’には竹島(鬱陵島)から高麗をみる視点があるとしながらも、‘此州’は隱岐国であり隱州視聽合記が記す州はすべて国であるとされている。これに対して州を島と読み、‘此州’を鬱陵島と考えられているのが、かつては田川孝三。最近では下條正男氏、内藤正中氏等である。さて、この部分に関しては隱岐風土記はどう記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從竹嶋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とある。すなわち‘從竹嶋’が付け加わっているのである。そのため、竹嶋(鬱陵島)より高麗(朝鮮)を見るのは雲州から隱州を望見するのと同じようである。そうであるから日本の西北の境は此州(竹嶋・鬱陵島)が限界となる’。と解するのが一般的である。なお、此州を隱岐国と読むなら竹嶋は無入島ながら隱岐国の所属地ということになる.)”

이상과 같이 한국 측 주장에 동조하는 학자들의 견해와 그와 반대되는 학자들의 견해를 함께 싣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은주시청합기』를 참조해 후대에 오제키 이센(尾關意仙)이 쓴 『은기국풍토기』에 첨기된 ‘從竹嶋’를 가지고 ‘此州’를 울릉도로 해석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55) 시마네현(島根縣) 홈페이지 『隱州視聽合記(紀)』と『隱岐國風土記』

일반적으로 ‘견(見)’자와 ‘망(望)’자는 구별하여 사용한다. ‘망’자는 ‘멀리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 ‘견’과는 다르다. 따라서 ‘見高麗, 如(猶)雲州望隱州’라는 문장은 ‘(송도에서) 고려번(울릉도)을 보는 것은 운슈에서 운슈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풀어야 한다. 또한 ‘見高麗’를 ‘고려로써 보면(見以高麗)’, 즉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던지 간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말입에는 틀림이 없다.⁵⁶⁾

이와 같이 한국 쪽에서는 ‘見高麗如雲州望隱州 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라는 문장을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雲州)에서 운슈(隱州)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북서쪽은 이 주(州) 즉 운슈(오키 섬)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라고 해석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 섬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세키스이는 『은주시청합기』의 내용을 신뢰하여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울릉도·독도를 조선 땅으로 그리고 ‘見高麗如雲州望隱州’라는 글귀를 적어 넣었음이 분명하다.

3. 모방판 이후의 경위선과 채색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가운데 1844년(弘化 1) 판 이후의 모방판에는 지도 전체로 경위선을 확장해 표시하고, 울릉도·독도에는 오키국과 같은 채색을 넣어 마치 일본의 관할구역처럼 보이도록 했을까. 여기에는 분명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에도시대 각 번(藩)은 사적으로 외국과 무역하는 것을 국법으로 금지하였으나, 해상 운송 중개업자인 아이즈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은 빛에 몰린 번의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 밀무역을 제안하였고, 번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울릉도에 건너가 조선과의 밀무역을 승인하였다. 이 밀무역에는 하마다번의 가로(家老)⁵⁷⁾ 오카다 타노보(岡田頼母)와 토시요리(年寄)⁵⁸⁾ 마쓰이 도쇼(松井圖書)도 관여하였고, 번주의 로쥬(老中)⁵⁹⁾ 마쓰다이라 야스도(松平康任)도 묵인하고 있어 계획대로 큰 이익을 얻어 번 재정 재건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막부의 온미쓰(隱密)⁶⁰⁾인 마미야 린조(間宮林藏)에게 탐지되어 밀무역이 발각되어 1836년(天保 7) 6월, 오사카정(大坂町) 부교(奉行)⁶¹⁾에 의해 타노보의 가신인 번 간쥬카다(勘定方)⁶²⁾ 하시모토 산페에(橋本三兵衛)와 하치에몬이 체포되어 12월 23일에 막부로부터 선고가 내려졌다. 타노보와 도쇼는 할복자살, 하시모토 산페에와 하치에몬은 참수형, 번주는 사형을 면했지만 영구 칩거를 명령받았고, 결국 마쓰이 마쓰다이라 가에 의한 하마다번 통치는 종말을 맞게 되었다.⁶³⁾

이 ‘하치에몬 울릉도 밀무역 사건’ 이후 에도막부는 1837년(天保 8) 2월에 막부 및 간 번의 감찰관에게 다음과 같은 마쓰시마(울릉도) 방면의 이국(異國) 도해 금지를 알리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竹島制札)을 하달하였다.

56) 최영성, 2016, ‘일본고문헌을 통해 본 독도-隱州視聽合記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57) 에도시대 武家 家臣團의 최고 지위의 役職.

58) 武家社會를 비롯해 町村 등에서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

59) 에도시대 將軍에 직속되어 정무를 통괄하는 常任最高職.

60) 幕府의 密命으로 은밀히 정보를 수집을 하는 자

61) 主君 등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武家時代의 직명.

62) 에도시대 幕府나 각 藩에서 금전출납을 담당하는 役.

63) 日本ウィキペディアフリー百科 <https://ja.wikipedia.org/wiki/Wikipedia>



(도 28) 다케시마 도항금지 경고판(출처: 국립해양박물관)

“금번 마쓰다이라 스오노카미의 원래 영지인 세키슈의 하마다 마쓰하라 우라에 거주하는 무숙자 하치에몬이 다케시마에 도해한 사건을 조사하여 위의 하치에몬과 나머지 관련자들을 각각 엄벌에 처하였다. 위의 다케시마는 옛날 호키 요나고 사람들이 도해하여 어로활동 등을 했지만, 겐로쿠 연간에 조선국에 양도한 이래 도해 정지를 분부하셨던 곳이다. 무릇 다른 나라에 도해하는 것은 엄중히 금지한 바로, 앞으로 앞서 말한 섬도 마찬가지로 이를 명심하여 도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일본 내 각 지방을 항해하는 회선 등은 해상에서 다른 나라의 선박을 만나지 않도록 항로에 신경을 쓰도록 이전에 공지한 대로 지킬 것이며, 앞으로 되도록 먼 바다까지 항해하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막부의 지시가 있었으니 항시 잊어버리는 일 없이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다카다 덴포 8년 2월 관청(今度松平属防守元領分石州

清田松原浦二罷在候無宿ハ右衝門竹嶋江渡海致し候一件吟味之上石八右概門其外夫な嚴科ニ被行候右嶋住古者伯州米子之者共渡海魚漁等致し候といへども元禄之度朝鮮団江御濃ニ相成候以来渡海被停止被仰出候場所都而異団渡海之儀重き御制禁候像向後右嶋渡儀も同様相心得浅海致しまじく候勿論団々之廻船等‘海上ニお丙て異団船不出合構乗筋等心掛可申候先年も相舶候通弥相守以来も可成たけ遠沖桑不致探桑廻可甲候右之通従公催被仰出候間常々無忘却可相守者也 高田 天保八年二月役所)”⁶⁴⁾

이와 같은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이 일본 전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자 1840년대 이후에 출간되기 시작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모방판과 해적판에는 ‘다케시마 일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출판사가 지도 전체에 경위선을 그리고, 조선령인 울릉도·독도는 물론 유구왕국령인 에라부지마와 기카이지마, 에조지에 속했던 오시마와 고지마, 무인도였던 오고시마, 죄수들의 유형지였던 하치조지마까지 일본의 관할구역과 같은 채색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1779년에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일본 지도사에서의 위치와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생애와 업적,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편집과 제작에 있어서는 세키스이가 지도를 제작하게 된 계기와 지도제작을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 편집 과정 등을 고찰하였고, 또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원도의 작성과 당시 지도의 인쇄방법까지 살펴보았다. 지도의 내용 분석에서는 위도와 경선(방격선), 지도의 표현 내용, 지도의 축척 등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시바노 리쓰잔의 지도 서문을 풀이하고, 범례의 내용도 분석하였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판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각종 자료를 참조해 출판 허가판과 모방판, 해적판을 분류해 정규 출판허가 판본에 대해서

64) 외교부 <https://dokdo.mofa.go.kr/>

는 초판(1779년)과 초판의 개정판, 제2판(1791년), 제3판(1811년), 제4판(1833년), 제5판(1840년)에 대한 지도의 크기, 판각자, 발행처를 정리하고, 모방판은 1844년, 1846년, 1852년, 1862년, 1865년, 1871년판으로 참고자료의 범위 내에서 지도 크기와 발행처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해적판에 대해서는 발행처와 발행연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분류가 불가능하였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는 일본의 관할구역 외에도 조선의 남동부 일부와 울릉도·독도가 그려져 있어 한국과 일본이 각각 독도 영유권에 대해 자국에 유리하도록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경위선과 채색 유무에 따른 영역’에서는 일본 측의 주장을 기술한 다음 한국 측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또한 울릉도·독도 옆에 쓰인 ‘견고려유운주망은주’에 대해서는 이 문장의 원전인 『은주시정합기』의 내용을 살펴본 뒤 일본 측의 주장을 기술한 다음 한국 측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끝으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모방판과 해적판에는 지도 전체에 경위선이 그려지고,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오키국과 같은 채색을 넣어 마치 일본의 관할구역으로 표시한 계기에 대해서는 1836년 해상 운송 중개업자인 아이즈야 하치에몬이 울릉도에 건너가 밀무역을 하다가 발각되어 발생한 ‘다케시마 일건’으로 인해 일본 내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20년에 걸친 연구한 끝에 완성한 지도로 1세기에 걸쳐 중판이 거듭되면서 당시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애용되었고, 해외에도 전해져 일본을 알리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도가 중판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고, 판본의 형태까지 달라지면서 당초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구상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도가 바뀌면서 오늘날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한국과 일본 간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일본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초판에 조선 땅으로 표시된 ‘울릉도·독도’에 대해서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저서〉

- 秋岡武次郎, 1955, 『日本地圖史』, 河出書房
平凡社 編, 1964, 世界大百科事典 第2版, 平凡社
中村拓, 1974, 『日本古地圖大成』, 講談社
長久保片雲, 1978, 『地政學者 長久保赤水傳』, 曉印書館
室賀信夫, 1983, 『古地圖抄-日本の地圖の歩み-』, 東海大學出版會
長久保光明, 1992, 『地圖史通論』, 曉印書館
海田俊一, 2017, 『流宣圖と赤水圖-江戸時代のベストセラー日本地圖-』, 三恵社

〈논문〉

- 長久保光明, 1969, 長久保赤水の日本地圖編集について, 『地圖』Vol.7 No.3 日本國際地圖學會
長久保光明, 1972, 長久保赤水の地圖編集とボルトラノ海圖利用について, 『地圖』Vol.10 No.3 日本國際地圖學會
長久保光明, 1984, 長久保赤水の日本地圖の編集のあらまし, 歴史地理學 127号, 歴史地理學會
馬場章 외, 2003, 디지털アーカイブを利用した地圖の書誌学 - 長久保赤水製作『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の場合 -, 情報處理學會
矢崎いづみ, 2006, 合羽摺の技術・表現方法の應用に關する研究, 日本デザイン學會
上杉和央, 2010, 地圖史における森幸安の再布置, 歴史地理學 52-1(248)
上杉和央 외, 2010, 長久保赤水舊藏資料についての検討, 國土地理協會
최영성, 2016, 일본고문헌을 통해 본 독도-隱州視聽合記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久保井規夫, 2016, 長久保赤水「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の變化と領有的分析, 동북아역사재단
海田俊一, 2017,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赤水圖)の改版過程について, 『地圖』Vol.55 No.3 日本國際地圖學會

〈웹 사이트〉

- 長久保赤水先生銅像建立實行委員會 <http://www.nagakubosekisui.com/member.html>
長久保赤水顯彰會 <http://nagakubosekisui.org/>
日本外務省 홈페이지 www.mofa.go.jp
島根縣 홈페이지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
日本ウィキペディアフリー百科 <https://ja.wikipedia.org/wiki/Wikipedia>
日本國土地理院 <http://www.gsi.go.jp/>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http://www.archives.go.jp/>
古文書を楽しむ會 <https://sites.google.com/site/komonzyokai2/>

2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의 제작배경과 독도영유권적 가치*

The Making of Kaisei Nihon Yochirotei Zenzu(「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and Its Significance in the Sovereignty of Dokdo

최재영**·이상균***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지리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이하 세키스이)가 제작한「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의 제작배경을 살펴보고, 이 지도가 독도영유권 논쟁에 있어 지니는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키스이가 살았던 시대상과 그의 생애, 세키스이와 지도제작,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지도제작사적으로 지니는 위상과 그 판본들, 독도영유권 관련하여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양상을 알아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과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독도영유권에 있어 지니는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에서 지도학적으로 높은 위상을 지니고 대중적 인기를 누렸으며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제시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대해 지리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독도영유권 논쟁에 있어 지니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독도영유권, 지도학

* 이 연구는 한국지리학회지 7권 3호에 게재된 동명의 논문을 저작권자인 한국지리학회의 허락을 구하여 실는 것으로 일부 수정·보완되었음.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Associate Professor, Geography Education Major, Faculty of Social Educ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imagechoi@cu.ac.kr)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kyigeo@gmail.com)

I. 머리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 관련 항목 및 팸플릿에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서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한학자(漢學者)이자 지리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이하 “세키스이”)가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경위선 안에 일본을 표현한 최초의 일본 지도로 알려져 있다(Yoko, 2016). 이 지도는 18세기 후반에 제작되어 19세기 중반까지 수차례 재간행되었고, 오늘날 한일 간의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큰 지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이 지도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다룰 때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지도를 어느 정도 이상 비중 있게 다룬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게다가 이 지도에 대한 지리학계에서의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 중요성에 비하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라는 지도 자체에 주목하면서, 독도영유권에 있어 이 지도가 지니는 가치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 지도를 다루고 있는 국내 문헌뿐만 아니라 일본 측 자료와 해외의 논저 또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자인 세키스이가 살았던 시대상과 그의 생애, 세키스이와 지도제작,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지도제작사적으로 지니는 위상과 그 판본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독도영유권 관련하여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논쟁 양상과 독도영유권에 있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지니는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일본 지도학사에서 지니는 위상과 그 위상으로 인해 독도 영유권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한 지리학적 검토는 독도영유권 논쟁에 있어 지니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I.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생애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배경

1.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생애와 지도제작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는 에도 시대의 한학자(漢學者)이자 지리학자이다(최영성, 2016). 현재의 도쿄인 에도(江戸)를 정권 중심지로 하는 에도 시대(1603~1867)는 확립기(1603~1651), 안정기(1651~1716), 동요기(1716~1843)를 거쳐 마침내 ‘대정봉환(大政奉還; 타이세이호칸)’, 즉 막부가 통치권을 조정에 반납함으로써 마무리된다(임우기·정호웅, 1997). 따라서 1717년에 태어나 1801년까지 살다 간 세키스이는 에도 시대의 동요기를 살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에도 시대의 동요기의 일본은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인들의 세력이 커져갔고, 상대적으로 무사 계급의 경제력이 약화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몇 번의 개혁이 발생하였다(임우기·정호웅, 1997). 그리고 학문으로의 난학(蘭學)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1774년 ‘해체신서(解體新書; 카이타이신쇼)’라는 일본 최초의 번역 의학서가 스기타 겐과쿠(杉田玄白)에 의해 출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책 번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정순분, 2006). 난학은 일본의 자연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영향으로 막부의 천문방(天文方) 다카하시 요시토키(高橋至時)는 간세이(寬政)력을 만들었고, 그에게 역학 및 측량을 배운 이노우 타다타카(伊能忠敬)는 실측에 기반

한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를 1821년에 제작하기에 이른다(박석순 외, 2005). 하지만 세키스이가 3,40대였던 18세기 중엽은 난학의 미명기로서 아직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고, 기본적으로는 쇄국 정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기독교 관련 서적은 물론 천문·측량·지리 관련 과학서까지도 금서로서 경계되었던 시기였다(榊原和夫, 1986).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1717년 12월 8일 히타치국(常陸国) 타가군(多賀郡) 시라카와아카하마 마을(白川赤浜村)에서 출생하였다(岡田俊裕; 2011). 타가군은 현재의 이바라키 현(茨城県)의 북부에 있던 군으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바라키 현이 후쿠시마 현 남쪽에 접해있는 현이며, 특히 타가군은 그 중에서도 후쿠시마 현과 접해있던 군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키스이는 부모와 동생까지 다 잃고 11살에 혼자가 되어버리는 불행을 겪었으나 다행히도 이해심과 애정이 넘치는 계모의 손에 자라게 된다.¹⁾ 그는 17살 때부터 농업과 학문을 병행하여 한학과 한시를 배웠고, 25살부터는 미토(水戸) 번(藩)의 대표적 한학자인 나고에 난케이(名越南溪; 1699~1777)를 스승으로 모시며 주자학과 한시문과 함께 천문지리를 연구하였다(岡田俊裕; 2011). 번(藩)은 에도 시대 봉건 영주인 다이묘(大名)가 지배한 영토를 칭하는 용어로²⁾, 미토 번은 세키스이가 나서 자란 히타치국의 한 번이다.

세키스이는 1760년, 그의 나이 44세 때 20일 동안 오슈(奥州) 남부와 에치고(越後)로 여행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오기행(東奥紀行; 토오키코)」을 저술하고, 1767년 51세 때는 영주의 명에 따라 베트남 부근에 표류한 미토 번 사람들을 나가사키에서 인수하기 위해 떠난 112일간의 여행에서 청, 네덜란드, 베트남의 풍습, 오사카와 나가사키 등의 경관을 기록하였다(岡田俊裕; 2011). 나가사키 여행을 마친 세키스이는 「나가사키행 역일기(長崎行役日記; 나가사키코에키닛키)」 및 「안남국표류기(安南國漂流記; 안남코쿠호류키)」는 물론, 청나라 사람과 시를 교환한 내용을 정리한 「청사창화집(淸槎唱和集; 신사쇼와슈)」까지 펴냄으로 향사(郷士; 고시), 즉 농민이지만 무사의 대우까지 받는 자격까지 얻게 된다(長久保片雲, 1978). 1777년, 61세의 세키스이는 마침내 번주의 시강(侍講; 지코)이 되어 에도로 이주하게 되고, 이후 에도에서 20년간 살게 되었다(岡田俊裕; 2011). 농부 출신인 세키스이가 미토 번 제 6대 번주인 토쿠가와 하루모리(徳川治保)의 학문상 스승인 시강이 된 것은 봉건 사회였던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長久保片雲, 1978). 1791년, 75세가 된 세키스이는 시강에서 퇴임하였으나, 번주의 명에 따라 에도의 번주 저택에 머물며 「大日本史(대일본사)」³⁾의 지리지 편찬에 전념하다 1797년 고향으로 돌아와 1801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岡田俊裕; 2011).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지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지도학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일본의 지리학자들에 대해 정리를 한 오카다 토시히로(岡田俊裕; 2010/2011)는 세키스이의 지도 제작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술하였다. 세키스이가 일본 지도 제작의 뜻을 품게 된 것은 마흔이 넘어서였다. 앞서 언급했듯 세키스이는 1760년 44세 때 20일간의 오슈(奥州) 남부와 에치고(越後)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지형, 마을, 명승고적 등을 그림과 함께 기록을 하였으며, 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세키스이는 일본지도 제작의 뜻을 품게 된 것이었다. 이후 그는 지인들에게 일본 지도와 지리서 등을 구하여 기본도를 만들고, 방문자나 여행자들에게 자신의 고향과 여행한 곳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였다. 일본지도 제작의 꿈을 품은 지 8년 만인 1768년 세키스이는 시부카와 하루미(渋川春海; 1639-1715)가 측정한 위도를 지도에 기입하였다. 그리고 1779년 그의 나이 63세에 마침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1785년 세키

1) <http://nagakubosekisui.org/長久保赤水とは>

2) 네이버 지식백과, “번”, 두산백과, (주) 두산(<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57766&cid=40942&categoryId=33414>)

3) 「大日本史」는 1657년에 편찬이 시작되어 1906년에나 완성이 되었는데, 세키스이의 지리지는 너무 상세한 탓인지 실리지 않았다(岡田俊裕; 2011).

스이는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1602년)」등을 참고하여 세계지도인「지구만국산해여지전도(地球萬國山海輿地全圖)」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역사적 사항을 담은 「대청광여도(大清廣輿圖)」라는 중국 전도를 제작하였다. 대청광여도에는 한문으로 번역된 천문학 서적인「천경역문(天經或問)」에 기초하여 위도와 경도가 기입되어 있다. 하지만 한 장의 지도에 중국의 역사를 제대로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세키스이는 12장의 시대별 중국 지도와 1장의 동아시아 현세도(現勢圖)를 제작하였다. 세키스이의 지도 제작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어 74세인 1790년에 일본 최초의 역사지도첩인「당토역대주군연혁도(唐土歷代州郡沿革圖)」를 간행하였다. 세키스이는 이 역사지도첩을 만들며 특히 채색에 신경을 쓰는데, 이는 1774~75년 오사카에 있을 당시 세키스이가 나카무라 테키사이(中村揚齊)의 「중하고금주군도보(中夏古今州郡圖譜)」라는 채색지도에서 받은 충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岡田俊裕; 2010/2011).

2.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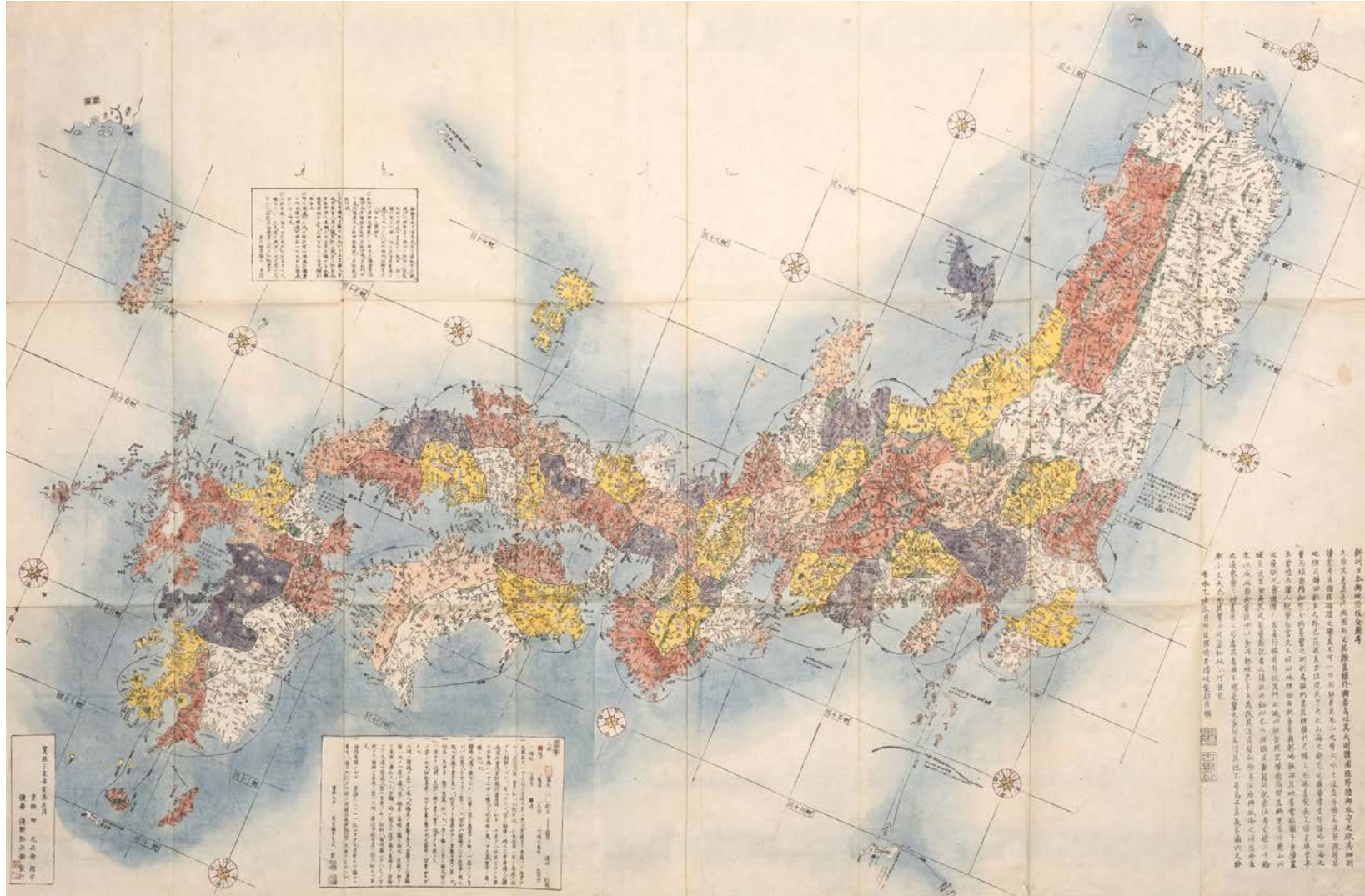
일본의 고지도 관련 책을 보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榊原和夫, 1986). 이시카와 토보노부(石川流宣) 계통의 채색 지도는 장식성을 넘어 여행자를 위한 정보 및 정치적 특징까지 보여주는 실용성 덕분에 17세기 후반부터 근 한 세기에 걸쳐 독점적인 인기를 일본에서 누렸다(Yoko, 2016). 하지만 이시카와 계열 지도의 인기는 1779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의해 종식되고 만다(Kazutake, 1994).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가로 135cm, 세로 84cm의 크기에 10리를 1촌으로 하는 축척(岡田俊裕; 2011), 즉 40km를 3.3cm로 하는 129만 6천분 1의 축척으로 제작되었다(榊原和夫, 1986). 세키스이가 제작하였다고 하여 ‘세키스이도(赤水圖; 세키스이즈)’로 불리기도 하는데, 경위선 안에 일본을 표현한 최초의 일본 지도로 알려져 일본 지도학사의 한 획을 긋는 지도라 할 수 있다(Yoko, 2016).⁴⁾ 세키스이가 거의 혼자 힘으로 만들어 내다시피 한 지도지만 아직 난학(蘭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18세기 중엽의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당시 다른 지도들에 비해 혁명적인 수준이며, 당시 간행된 지도 중에 가장 정확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榊原和夫, 1986). 기존의 이시카와 토보노부의 지도가 장식성이 강하고 모양이 왜곡된 측면이 있었기에 세키스이의 지도의 정확성은 획기적으로 여겨졌다(岡田俊裕; 2011). 40여 년 뒤에 나온 이노다다 타카(伊能忠敬)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는 더욱 높은 정확성을 자랑했지만 에도 막부에 헌납되어 일반인에게 공개가 금지된 탓에 민간 간행도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인텔리 층과 여행자에 의해 애용되었으며(榊原和夫, 1986), 그 인기는 메이지 초기까지 이어졌다(岡田俊裕; 2011).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판본에 대해서 Kazutake(1994)는 1791년, 1811년, 1833년, 1840년, 1844년에 수정 및 재발행되었다고 하고, 岡田俊裕(오카타 토시히로; 2011)는 1791년,

1811년, 1833년, 1840년, 1846년, 1871년에 재발행되었다고 한다(표 1). 久保井規夫(구보이 노리오; 2016)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총 15개의 판본이 있으며 이를 원판과 관허판, 복제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1775년 3월에 나온 「신각일본여지노정전도(新刻日本輿地路程全圖)」가 원판이고 1778년에 개정판이 나오는데, 이것의 관허판이자 대대적으로 시판된 것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인 것이다. 구보이 노리오

4) 경위선이 최초로 표현된 일본의 지도는 1754년에 제작된 森幸安(모리 코안)의 「일본분야도(日本分野圖; 천문도)」(도쿄국립문서보관소 소장)이며(Kaz ut aka, 1994, 415), 일본에서 컬러지도가 등장한 것은 1694년에 제작된 石川流宣(이시카와 토보노부 또는 이시카와 류센)의 「일본해산조륙도(日本海山潮陸圖)」(캘리포니아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소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Yonemoto, 2016:37). 따라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표현된 경위선이나 채색은 세키스이가 최초로 시도했다기 보다는 그 이전에 시도된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신각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한 시바노 리쓰잔(柴野栗山)의 1775년에 작성된 추천사가 적혀 있는 것에 주목하고 1775년 원판의 존재를 추측한다. 그는 실제로 1775년 원판과 1778년 개정판을 입수하는데, 관허를 얻기 전 소량만 제작되다보니 원판의 경우 “환상의 문서”(久保井規夫, 2016, 13)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한다. 그림 1은 현재 독도재단에서 소장 중인 1791년 관허 2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91년 판 (출처: 독도재단 소장)

표 1.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여러 판본

	Kazutake(1994)	岡田俊裕(2011)	久保井規夫(2016)
1775			신각일본여지도정전도 (新刻日本輿地路程全圖) - 원판
1778			1775년 판의 개정판
1779	○	○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 관허1판
1791	○	○	- 관허2판
1811	○	○	- 관허3판
1833	○	○	- 관허4판
1840	○	○	- 관허5판(최종판)
1844	○		- 복제판
1846		○	- 복제판이며 1846년 판인지도 불분명
1852			증정 대일본국군여지도정전도 (增訂 大日本國郡輿地路程全圖) - 스즈키 키엔(鈴木驥園) 증정(增訂)
1862			- 복제판
1865			- 복제판
1871		○	- 1852년 판의 재각(再刻)

Ⅲ.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와 독도영유권

1.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대한 일본정부 입장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영토와 관련된 항목⁵⁾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정세(日本の領土をめぐる情勢)” 항목에는 일본과 관련된 3 가지의 영토 분쟁이 나온다. 바로 북방영토, 센카쿠(尖閣), 그리고 일본에서 타케시마(竹島)로 부르는 독도이다. 여기서 竹島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이 중 “타케시마 문제의 개요(竹島問題の概要)”의 하위 항목인 “타케시마의 인지(竹島の認知)”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등장한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어떤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타케시마의 인지’ 부분에 나오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타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타케시마’ 또는 ‘이소 타케시마’로 불렸습니다(그림1 →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타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測位)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타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 외에도 울릉도와 타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합니다.

이 글 아래에는 두 장의 지도가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이고, 하나는 1724년경에 제작된 「죽도지도(竹嶋之圖)」이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울릉도와 독도 부분은 따로 확대하여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설명에서처럼 울릉도에는 竹島, 독도에는 松島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요컨대, 일시적인 명칭의 혼란은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타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증거는 경위선을 표현하여 제작된 나가쿠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등 다수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제작한 정확한 지도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명에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초판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설명 아래에는 메이지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846년 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久保井規夫(구보이 노리오; 2016)는 일단 1846년에는 관허 정규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846년 판 자체가 복제판임을 지적한다. 그는 제시된 지도에 시바노 리쓰잔(柴野栗山)이 1775년에 쓴 추천사가 있기 때문에 세키스이의 지도인 것은 맞지만, 1846년 판은 1775년 원판 판목에 추가 판각을 한 복제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구보이 노리오는 이 지도에 발간연월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1846년 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5) <https://www.mofa.go.jp/mofaj/territory/>

2.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동향과 판본 논란

일본 정부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 측에서는 냉정하게 이 지도의 가치와 의미를 분석해보고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지도를 활용하고 일본 측의 움직임에 대응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검토해보았으며,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관한 국내 연구현황

연도	연구자	요지
2005	최서면	제목: 한·일간의 역사문제: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 한일 역사문제를 독도를 사례로 다루는 연구 - 일본 사서(史書) 연구 - 일본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은주시청합기』,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제시 - 경위도선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채색 여부에 관해서 다루고 있음. 초판을 사례로, 채색이 없으므로 일본영토라고 볼 수 없다는 것.
2010	김호동	제목: 한일 양국에서 누가 먼저 '독도'를 인지하였는가-일본 외무성의 竹島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 1, 2 비판- ○ 일본의 독도 인식 주장에 대한 비판 - 1779년 초판이 아닌, 독도가 경위도선 내에 있고 채색이 되어 있는 1846년 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 - 울릉도 옆의 주기를 『은주시청합기』와 함께 설명
2012	하도겸	제목: 한일간 역사전쟁: 독도 그 불편한 진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양국간 정부입장(1·II)에 대한 검토 ○ 독도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정부입장 검토 -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근거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분석 - 체계적인 지도학적 분석은 없지만, 채색 여부, 경위도선 적용 여부 등 한일 양국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 - 『은주시청합기』와 관련하여 울릉도 옆 주기 내용 비판적 검토
2013	이상태	제목: 일본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 일본의 고지도를 다루면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언급 - 채색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는 것은 세키스이가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 - 울릉도 옆에 적힌 주기 내용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 밖의 땅으로 인정하였다고 봄.
2014	남영우	제목: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도제작과 측량 ○ 독도관련 지도 개관 - 울릉도 옆 주기의 기점이 독도라면 올바르지만, 울릉도라면 오류임을 지적.
2016	최영성	제목: 일본의 고문헌을 통해 본 독도: 『은주시청합기』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중심으로 ○ 『은주시청합기』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연관 분석 - 채색, 경위도, 울릉도 옆 주기에 대한 분석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어느 정도 이상의 비중을 둔 초기 연구는 최서면(2005)의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1779년 판을 제시하며,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과 마찬가지로 채색이 없기에 일본 영토가 아님을 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최초로 나오기에, 이 시대에 이미 이 두 섬이 일본의 영토라고 일본이 주장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독도가 등장하는 최초의 일본지도가 적어도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미립(2016)에 따르면 돗토리번의 에도 유수거(留守居) 고타니 이해(小谷伊兵衛)는 오야·무라카와 집안이 소장한 회도를 필사하여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란 표제를 붙여 에도막부에 제출하였는데, 유미립은 그 시기를 1695년에서 1696년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어 1724년 돗토리번은 「죽도지회도지사(竹嶋之繪圖之寫)」라는 표제의 회도를 막부에 제출하는데, 이름에 드러나듯 이 회도는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를 다시 필사한 것이다(유미립, 2016).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논란의 초점이 좁혀진다. 하나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판본 논란과 또 다른 하나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상의 울릉도 옆 주기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판본 논란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타케시마의 인지(竹島の認知)” 항목과 2008년 2월 처음으로 제작된 “타케시마 문제 10가지 포인트(竹島問題10のポイント)” 팸플릿에 게재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1779년 초판(관허 1판)이 아닌 1846년 판이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두 판본의 가장 큰 차이는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채색이 되지 않았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경위도선 내에 있지 않은 반면, 1846년 판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채색이 되고 있고 두 섬이 경위도선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호동(2010)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팸플릿에 1846년 판을 실은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하도겸(2012)은 일본이 1846년 판을 게재하는 것에 의도성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근거중심적인 접근이라고 하기 힘들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즉 1779년 판에는 독도가 경위도선 밖에 있으며 채색도 되어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1775년의 「신각일본여지도정전도」의 경우 독도가 경위도선 내에 채색이 되어 있다는 사실로 우리의 논리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측이 ‘그저’ 울릉도와 독도를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아세아소동양도(亞細亞小東洋圖; 1857)」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지도 하나로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영성(2016)은 1775년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채색이 되어 있지도 않고 경위도선 밖에 있다고 주장한다. 두 섬에 채색이 된 지도는 이 지도의 모본이며, 이를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증거로 일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久保井規夫(구보이 노리오; 2016)의 설명은 또 다르다. 1775년 지도의 울릉도와 독도는 부적절하게 채색이 되고 경위도 선 안에 배치가 된 것은 사실이나, 1779년의 개정판에 세키스이가 울릉도와 독도를 도해 금지의 땅으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1779년 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경위도선 밖에 있고 무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전술하였지만 久保井規夫(구보이 노리오; 2016)는 1846년 판이 복제판이며, 발행연월이 표기된 지도의 왼쪽 아래 부분을 게재하고 있지 않아 이 지도가 1846년 판인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한다. 소장처인 메이지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 지도를 확인해보면, 왼쪽 아래 부분이 가려졌다가 보다는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구보이 노리오는 발행처와 간행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도가 1775년 원판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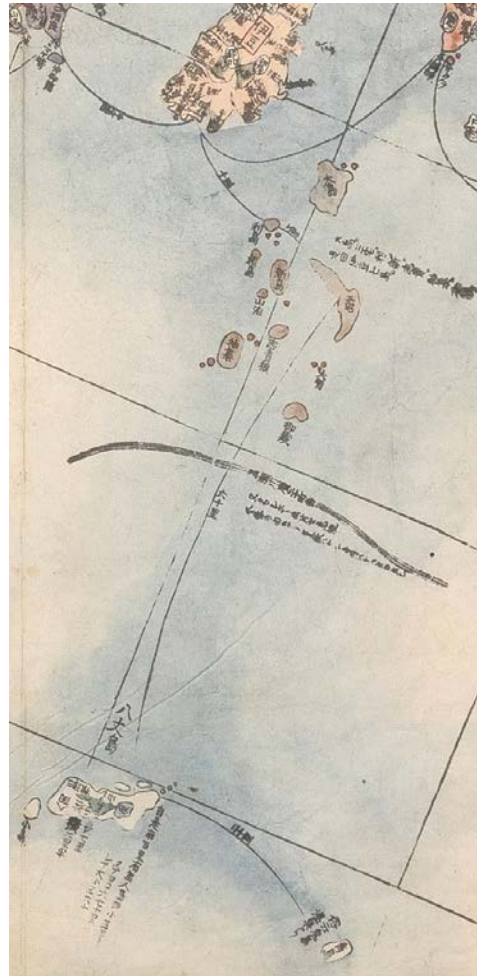
3.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영유권적 가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판본 논란은 결국 독도의 채색 여부와 경위선 내 배치 여부의 문제이다. 1779년 판과 달리 1846년 판에는 독도에 채색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채색이 되어 있는 것은 독도뿐만이 아니다. 1846년 판에는 울릉도 역시 독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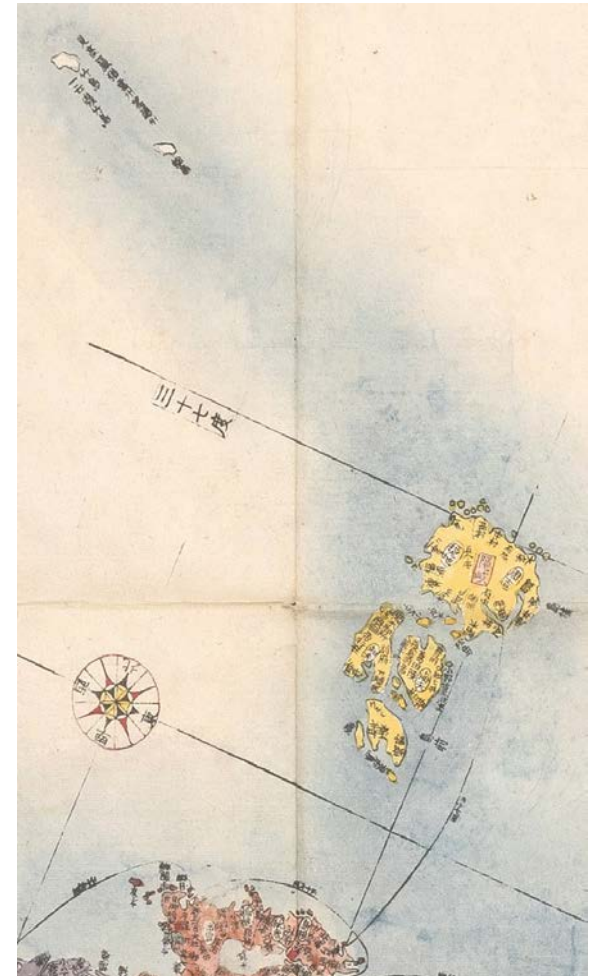
그렇다고 울릉도의 영유권 논란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1846년 판에는 부산 역시 색이 칠해져 있다. 따라서 채색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산지역과 마찬가지로 채색이 되지 않았던 지도도 있고, 모두 채색이 된 지도도 있는데,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다는 각 지도별로 따져봐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다만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인 울릉도와 같은 그룹으로 표현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위선 내 배치 여부도 마찬가지로이다.

1846년 판에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 그리고 부산까지도 전부 경위선 내에 배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경위선이 무조건적인 영유의 의미까지 내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세키스이의 지도에서 경도는 위도와 달리 단지 눈금의 표시에 불과하여 동서간의 거리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시도된 것일 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영유권적 가치는 어떠한 점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림 2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이즈 제도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잘 보면 해안을 따라 선이 그



〈그림 2〉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91년 판 이즈 제도 부분
(출처: 독도재단 소장)



〈그림 3〉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91년 판 울릉도-독도와 오키 제도 부분
(출처: 독도재단 소장)

어져 있고 그 선에 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들은 해안뿐만 아니라 이즈제도의 섬들에도 이어져 있다. 심지어 붉은 색으로 채색된 치바(千葉) 현(県)에서 270km 정도 떨어진 아오가시마(青ヶ島)까지도 거리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인다. 이를 그림 3과 비교해보자.

그림 3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서 울릉도-독도 및 오키 제도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붉은 색으로 채색된 시마네(島根) 현(県)에서 오키 제도까지는 선이 그어져 있고 거리가 표기된 것이 보인다. 하지만 울릉도와 독도 쪽으로는 아무 선이 보이지 않는다. 독도에서 시마네 현까지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보다 본토와 훨씬 멀리 떨어져있는 아오가시마에는 선이 그어져 있고 거리도 나오지만 독도로는 아무런 선도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1791년 판뿐 아니라 1846년 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1779년 초판에는 이러한 해상거리선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다.⁶⁾ 따라서 일본 연안을 중심으로 표현된 해상거리선 및 거리 수치는 이 지도가 재발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며, 이 같은 거리선의 유무가 당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국내 연구에서의 논란의 두 가지 초점 중 하나인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울릉도 옆 주기의 해석 문제에서 더욱 확실한 영유권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이듯 “見高麗猶雲州望隱州(견고려유운주망은주)”라는 이 문구는 정확히는 竹島로 표기된 울릉도 오른쪽에 적혀 있다. 猶(유)는 ‘오히려’, 혹은 ‘원숭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같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구는 “고려를 보는 것은 운주에서 운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구는 隱州(은주), 일본어에서는 ‘운슈’라고 읽는 현재의 시마네 현 오키 제도(隱岐諸島)를 1667년 운슈(雲州) 마쓰에(松江) 지역 번사(藩士)였던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민정 시찰하고 기록한 지지인 『은주시청합기(隱州福惠合記)』에 나오는 “見高麗如雲州望隱州(견고려여운주망은주)”라는 문구에서 如(여)를 猶(유)로 바꾸기만 하여 쓴 것이다(최영성, 2016).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의 북서쪽 경계를 “此州(차주; 이 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울릉도로 볼 것인지, 운슈(오키 제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있어, 최영성(2016)은 “見高麗猶雲州望隱州”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즉 여기에서의 高麗(고려)는 오키 사람들에게 고려 땅의 상징인 울릉도이며, 약 70km 떨어져 있는 운슈(隱州)와 운슈(雲州)가 일본 영토이듯 약 90km 떨어져 있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久保井規夫(구보이 노리오; 2016)는 에도시대의 州(슈)가 나라를 뜻하기에 此州(차주)를 울릉도나 독도로 볼 수 없으며, 운슈(오키 제도)나 다이슈(対州; 쓰시마) 같이 나라를 이루는 큰 섬에 州(슈)가 붙는다고 설명한다. 최영성(2016)은 운슈-운슈 사이의 거리와 울릉도-독도 사



〈그림 4〉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91년 판 울릉도-독도 부분
(출처: 독도재단 소장)

6)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초판은 네덜란드의 레이던(Leiden) 대학 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Kazutaka(1994)의 414쪽에,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대학의 허가를 받아 Yoko(2016)의 41쪽에 각각 수록이 되어 있다.

이의 거리가 “조망이 가능한 가시적 거리”(최영성, 2016, 190)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이토 호센이 울릉도와 독도를 본도(本島)와 속도(屬島)의 관계로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시적 거리에 존재한다는 것은 공간적 교류가 가능케 하기에 독도가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자도(子島)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남영우, 2014).

IV. 맺음말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 배경은 다소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제작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농부 출신이면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 번주의 시강에까지 임명된 입지전적인 학자였고, 그가 지도 제작의 꿈을 품은 것도 마흔이 넘어서였기 때문이다. 아직 난학의 미명기임에도 세키스이는 20년이란 세월을 바쳐 당시로서는 놀랄만한 정확성을 지닌 지도를 홀로 완성시킨다. 그 노력만큼이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인기를 누려 여러 번 재발간되었고 메이지 초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애용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에서 지도학적으로 높은 위상을 지니고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상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779년 초판이 아닌 1846년 판을 제시함으로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확한 발간 연도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본 문제는 결국 독도에 대한 채색 여부 및 경위선 내 배치 여부와 직결되는데, 채색 여부와 경위선 내 배치 여부가 무조건적인 영유권을 내포하는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영유권에 대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가치를 해상에 표현된 거리선에 주목하여 탐색해보았다. 거리선은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의 수많은 지점과 지점을 잇고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섬까지도 잇고 있는 반면, 울릉도와 독도로는 어떠한 선도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울릉도 부근에 표기된 주기는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기록된 “見高麗如雲州望隱州(견고려여운주망은주)”는 온슈와 운슈가 일본의 영토이듯,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호동, 2010, “한일 양국에서 누가 먼저 ‘독도’를 인지하였는가-일본 외무성의 竹島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 1, 2 비판-,” 민족문화논총, 44, 3-33.
- 남영우, 2014,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도제작과 측량,” 영토헤양연구, 7, 26-51.
- 동북아역사재단, 2012,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 박석순·서민교·손승철·신동규, 2005, 「일본사」, 대한교과서.
- 유미림, 2016, “‘이소타케시마’어원에 관한 일고 (一考),” 영토헤양연구, 12, 44-73.
- 이상태, 2013, “일본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독도연구, 15, 57-96.
- 임우기·정호웅, 1997, 토지사전, 솔.
- 정순분, 2006, 일본고전문학비평, 제이앤씨.
- 최서면, 2005, “한·일간의 역사문제: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일본학, 24, 1-25.
- 최영성, 2016, “일본의 고문헌을 통해 본 독도: 『은주시청합기』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84, 169-196.
- 하도겸, 2012, “한일간 역사전쟁: 독도 그 불편한 진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양국간 정부입장(I·II)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사학보, 25, 145-180.
- Kazutaka, U. 1994, Cartography in Japan, in Harley, J. B. and Woodward, D. eds., The History of Cartography: Cartography in the traditional East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46-477.
- Yoko, M. 2016, A New Map of Japan and Its Acceptance in Europe, in Wigen, K., Fumiko, S. and Karacas, C. eds., Cartographic Japan: A History in Map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1-43.
- Yonemoto, M. 2016, The European Career of Ishikawa Ryusen’s Map of Japan, in Wigen, K., Fumiko, S. and Karacas, C. eds., Cartographic Japan: A History in Map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7-40.
- 久保井規夫(구보이 노리오), 2016,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변화와 영유권 분석,” 독도 관련 일본 발행지도 학술회의, 12월 6일, 12-21.
- 長久保片雲(나가쿠보 헨운), 1978, 地政学者長久保赤水伝. 暁印書館
- 榊原和夫(사사키바라 카즈오), 1986, 地図の道—永久保赤水の日本図, 誠文堂新光社.
- 岡田俊裕(오카다 토시히로), 2010, 近代日本の地理学者に関する伝記・著作物研究, 高知大学教育学部研究報告, 70, 129-168.
- 岡田俊裕(오카다 토시히로), 2011, 日本地理學人物事典【近世編】, 原書房.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주) 두산, (<https://terms.naver.com/list.nhn?cid=40942&categoryId=40942>, 2022년 12월 23일 최종 접속)
-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mofaj>, 2022년 12월 23일 최종 접속)
- 나가쿠보 세키스이 현창회(長久保赤水 顕彰会), (<http://nagakubosekisui.org>, 2018년 10월30일 최종 접속)

일본 외무성 10포인트에 제시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에 대한 분석

박경근 (재)독도재단

1. 서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은 21세기 들어오면서 해마다 1월 외무상의 정기국회 외교연설 망언을 시작으로, 2월 정부 고위인사가 참석하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개최, 3월 문부과학성의 초중고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4~5월 외무성의 외교청서 발간, 7~8월 방위성의 방위백서 발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억지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팸플릿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팸플릿 중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10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담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이하 10포인트)」가 있다. 그런데 이 「10포인트」는 조작된 자료를 통해 일본에게 유리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팸플릿이다.

본 원고는 「10포인트」 중 ‘1포인트 -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주장의 근거 자료로 사용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분석하여 일본이 조작된 증거를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087

2. 일본 억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1) 지도의 증거력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1454),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1785),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및 부속지도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1877),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제41호」 및 「관보 제1716호」(1900) 등 한국과 일본에서 제작한 고문헌과 고지도 등의 사료를 포함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 중 「삼국접양지도」, 「기죽도약도」 등과 같은 독도관련 고지도는 현대와 같이 정밀하고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 및 영토의 경계 등과 그 시대의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고지도는 문헌자료와 달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 중의 하나인데, 첫째,

독도와 오키섬 사이에 해양국경선이 그려져 있을 때, 둘째, 울릉도·독도가 한반도와 동일하게 채색되어 있을 때, 셋째, 일본 전도 또는 시마네현(島根県) 지도에서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을 때, 넷째, 울릉도·독도 인근에 ‘조선의 영토’라는 표기가 있을 때 등이다. 이러한 시각적 증거자료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 중 어느 하나의 섬만 따로 표기하거나 그리지 않고,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로 인식하며 항상 함께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지도 중에서 국가에서 만든 관찬지도(官撰地圖)인 경우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만든 사찬지도(私撰地圖)에 비



〈그림1〉 삼국통람도설 부도 삼국점양지도(하야시 시헤이, 1785, 출처 : 독도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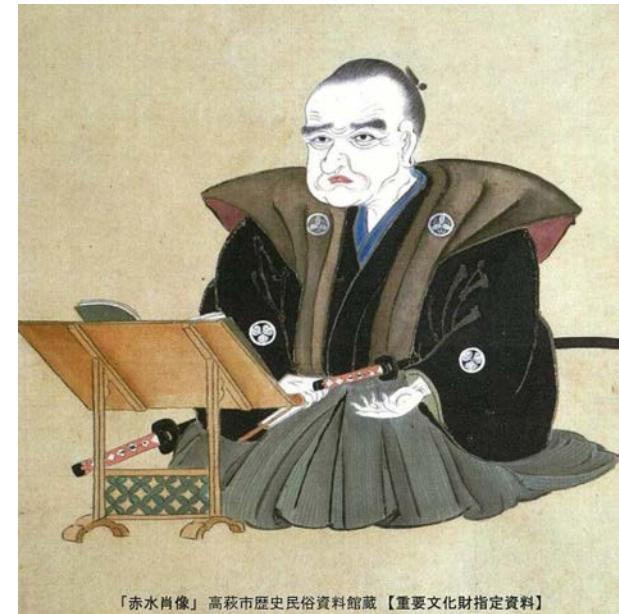
해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인되지 않은 사찬지도라고 하더라도 제작자의 신분이 분명하고 관의 허가를 받아 제작한 것처럼 지도 제작 과정이나 상황 등에 따라 영유권 주장에 대한 증거력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785년 일본의 지도제작자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에 수록된 부도(附圖) 5장 중 하나인 「삼국접양지도」는 사찬지도이다. 그러나 이 지도는 1854년 미국과의 통상 조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에 대한 미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이 반박 증거로 제시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무력화 시키는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과 동일하게 채색이 되어 있고, 그 옆에 ‘朝鮮ノ持也(조선의 소유)’라는 글이 적혀있어, 일본 스스로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원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도 개인이 만든 사찬지도이지만 막부의 허가를 받아 출판하였다. 그러므로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도 제작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일본 지도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선구자의 위치에 있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1779년 제작하였으며, 10리(里, 4km)를 1촌(寸, 3.3cm)으로 한 축척을 사용하여, 일본을 행정 단위별로 구분하여 채색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일본 최초로 경위선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그려진 경선은 실제 경선이 아니고 위선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일종의 방안선이다. 지도는 북북동으로 약 20° 정도 경사져 있으며 범위는 현재의 홋카이도와 오가사와라제도, 오키나와 등을 제외한 일본 본토를 나타내고 있다. 지도의 좌측상부 북서쪽 방향에는 동래, 부산 등 조선의 남동쪽 해안을 표시하였고, 그 동쪽 바다에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나란히 울릉도와 독도를 모자섬(母子島)으로 묶어 함께 취급하면서 타국의 영토임을 의미하는 경위도선 밖에 위치시키며, 일본 본토와 달리 채색을 하지 않고 그려놓았다.

한편, 울릉도에는 죽도(竹島, 다케시마)와 일운기죽도(一云磯竹島, 일명 이소다케시마)라고 적혀있고, 독도에는 송도(松島, 마쓰시마)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우측에는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 글귀는 “여기(울릉도와 독도)에서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정확히 운주(雲州, 이즈모시, 시마네현의 일부)에서 은주(隱州, 오키섬)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1667년에 저술된 오키지방(隱岐地方)에 관한 가장 오래된 지지(地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권1의 국대기(國大記)에 나오는 ‘此嶋ヨリ隱州ヲ望又朝鮮ヲモ見ル(이 섬에서 은주(오키섬)를 바라보고, 또 조선도 바라본다)’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림 2〉 나가쿠보 세키스이 초상

隱州志 卷一 地理 八 大正十一年 庚午 歲
 德津在北海中故云隱岐島按德津海濱其左在巽地
 其位震地言嶋後也周吉郡屬焉其有者周吉郡南庫田鄉
 豐崎也從是南至雲州義穗園三十五里辰巳至伯
 州赤崎浦四十里未申至石州溫泉津五十八里昔
 子至卯無可往地成亥間行二日一夜有松嶋又一
 日程有竹嶋俗言竹嶋多竹嶋海鏡此二嶋無入之
 地見高麗如雲州望隱州然則日本之乾地以
 此州為限矣民部因帳云凡諸健見免催役隱
 岐國以國造田三町地子充之然近代所賦每年
 一萬千六百餘斛其餘又獻漆椿實山椒紫
 藻鯛鱒鯽鯉鮓石決明乾海參鳥賊馬皮等
 是慶長年中堀尾氏之所定也古老傳曰昔菊
 馬守源義親之國其後薩守平忠教在雲州
 義保閔領之忠教城跡在三保園其後鎌倉右大將家使
 地頭人治之其人號首故國人號鎌倉入道而
 不名遂失其姓名按此人仿々不隱岐別官恭
恭是必在野也又京極藏人某大和守某者來

〈그림 3〉 은주시청합기(1667, 출처 : 외교부 독도)에 기록된 울릉도-독도관련 부분

3. 연구동향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1846년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조작2판)」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이 지도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최서면(2005)은 지도를 분석하여 오키섬(隱岐島)을 비롯하여 일본 각 지방의 영토는 채색되어 있지만,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조선 남동부 해안과 마찬가지로 채색을 하지 않고 있어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기술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지도를 통해 일본지도에 죽도와 송도가 그려져 있어 일본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본과 다르게 표시되는 일이 많은 세키스이의 지도이기 때문에 지도 자체뿐만 아니라 출판기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호동(2010)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팸플릿에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 초판)」라고 명시해놓고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독도에 경위선이 그려져 있는 1846년의 모사본을 보여주면서 독도의 명칭이 표기된 지도를 통해 마치 일본 영토로 인식한 지도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궁색하고도 잘못된 방법을 택하여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도의 울릉도, 독도 옆에 ‘견고려유운주망은주’를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오키섬을 일본의 북서쪽 경계로 인정한 『은주시청합기(1667)』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도겸(2012)은 세키스이가 직접 만든 필사원본으로 보이는 「일본여지도정전도(1775)」를 통해 일본측이 1779년 관의 허가를 받아 지도를 간행하기 전에 발행했던 단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1779년판은 아마도 인쇄상의 오류로 보인다고 변명을 댈 근거가 일본에게 확보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다른 연도의 판본이 아닌 1846년판을 공개한 것은 단지 벌레먹지 않아 상태가 양호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으로, 이를 우리 측에서 왜곡이라고 하며 의도성이 있다고 비난까지 하는 것은 신중하고 근거중심적인 사료 접근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우리 측 주장에 대해 철저한 보완을 위한 문제제기라는 단서를 달아,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색채로 구별하자는 내용 즉 울릉도도 독도와 같은 색채이므로 울릉도도 독도처럼 일본땅이라고 주장해 보라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지양해야 하고, 1775년 필사본에서도 한국과 울릉도·독도의 색채가 다른 점으로 보아 울릉도·독도가 일본땅이든 아니든 적어도 일본측이 이 두섬을 우리 땅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으로 확인해 주는 논리적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으므로 우리측 주장이 일본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논리로서는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일본측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찬지도 하나만을 들어 단지 독도를 인식했다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측은 논리적인 근거가 결여된 상태에서 비논리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주관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일본측 주장을 반박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하고도 객관적인 재검토가 긴급하게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태(2013)는 일본의 고지도를 소개하면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 관허1판)」를 언급하며 세키스이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 조선 땅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위도선 밖에 그린 것이라고 보았고, 울릉도 옆에 적혀있는 『은주시청합기(1667)』에 나오는 ‘견고려유운주망은주’내용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 밖의 땅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영우(2014)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 관허1판)」가 실측지도는 아니지만, 이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 간에 서로 조망할 수 있는 가시적 거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주기가 있어 독도가 울릉도의 자도(子島)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에서 “그곳으로부터 고려국이 보임”이라는 내용을 통해 울릉도가 한국령이므로 독도를 기점으로 해야 올바른 표현이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이라면 동해안이 보이지 않으므로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균(2015)은 세계지도 제작에 반영된 19세기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19세기 내내 독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은 크게 첫째, 서구 지도제작의 영향이 반영된 아르고노트(竹島)+다즐레(松島) 계통, 둘째, 조선지도의 영향으로 같은 지도에 울릉도가 두 번 표현된 계통, 셋째, 일본의 로컬 수준에서 인식했던 전통적인 일본식 인식구조가 반영된 태정관지령(1877)의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 계통의 지도로 구분하였다.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 관허1판)」를 일본의 전통적 인식들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영토 범위 밖에 그려 놓은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지도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최영성(2016)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 관허1판)」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의 경위선 밖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의 영토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는 죽도와 송도에 적혀 있는 ‘견고려유운주망은주’라는 주기는 『은주시청합기(1667)』에서 인용하여 지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즉, 죽도와 송도 사이를 ‘見高麗, 猶雲州望隱州’라는 아홉 글자로 비스듬히 이어주면서, 이 두 섬이 본도(本島)와 속도(屬島: 부속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내비쳤다. 다시 말해서 두 섬이 조선의 판도(版圖)에 들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선웅(2018)은 일본 에도시대 중기의 한학자이며 지도제작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20년간의 고증을 거쳐 1779년에 완성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메이지시대 초기인 1870년대까지 1세기에 걸쳐 중판을 거듭해 일본 지도사에 큰 족적을 남긴 지도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지도사적 위치와 세키스이의 생애와 활동,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과정, 지도의 내용과 특징 등을 지도학적으로 분석하고, 지도의 연도별 판본과 표현 내용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의 영역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1840년에 발행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관허5판)」까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되었음을 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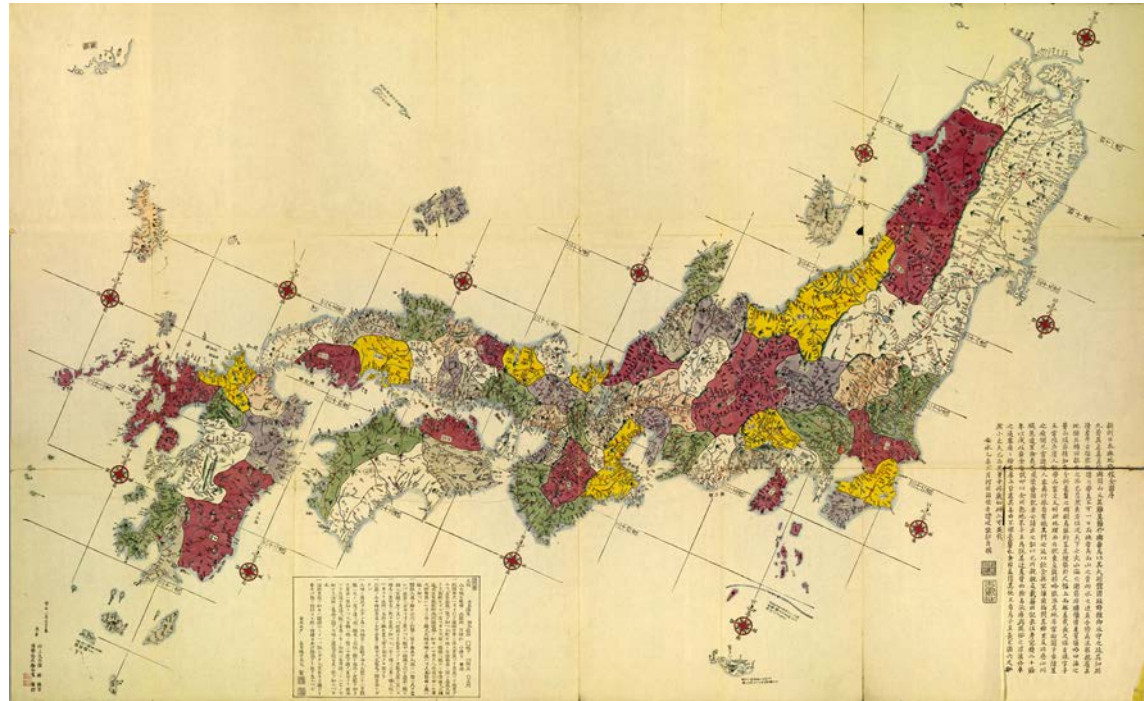
최재영·이상균(2018)은 일본의 지리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살았던 시대상과 그의 생애, 그리고 그가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배경, 지도제작사적으로 지니는 위상과 그 판본들을 살펴보고, 일본에서 지도학적으로 높은 위상을 지니고 대중적 인기를 누렸으며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제시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독도영유권에 있어 지니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가치를 해상에 표현된 거리선에 주목하여 논증해보니, 거리선은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의 수많은 지점과 지점을 잇고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섬까지도 잇고 있는 반면, 울릉도와 독도로는 어떠한 선도 이어져 있지 않아,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기록된 “見高麗如雲州望隱州(견고려유운주망은주)”는 운슈와 운슈가 일본의 영토이듯,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울릉도 부근에 표기된 주기를 통해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최장근(2021)은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막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지도로, 당시 막부는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1775년 울릉도·독도를 채색하고 경위도선을 표시한 「신찬일본여지노정전도」가 막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채색하지 않고 경위도선이 없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로 수정하여 다시 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1778년판, 1779년판, 1791년판처럼 나가쿠보가 직접 제작한 지도와 달리 사망 후 1844년판과 1846년판처럼 막부의 허가없이 아류식 복제판을 만들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처럼 조작한 것이라고 하며, 이 지도는 증거능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일본영토가 아닌데 울릉도·독도를 표기한 것은 조선영토로서 위치를 표시하여 일본 어부들의 도해금지를 위한 지침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4.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판본과 특성

일본 전국지도의 판도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출현으로 급변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 지도를 바탕으로 개정·증보된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판본에 대해서 Kazutaka(1994)는 1791년, 1811년, 1833년, 1840년, 1844년에, 오카다 토시히로(岡田俊裕, 2011)는 1791년, 1811년, 1833년, 1840년, 1846년, 1871년에 수정 및 재발행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 2016)는 총 15개의 판본이 있으며 이를 원판과 관허판, 조작판으로 구분하였고, 1779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기록된 시바노 리쓰잔(柴野栗山)의 추천사 연월이 1775년 3월이며 「신각일본여지노정전도(新刻日本輿地路程全圖)」로 시작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1775년 3월에 나온 「신각일본여지노정전도」가 원판이고 1778년에 개정판이 나오는데, 이것의 관허판이자 대대적으로 시판된 것이 1779년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라고 설명했다(최재영·이상균, 2018).



〈그림 4〉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 초판, 출처 : 독도재단)



〈그림 5〉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846, 조작2판, 출처 : 와세다대학도서관)

그러나 구보이의 15개 판본 중 1852년과 1871년도 판본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기본으로 증보 개정한 「증정 대일본국여지도정전도(增訂 大日本國郡輿地路程全圖)」로 지도 사이즈도 크고, 경위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판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판본이라고 언급되지 않았지만, 재단에서 이번에 수집한 1781년 지도를 검토해보니 1778년 개정판 지도를 수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개정1판과 개정2판으로 분류하여 추가하였다.

이를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세키스이는 1775년 기존의 지도와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신각일본여지도정전도(원판)」를 제작하였지만, 울릉도와 독도를 오키섬과 같은 색으로 채색하고, 경위도선 안에 그려놓아서 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3년 후 이러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채색하지 않고, 주변에는 경위도선을 그리지 않은 「신각일본여지도정전도(개정1판)」를 제작하여 1778년 관의 허가를 득하여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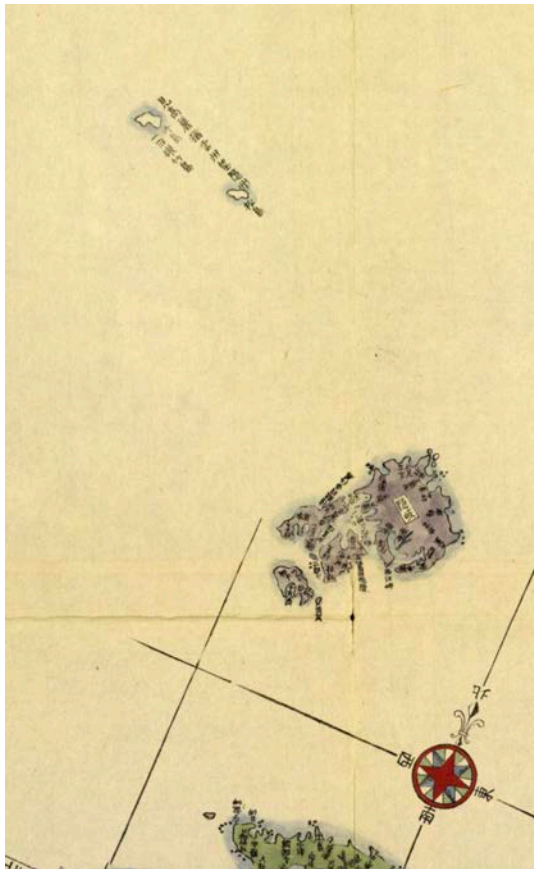
그리고 이듬해 1779년 새로운 정보를 더해 오사카서점에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초판, 관허1판)」를 간행하였다. 이후 1781년(개정2판), 1791년(관허2판), 1811년(관허3판), 1833년(관허4판), 1840년(관허5판), 1844년(조작1판), 1846년(조작2판), 1862년(조작3판), 1865년(조작4판)까지 총 9판이 더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표 1). 그러나 판본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도 외에도 연대미상의 지도를 포함하여 세키스이 사후 100년 동안 전국적으로 민간에 의한 조작판이 다수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발간 현황 및 국내 소장처

연도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제작 현황	국내 소장처
1775	「신각일본여지도정전도(新刻日本輿地路程全圖)」, 원판	-
1778	1775년 판의 개정1판(관허를 획득)	독도재단/ (사)우리문화가꾸기회
1779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관허1판, 초판	독도재단/ (사)우리문화가꾸기회
1781	1778년 판의 개정2판	독도재단
1791	관허2판(1779년 개정판)	독도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국립해양박물관
1811	관허3판(1791년 개정판)	독도재단
1833	관허4판(1811년 개정판)	독도재단
1840	관허5판(1833년 개정판, 최종판)	독도재단
1844	1779년 조작1판(채색과 경위선을 조작)	독도재단
1846	1779년 조작2판(채색과 경위선을 조작)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	독도재단(지도 이미지 파일 소장)
1862	1779년 조작3판(채색과 경위선을 조작)	-
1865	1779년 조작4판(채색과 경위선을 조작)	-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판본 중 세키스이 생전에 개정된 지도는 1778년, 1779년, 1781년, 1791년이고, 1840년에 발행된 관허5판까지는 관허1판과 지도의 내용이 동일하게 일본 본토가 행정구역별로 채색되어 있고, 경위도선이 그려져 있는 반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남동쪽 해안과 같이 무채색으로 되어있고, 경위도선 자체가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는 그려져 있지 않아 일본 영토와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1844년 조작1판부터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본토와 동일한 색으로 채색되었고, 울릉도와 독도까지 경위도선을 연장해 일본의 영토로 보이게끔 지도를 조작한 것이다. 특히 구보이 교수가 2017년 공개한 세키스이의 1840년 제작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중보수정본 신행정구역」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1696년 안용복의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 이후 죽도도해를 금지하였는데, 1836년 하마다 번 주민 하치에몬(八右衛門)의 울릉도·독도 도해 사건을 계기로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그리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5.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관허판과 조작판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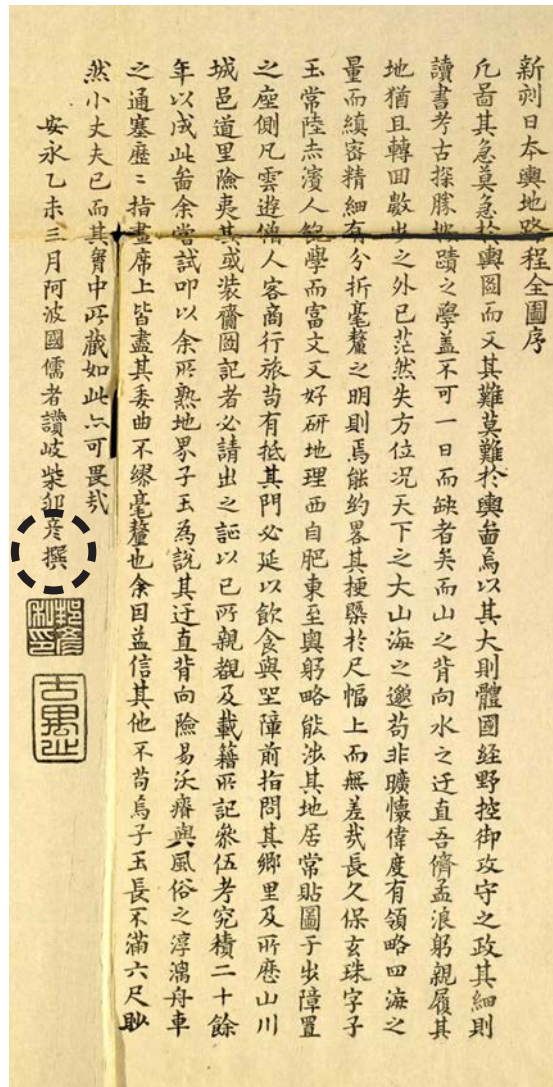
〈그림 6〉 독도 부분 확대된 1779년(초판)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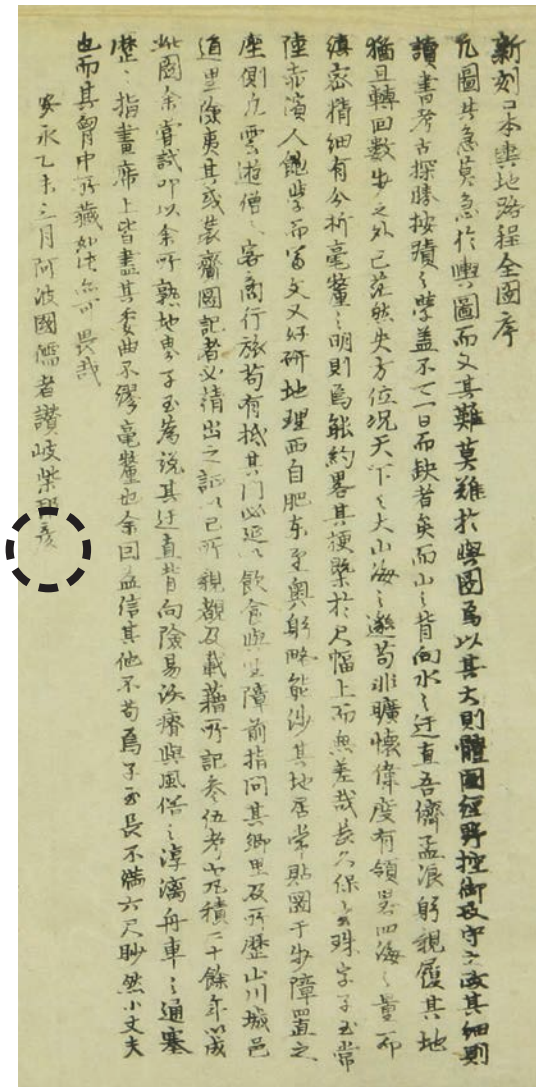
〈그림 7〉 독도 부분 확대된 1846년(조작2판) 지도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의 독도 영유권 정당성의 근거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846, 조작2판)」를 소개하며 “각 종 문헌이나 지도 등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와 위치를 옛날부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 외무성이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증빙자료로 내놓아야 하지만, 외무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도는 반대로 일본이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일본이 제시한 1846년(조작2판) 지도와 달리 1779년(관허1판)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지도 중앙에 채색된 일본 본토와 다르게 채색을 하지 않았고 경위도선이 없는 영역에 그려져 있으며, 거리를 표시하는 선도 없다. 그리고 지도 우측 하단에 작성된 서문을 보면 1779년(관허1판) 지도에는 직접 편찬하거나 창작하였을 경우에 사용하는 ‘찬(撰)’이 있지만 일본이 제시한 1846년(조작2판) 지도에는 ‘찬(撰)’이 없다. 이런 점으로 보아 당시 일본 스스로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림 8〉 '撰'이 있는 1779년(초판) 지도



〈그림 9〉 '撰'이 없는 1846년(조작2판) 지도

이상에서와 같이 일본 외무성이 독도의 영토주권을 획책하기 위한 눈속임을 하려는 생각으로 원본 지도를 조작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어 오히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억지스러운 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지도는 공식적으로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제작한 관허(官許) 지도인 1779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관허1판)」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와 동일한 색으로 채색하고 연장한 경위도선 안에 그려놓은 1846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조작2판)」이기 때문이다. 즉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 본문에 1779년 관허1판 지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삽화는 관허1판 지도를 조작한 1846년 조작2판 지도를 첨부한 것으로, 자국에 불리한 증거는 숨기고 임의로 조작된 유리한 증거만으로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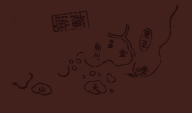
참고문헌

-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 2016,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변화와 영유권 분석,”독도 관련 일본 발행지도 학술회의 자료(12월 6일), 12-21.
- 김호동, 2010, “한일 양국에서 누가 먼저 ‘독도’를 인지하였는가 -일본 외무성의 竹島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 1, 2 비판-,”민족문화논총, 44, 3-33.
- 남영우, 2014,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도제작과 측량,”영토해양연구, 7, 26-51.
- (사)우리문화가꾸기회, 2016, 『일본고지도선집Ⅱ:독도는 일본의 역사적 영토인가』, 세가.
- 이상균, 2015, “세계지도 제작에 반영된 19세기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문화역사지리, 27(1), 15-32.
- 이상태, 2013, “일본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독도연구, 15, 57-96.
- 최서면, 2005, “한·일간의 역사문제: 독도문제를 중심으로,”일본학, 24, 1-25.
- 최영성, 2016, “일본의 고문헌을 통해 본 독도: 「은주시청합기」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 84, 169-196.
- 최선웅, 2018,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지도학적 분석”, 한국지도학회지, 18(3), 1-21.
- 최장근, 2021, “「은주시청합기」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 대한 재해석 -죽도문제연구회(시모조 마사오)의 날조를 비판하면서-”, 일어일문학, 89, 349-368.
- 최재영·이상균, 2018,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의 제작배경과 독도영유권적 가치, 한국지리학회지, 7(3), 387-397.
- 하도겸, 2012, “한일간 역사전쟁: 독도 그 불편한 진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양국간 정부입장(II)에 대한 검토,”한국사학사학보, 25, 145-180.
- 岡田俊裕(오카다 토시히로), 2011, 「日本地理學人物事典(近世編)」, 東京: 原書房.
- Kazutaka, U., 1994, Cartography in Japan, in Harley, J.B. and Woodward, D., eds., The History of Cartography: Cartography in the Traditional East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46-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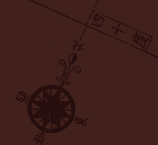
지도에 그려진 독도의 진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진실을 밝히다.

발행일	2023년 02월 22일
기획	독도재단
펴낸곳	독도재단(www.koreadokdo.or.kr)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동양빌딩 9층 054.272.6513
편집 및 제작	뉴스원 053.767.6009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2 by (주)독도재단
All Rights Reserved



 (제)독도재단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2. 독도의 지질
 3. 독도의 지형
 4. 독도의 기후
 5. 독도의 생물
 6. 독도의 문화유산
 7. 독도의 역사
 8. 독도의 행정 구역
 9. 독도의 주민
 10. 독도의 관광 자원
 11. 독도의 개발 계획
 12. 독도의 연구 동향
 13. 독도의 시사점

